

중국선교 전문지

# 중국으로 주께로

1999/9·10 (통권 59호)

**특집/중국 소수민족 선교는 어떻게?**  
**제 3국의 중국선교/이스라엘에서의 중국인 선교**  
**중국뉴스 초점/WTO 가입과 중국 정국(政局)**  
**시사 안테나/중국 정부의 파룬궁(法輪功)즉이기**  
**연재기획/중국 교회를 찾아서- 광시(廣西)성 교회**  
**궁금합니다/탈북 동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별책부록』 중국기도

#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 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금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 훈련목표

-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 있게 구사.
-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 훈련기간

6개월(매년 3월, 9월 개강 /주 5일 28시간 훈련)

## 훈련내용

선교중국어 집중과정, 현지 훈련 과정,  
차이나 퍼스펙티브(CHINA PERSPECTIVE)과정

## 훈련대상

1.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선교사
2. 교회, 교단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99-2786

\*현재 15기 훈련 중(1999. 9~2000. 2)이며, 16기 훈련은 2000년 3월에 개강합니다.

# 베이징의 파룬궁 성토 열풍

이동화

지난 번 베이징을 방문하던 날 그곳 날씨는 섭씨 42℃를 기록하고 있었다. 40여 년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다고 한다. 게다가 비행기 도착시간이 한낮이라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자 비행장 시멘트 바닥의 열기까지 합쳐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날 중국에는 또 다른 열풍이 중국 전역을 뒤덮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파룬궁(法輪功) 성토 열풍이었다. TV, 라디오, 신문 등 모든 매스컴이 총동원되어 파룬궁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것은 3~4일 계속되었다. 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중국은 현재 '신념의 진공' 상태에서 이미 '신념의 혼돈' 내지 '신념의 각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이른바 '신념의 3중 위기', 즉 마스·레닌주의에 대한 환멸,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회의로 신념의 진공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선교는 이제까지 마치 '노마크 찬스'에서 골문을 향하여 축구공을 차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의 빈 마음을 물질주의 뿐 아니라 파룬궁 같은 신흥종교들이 급속히 메워가고 있는 것이다. 최대 1억까지도 추산되는 파룬궁 추종자들의 규모도 규모지만 그것이 지난 7,8년 사이에 그토록 빨리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바야흐로 중국은 신념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매스컴들이 파룬궁을 성토하는 내용들이 기독교, 특히 가정교회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파룬궁을 공격하는 주요 명목들인 지구폭발 주장, 기공치유 행위, 축귀(逐鬼)설 등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의 종말론, 신유, 마귀론 등과 외견상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독교를 미신적인 것으로 비판할 수 있다. 아닌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기독교 탄압의 이유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파룬궁 비판이 특히 삼자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의 경우 대대적인 핍박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중국 방문은 이처럼 이상기온과 파룬궁 성토 열풍으로 심신이 매우 피곤하였다. 몸은 귀국해서 하루정도의 쉼을 통해 회복되었지만 파룬궁 성토 열풍의 후유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혹시나 파룬궁 성토의 불똥이 기독교계에 튀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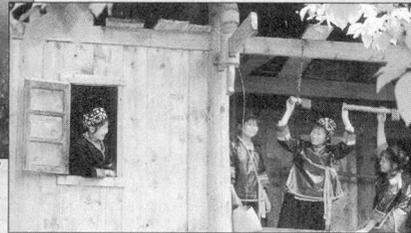
# 중국을 주제로



연재기획/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



제3국의 중국선교/  
이스라엘에서의 중국인 선교



특집/ 중국 소수민족 선교는 어떻게?



헌신의 삶/ 중국선교사 행전 - 존 스탬과 베티 스탬

## 중국선교 길라잡이

- 4 선교일언 / 중국선교 길라잡이 / 한정국
- 8 중국 교회 현주소 / 삼자(三自)와 가정교회(家庭教會)의 동향 / 천위(陳漁)
- 12 선교나침반 / 가정교회 이해와 선교전략(1) - 산은 높고 골은 깊으며 대지는 넓다 / 김요한
- 16 궁금합니다 / 탈북 동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까? / 석은혜
- 18 제3국의 중국선교 / 이스라엘에서의 중국인 선교 / 권수영

## 특집 / 중국 소수민족 선교는 어떻게?

- 24 중국 소수민족 얼마나 알고 있나? / 편집부
- 27 중국 미전도종족입양 선교 현황 / 조명순
- 32 미전도종족 선교는 소수민족 선교인가? / 석은혜
- 36 중국 소수민족 신학교육 현황 / 류애화
- 41 중국 소수민족 선교방법 / 김중하
- 46 대담 · 중국 소수민족 복음화 현황 / 정리 · 박선경

## 헌신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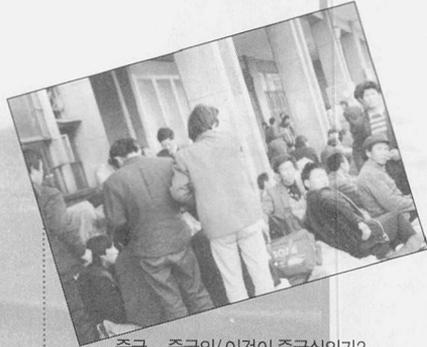
- 52 중국 사역 체험기 / "내가 믿고 또 일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어는 가정교회 지도자의 어머니 / 왕쓰웨
- 57 현지에서 온 소식 / 중국 교회 잘 도우려면 바로 알아야 / 유준상
- 60 내가 만난 하나님 /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 / 까오루이(高魯翼)
- 64 이삼열의 중국 이야기 / 기독교가 바꾸어 놓은 중국 문화 / 이삼열
- 68 중국선교사 행전 / 죽음에서의 승리 - 존 스탬과 베티 스탬 / 정리 · 광숙



헌신의 삶/ 이삼열의 중국 이야기



관문도시/ 선양(沈陽)



중국 · 중국인 이것이 중국식인가?

### 중국은 지금

- 72 중국 · 중국인 / 이것이 중국식인가? / 도디도데
- 76 중국은 지금 / 바람난 남편이 뿌린 고통의 씨앗 / 황리리
- 80 중국 뉴스 초점 / WTO 가입과 중국 정국(政局) / 연구부
- 86 중국 동향 /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 / 연구부
- 114 시사 안테나 / 중국 정부의 『파룬궁 죽이기』

### 연재기획

- 92 중국 교회를 찾아서(18) / 가난도 우리 신앙을 막진 못해-광시(廣西)성 교회
- 96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7) / 독립기정교회의 신학사상(II) / 주피득
- 102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13) / 윈난성의 소수민족(IX) - 징포족(景頗族) / 허중선
- 108 중국의 관문도시(10) /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 선양(沈陽) · 뤼양(瀋陽) / 연구부

### 선교 중국어 코너

- 115 중국어 기도문 / 爲工作人的禱告(직장인 크리스천을 위한 기도)
- 116 선교 중국어 회화 / 恢復人類的原狀(인류의 회복)
- 117 중국어 복음성가 / 我的幫助從何而來(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 1 발행인 칼럼 / 베이징의 파룬궁 성토 열풍 / 이동화
- 85 목상의 샘 / 영적 성숙
- 118 서평 / 기(氣), 무엇이 문제인가?
- 118 선교 다이제스트 / 『21세기 선교지도자 개발론』 외 2권
- 119 신간도서 / 『오늘의 중국을 읽는 27가지 테마』 외 2권
- 120 선교게시판 / 해외선교단체 정보
- 122 자료실 / 지린성(吉林省) 국경관리조례 선전 제강
- 124 선교복덕방 / 새 일꾼을 찾습니다



연재기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 징포족(景頗族)



중국 뉴스 초점/  
WTO 가입과 중국 정국



중국 동향/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

# 중국선교 길라잡이

한정국

오늘날의 선교지는 10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많은 지역이 기독교화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탄의 요새들이다. 불교권, 공산권, 힌두교권 그리고 최후의 난공불락이라 불리우는 회교권 등이 그것이다. 10/40 창문 지역은 특히 적의 요새들이 진을 치고 있다. 여기에 한국 교회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이 필요한 시대다. 상대는 이미 200여 년 간 서구 선교사들과의 전투 경험이 있는 노련한 사탄과 그 휘하 마귀 및 귀신/지역신(Territorial Spirit)이다. 그들도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용감하고 열정적이나 냉철한 지혜가 다소 부족한 한국 선교사들이 나서고 있다. 선교사 수가 5,000명에 이르렀다지만, 전투는 군사 수보다 전투 전략 수행이 승리를 좌우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달라진 중국의 상황을 잘 보아야한다. 중국을 볼 때,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되어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구분해야한다. 이제는 중국의 미전도지역 또는 미전도종족집단을 향해 전도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가 공동으로 전도 및

선교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선교사들은 동북3성과 서부해안(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그리고 홍콩에 이르는 지역)에 편중 배치되어 있어 중서부로의 전진을 요구받고 있다.

## 중국 내의 가나안 땅을 탐지(探知)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探知)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민13:1,2)고 하셨다. 이 때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난 시기였다.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느닷없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정탐을 얘기하셨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동시에 헛족속, 아모리족속 등 예닐곱 족속이 거하는 미전도된 지역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느 한 지역(가나안)을 설정하시고 그 땅에 입성(入城)하기 전에 그 땅을 미리 탐지(探知)케 하신 일이다. 이것을 현대 선교에 응용하기 위해 성경과 선교전략 이론, 그리고 군사 활동을 참조하여 발전시킨 개념이 전략정보네트워크 선교사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을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족(漢族)을 하나의 중국으로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적어도 한 성(省)의 동일언어 집단의 거주지는 (예= 후베이(湖北)성, 푸젠(福建)성 등) 신 가나안으로 분류하여 조사해 나가자.

## 군사학에서 배우는 선교지예

근대 및 현대 선교학의 역사는 200년을 조금 넘는다. 그러나 군사학은 2,000여 년을 넘게 발전되어 왔다. 두 분야 모두 전투를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즉 상대가 있는 개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 전략에서 발전된 전투개념은 선교학에도 응용이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본다.

군사학에서는 전투에 있어 크게 두 개의 부대로 나눠 생각한다. 즉 전투부대와 지원부대이다. 전투부대는 소총을 갖고 발로 걸어나다며 싸우는 보병(步兵), 대포를 쏘는 포병(砲兵), 도로건설, 교량 설치, 지뢰 매설을 하는 공병(工兵), 탱크와 장갑차를 움직이는 기갑(機甲), 적진에 뛰어 들어가 정찰 업무를 감당하는 정보(情報), 그리고 모든 병과를 연결하는 통신 특기가 그것이다. 이 6개 특기 구성의 전투 부대가 원활히 움직여야 전투가 가능하며, 배후에서 보급, 위생, 수송, 취사 등의 보급 부대가 전투를 돕는 것이다.

6개의 전투 특기 중 제일 먼저 활동하는 특기 부대가 누구일까? 정보병 또는 정보부대이다. 일명 첩보원 또는 정보부대라고 한다. 첩보원은 적진에 들어가 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아군 사령부에 보낸다. 아군 작전 사령부는 이 때 통신 특기 부대원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입수하고 적진의 상황을 지도 위에 표시한다. 적 사령부 위치, 적 탱크부대 위치, 탱크의 수, 대포부대 위치, 유류 탱크 위치 등 모든 자료는 지도 위에 옮겨지고, 이 지도는 전쟁 수행을 위한 작전 지도의 기초가 된다. 이런 작전 지



기도하는 일이며말로 선교의 좋은 시작이다.

도를 선교학에 응용시킨 개념이 바로 영적도해(Spiritual Mapping)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태종교의 사원의 위치, 신도수, 신(神)의 이름 그리고 영향력 정도 등을 표시한 지도는 영적 전투를 감행하는 선교사에게 좋은 전략 수립 자료가 된다. 일단 위의 지도를 보면 전선(戰線)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 전선 중 어느 부분부터 전투를 개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에 있어서 모든 특기자가 다 필요하지만 전투 수행 순서상 가장 먼저 활동이 필요한 군병이 바로 전략정보네트워크 특기자인 것이다.

소위 작전기초 지도가 완성되면 아군 사령관과 장군들은 작전을 짜게 된다. 이에 따라 작전 명령이 하달되는데 제일 먼저 포병 부대가 공격 지점을 설정, 침투로를 마련하기 위해 대포를 발사한다. 이때 산 위에서 대포의 낙하지점을 관측하고 조절시키는 관측병의 안내를 받아 정확한 공격 지점으로 대포 공격을 감행한다. 이런 포병 부대의 역할은 선교학에서 중보기도 부대라고 부를 수 있다. 정보, 통신 특기자들의 정보에 따라 영적 대포를 쏘는 것은 영적 전투의 지름길이다. 이 때 중요한 개념은 발포지점 즉 목표(Target)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점이다. 분명한 목표없이 이곳 저곳에 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선교



선교지를 설정한 후 먼저 국내에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

기도회의 기도 목표가 너무 산만한 것은 정보, 통신 기능이 약한 데서 온다고 본다.

포대의 공격 후 움직이는 다음 부대는 공병이다. 길을 내고 교량 등을 건설한다. 그리고 나서 탱크 등의 기갑부대가 적진을 향해 돌진한다. 그러면 그 탱크를 따라 진입하는 부대가 바로 보병이다. 보병은 중요한 기능이지만 전투부대에서 제일 나중에 움직이는 부대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선교사의 대부분은 특기 구분에서 보병으로 분류된다. 제일 나중에 가는 보병이 제일 먼저 전선으로 달려간 형국이다. 군사학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병술이다. 한국 선교사들의 형태는 보병 특기자로 기갑, 공병 등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선교사들은 용감하고 열정이 대단하다. 보급하는 한국 교회의 후원도 크기 때문에 그들의 수행범위는 겉보기에 크게 보이고 투입되는 장비도 대단하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기능인 정보, 통신 분야의 부재현상이다. 이런 점은 한국 교회 선교를 약화시키고 있다. 피터 와그너

(Peter Wagner)박사는 95년 세계선교대회 (GCOWE 95)에서 “한국 교회는 기도는 많이 한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동력화 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즉 중보기도의 대포부대가 정확한 발사 지점인 목표 설정의 불합리와 그 전달 능력의 하락으로 엄청난 대포부대의 효율을 부실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큰 책임은 역시 정보, 통신 특기의 부재(不在)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 새로운 타입의 선교사 필요 :

#### 전략정보네트워크 선교사

광의적 의미로는 정보와 통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선교사역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타입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로는 정보수집 및 분석 임무를 띠거나 이것을 후방 사령 본거지에 전달하는 통신 네트워크 기능을 감당하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군사학에서 말하는 정보 특기자와 통신 특기자를 합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007제임스 본드와 맥가이버의 주요 기능을 합성한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본드가이버’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

#### 전략정보네트워크 선교사의 기능과 역할

전략정보네트워크 선교사는 일단 기본 훈련과 첩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정보 수집의 안목과 기술습득 그리고 연습을 통해 그 특기를 개발할 수 있다. 그 역할은 일단 선교지를 설정하고 한국에서부터 그곳에 관한 자료, 특히 그 지역에 포진한 종족 자료를 리서치 해야 한다. 지금은 정보발달로 상당 자료를 도서관, 인터넷 그리고 이 분야에서 팔목할 만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자료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 요약 프로파일을 가지고 본인을 계속 중보기도자로 훈련시켜야 한다.

기도하는 일이야 말로 선교의 가장 좋은 시작이다.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정 종족을 위한 중보기도부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매 주마다) 그 기도그룹에 신선한 기도정보를 제공하며, 응답되어가는 모습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 선교지에서 활약중인 선교사에게 편지를 써서 그 선교사로 하여금 돕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을 정해 현지로 직접 정탐하는 것이다. 현지에 도착하면 편지를 왕래했던 선교사의 도움과 안내를 받아 미전도종족 및 현지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우선 자신이 모은 간접 정보자료를 현지에서 확인하며 수정하고, 사진자료 등 기타 실물자료를 수집하여 정보를 더욱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현지 정탐에 있어 피플 프로파일(People Profile)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며 선교사의 조사 목록의 꽃인 민속지(ethno-graphy)를 작성해 보는 일이다. 물론 이런 일은 시간을 요하고 꾸준한 관찰 및 조사를 요한다. 그러나 단순한 프로파일 작성이라든지 현지 영적 전선을 지도 위에 표시하는 영적도해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지도는 후에 본인이나 이 지역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에게 엄청나게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략정보네트워크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기존 선교사들과 정보의 유통흐름을 가속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의외로 현지 선교사들이 그곳 종족정보에 어두운 사실은 기이하기까지 하다. 우물 속에서 일하다 보니 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수로 전체를 못볼 수 있다. 그리고 나무, 나무 하나에 대한 자료와 같이 세부적인 면에서도 외부에서(한국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자료)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느 선교사들은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환성을 지르기도 한다. 하기가 현지 지도자들도 우리 자료를 보고 놀랄 정도이다. 선교사들도 현재 운동본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모두 고마워하고 있다. 우리 본부도 그분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때 꼭 필요한 기능이 정보의 네트워킹(Net-Working)인데, 공평무사하며 현지 선교사들의 필요를 적절히 채워주며 수고할 수 있는 선교사가

바로 전략정보네트워크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

### 효과적 중국선교를 위한 재편성

루이스 부시는 세계의 영적 군사들인 기독교 선교사가 소위 전도된 지역에 주로 배치되어 있음에 실망하고 있다. 7년 전 통계에서 북미 선교사의 90%가량이 선교사가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전도된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미전도 지역으로 기존 선교사를 재배치하자는 주장을 낸 바 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AD 2000운동은 10/40 창문 지역의 미전도종족 내 교회를 세우는 운동과 이에 대한 군병 우선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루이스 부시의 이런 노력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다만 우리 한국 교회에 더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병사를 전선으로 보내기 전 전투 특기를 분명히 하고 일반 선교 훈련 뿐 아니라 특기 훈련을 시켜 전투지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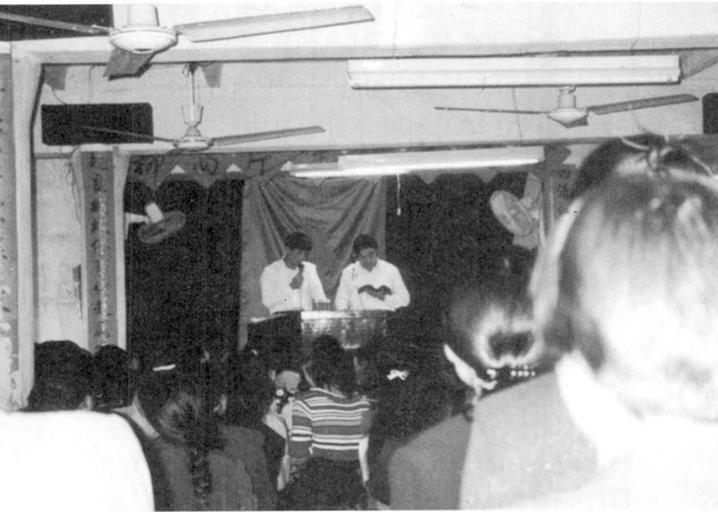
중국에 배치된 한국 선교사는 동북3성으로 지나치게 편재되어 있다. 이제 그들의 능력으로 전도가 가능한 곳, 즉 자치(自治)교회 지역에서 선교사는 철수해야 한다. 보다 미전도된 지역으로 선교사의 전진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병과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공산권 선교의 첫 출발이자 핵심인 정보수집과 관련된 리서치훈련을 받아 전략적인 선교사역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 좋은 예가 전략정보네트워크 선교사이다.

미국 선교단체인 <O.C. Int'l>은 '정보리서치 없이 선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갖고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일반 경영자들도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 투자와 정보수집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보를 선점한 자가 시장에서 끝내 이긴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 삼자(三自)와 가정교회(家庭教會)의 동향

천 위(陳 漁)



중국 정부의 전면적인 핍박은 가정교회로 하여금 통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하였다.

## 1995~1998의 중국 교회의 발전

'95년부터 '98년까지 중국 교회의 주류인 가정교회의 상황과 발전은 어떠한가? 이 글에서는 이 시기의 역사배경과 가정교회의 발전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고, 양자간의 움직임과 발전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 1. 가정교회의 상황과 발전

92년 덩샤오핑(鄧小平)이 남부지역을 시찰한 뒤 중국 국가정책의 전체적인 목표는 '경제는 반좌익, 정치는 반우익(經濟反左, 政治反右)', '경제는 풀고, 정치는 조인다(經濟要放手, 政治要管住)' 로 조정되었다. 이에 92년도

제5회 기독교전국회의 이후 기독교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종교사무관리에 대한 법적 강화' 정책에 호응하였다. 91년 2월 5일 반포된 6호 문건과, 같은 해 5월 6일 국무원 종교사무국과 민정국에서 공동으로 '종교사회단체 등록 관리방법에 대한 공고'를 반포하면서 가정교회의 전면적인 등록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전국 각지의 종교관리법규와 임시규정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94년 국무원에서 반포한 144호, 145호 시행령은 중국 내의 외국 종교인사 및 중국의 모든 종교인사와 그 활동을 분류 관리한다는 내용이였다. 소위 법적인 관리란 중국 교회 발전과 종교자유를 새장 안에서 제한한다는 것이다. 등록하지 않고, 삼자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교회는 기독교의 기치와 구호 아래 불법, 위법의 범죄활동으로, 사교조직과 반동 불법조직으로 간주되었다.

95년 말 전국종교국장회의에서 장쩌민(江澤民)은 종교사무는 정치를 중요시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93년 장쩌민이 제시하였던 아래 세 가지 문구는 장기적인 종교정책으로 되었다. 첫째, 당의 종교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행한다. 둘째, 종교사무관리를 법적으로 강화한다. 셋째, 종교가 사회주의에 적

응하도록 적극 인도한다. 이로써 95년 말부터 종교에 대한 핍박은 다시 한번 거세게 몰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省)을 넘고 현(縣)을 넘는 가정교회의 복음 전도의 물결은 결코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전면적인 핍박은 가정교회로 하여금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깨닫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 '불법, 위법, 반동'이라는 명목의 고발은 가정교회로 '성경원칙에 합치된 신앙입장'을 선언하게 하였고 아울러 가정교회와 사교(邪教)의 분별 및 영적 전쟁의 절박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 2. 가정교회 발전의 특색

### (1) 가정교회 일치운동

95년부터 화중(華中)지역의 가정교회는 현저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가정교회 일치운동으로 발전한 이러한 움직임은, 삼자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삼자에 가입함으로써' 조직을 형성하고 형식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치로 나아갔다. 가정교회는 진정한 일치의 기초는 성경의 초석 위에서, 서로 마음을 합한 기도와, 거짓 없는 성실한 사귄과, 넓은 아량으로서 세울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치운동은 조직상의 일치가 아니라 영적인 일치를 말한다.

교회 일치운동은 대가를 치르는 행동이었다. 화중 지역의 가정교회 대표들이 사방 각지에서 모여 일치를 위한 기도모임을 가질 때마다, 체포,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욱 불행한 일은 중국의 종교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가정교회 집회가 불법 종교활동으로 간주되었고, 그 중 비교적 조직체계를 갖춘 교회는 '사교(邪教)조직'으로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평소 삶 속에

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가정교회 신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내외의 크리스찬 형제들이 가정교회를 '사교'로 오해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 (2) 중국 가정교회 사상 최초 공포된 신앙고백

가정교회는 핍박의 고난은 감내할 수 있으나, 순수하고 올바른 그들의 신앙이 오인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이에 신앙의 순수성을 밝히고, 가정교회가 결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교가 아니며 왜 삼자에 가입하지 않으며, 왜 등록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수 차례 기도모임을 거친 후에 98년 11월 26일 공동으로 「중국 가정교회 신앙고백」 및 「중국 가정교회의 정부 종교정책 및 삼자에 대한 태도」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가정교회의 정교분리원칙(政教分離原則)을 밝히고,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갖지 않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사명을 실천하는 데 최우선을 둔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가정교회 대표들은 외부적인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논의하는 동시에 참으로 중요한 내부적 문제인 이단과 사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교집단으로 인해 때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가정교회가 그와 같다고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가정교회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가운데, 신자훈련과 목회사역이 복음 전파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단 침입의 기회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몇몇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교제하며 가정교회 신앙고백의 초고를 작성하여 자신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더욱 공고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중국 교회내의 영적 일치와, 선교사역의 일치를 위해 화중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게까지 이런 이념을 확대시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이 신앙고백은 실명(實名)을 사용하여 서명하였고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 문서가 일치운동의 초석이 되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 내용에 동의한다면 받아들여, 가정교회가 더욱 나은 영적단체로 발전하며, 나아가 연합하여 사역 훈련을 하며 설교자를 교류하고 자원을 공유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3) 영적전쟁의 기도운동

세상에 속한 어떤 법률도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간섭할 수 없다. 교회사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부흥 운동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교회 부흥과 중국에서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일로서 전세계 중국 기독교인의 기도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가정교회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며, 전세계 중국인 신자들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21세기를 맞아 앞서 가는 세계 선교를 위한 그리스도의 정병(精兵)이다. 그들은 이미 영적인 눈으로 '중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가정교회 일치운동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는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중국 가정교회 사상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볼 수 있다.

## 3. 삼자교회 발전의 특색

95년부터 98년 사이에 삼자교회는 당의 종교

정책 지도하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를 모아 교회등록사업을 펼쳤다. 실로 적지 않은 가정교회들이 계속되는 벌금, 수색, 노동교화의 압력을 견딜 수 없어서 타협적으로 억지로 등록하여 교회내에서 집회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정교회는 아직 복음전파의 자유와 교회의 자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삼자교회 내부에서는 '애국, 애교를 잘 실천하자'는 원칙으로 호소하였고, 특히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신학원에서의 인재양성과 농촌사역 훈련반에 있어 삼자교회는 모두 성과를 거두었다. 96년 한원자오(韓文藻)가 제출한 네 가지 필수와 열 가지 임무사항에서 기독교는 정신문명 건설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사회의 윤리 도덕방면에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1) 종교외교의 통일전술 책략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삼자의 국제접촉의 종교 외교노선이다. 97년 중국(中共) 15대 인민대회 후, 장쩌민 정권이 확고해지자 '대국외교와 종교통일전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해외교류를 확대하여 종교박해의 자아상을 탈색시켰다. 외국 종교단체들의 중국 방문 접대가 2백여 차례 되고, 종교단체 방문단을 백여 차례 파견하여 종교의 자유가 개선된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라는 명목으로 가정교회를 규정하였고, '진리를 견지하며, 이단을 저지한다'고 내세워 국제적인 여론을 혼란시켰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대폭 개선하였고, 중국이 타도하는 것은 사교이지 결코 종교박해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97년 중국 국무원이 반포한 중국 인권백서에서 종교의 자유

를 공언하고, 중국 내에서 삼자교회만이 합법적이며, 이미 성공적으로 토착화 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종교 외교의 실제 움직임은 종교사무국장 예샤오원(葉小文) 등의 삼자교회 목회자와 신학원 교수 및 해외 종교단체나 학계, 교회 상호 간의 활동으로 이 기간 중에 현저한 성장을 보였다. 삼자의 신학원은 또한 홍콩, 대만, 외국의 유명 목사와 신학자를 초청하여 그 앞에서 설교하고 삼자교회를 참관시키고, 복음주의 인사들과 교류를 가졌다. 장쩌민은 심지어 종교계 인사인 께페이리(葛培里; 빌리 그레함 목사) 등과 접견하였고 클린턴 대통령에게 미국 종교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응답하였다. 주룽지(朱鎔基)도 공개적으로 종교는 정신문명에 일정한 공헌을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종교는 미신적인 행위라고 하던 것에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2) 성경과 종교서적의 인쇄

성경 인쇄면에서 보면, 난징(南京) 애덕(愛德)기금회에서 97년까지 모두 일 천여 만 권의 성경을 인쇄하였다. 98년 상하이(上海) 양회(兩會) 애덕기금(愛基)인쇄소도 준공되어, 양회에서는 대외적으로 중국 기독교인들의 성경은 이미 충분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외진 벽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3) 삼자의 대외적인 통일전술 공세

삼자의 통일전술 책략은 중국 사정을 잘 알지 못하던 많은 해외의 교회와 삼자가 합작하도록 이끌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해외의 교회가 가정교회와 연결하고자 하여도 객관적인 환경상 허락되지 않는다.

중국은 기독교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는가? 종교정책은 느슨해졌는가? 97년 12월 한



중국의 어느 삼자교회 예배당 모습.

원자오는 가정교회와 내왕하는 ‘양다리 정책’과 ‘비밀 침투’ 활동을 들어 미국 남침례회 해외선교부와 관계를 종결한다고 선언하였다. 중국은 종교자유가 있는가 또는 외국 교회가 중국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위의 사례에서 일반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95년에서 98년 사이 중국 정부측에서 전면적으로 ‘관리조례와 등기법’을 시행하고, 삼자교회는 엄연히 정통을 자처하며, 해외교류를 확대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가정교회는 신앙고백을 선포하여 정부의 명을 요청하고 「정부 종교정책 및 삼자에 대한 태도」를 정식으로 제출하였으니 중국 교회사상 중대한 사건인 셈이다.

가정교회는 핍박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합법화를 선언하고 있다. 가정교회의 어느 대표는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더욱 건디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당신은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가? 고난이 있는 그곳에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는 복음이 있나니!

# 삼은 높고 골은 깊으며 대지는 넓다

김요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 24)**

현재 중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와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위의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중국 교회는 여러 세기에 걸쳐 많은 교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 왔는데 신도 수와 교회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 1950년의 ‘중국기독교단체 조사록’의 통계를 보면, 모든 기독교 제 교회들을 합하여 773,862명, 목사 2,300명, 교회당 6,923개 정도에 불과 했다. 서양 선교사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20년대로 6,204명, 중국인 목사는 1,306명으로 제 교회의 세례교인 수는 402,539명, 교회는 4,727개소 정도였다. 1930년대부터는 중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고 반기독교 운동과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으로 1920년대 보다 서방 선교사의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시기에 중국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그 시기에 중국의 모든 교회들과 해외 교회들은 현재의 중국 교회의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1950년 공산화가 되고 ‘긴 겨울’이라고 부르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중국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는 해외 교회들의 염려와는 전혀 다르게, 중국 교회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좋은 밀알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 후 ‘봄’이라고 부르는 1978년의 개혁개방으로부터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중국 교회는 30배, 60배의 배가를 거쳐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긴 영적 겨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중국 가정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중국 교회는 어떻게 변화 받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중국 가정교회의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의 결실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 긴 영적 겨울을 겪고 난 후의 신앙의 변화로 첫째는 모든 신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인가? 사실 1930년대를 예로 들면, 그때 중국에 흉년이 들어서 서방 선교사들은 중국의 구제에 상당히 많은 힘을 쏟았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구제를 했지만 그때는 ‘밀가루 신자’도 많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서방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고 교육 사업도 서방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며, 중국인들은 그들을 도와주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편이 많았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일반 대중은 기독교를 양

교(洋教)라고 불렀다. 서양인들의 종교라는 것이다. 공산화되기 전의 중국 교회는 전국적인 규모로 자신의 소극적이고 연약한 신앙을 연단 받을 기회가 없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만큼 중국 교회는 연약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1950년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 교회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함이라” (벧전 1:7)는 말씀과 같이, 신앙의 연단의 시기가 전국적으로 한 명에게도 예외가 없이 다가왔다. 공산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서방 선교사들은 추방되었고, 중국 기독교는 공산당에 의해서 통일전선전술의 주요 대상이 되었으며,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성립을 기치로 교회는 회유와 강압에 의해 정부의 의도대로 조종, 개조되어 갔다. 점차적으로 교회는 통합되었으며 결국 교회는 문을 닫고 목사들은 성직을 버리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도록 강요되었으며, 대부분이 공산정부의 의도대로 개조되었다. 그러나 개조당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숙청의 대상이 되어 감옥으로 가야만 했다. 바야흐로 성직자에서부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투옥에서부터 입학 거부까지, 당할 수 있는 모든 핍박을 받아야 했다. 그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가는 일부 성직자들의 충성된 모습이 그 시기 교회의 청년 지도자들에게 충성된 지도자로서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것이 후일 그들이 중국 가정교회의 충성된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 9:23) 공산정부의 궁극적인 의도는 ‘공산주의 신앙’을 전파하고, ‘공산주의 신앙’을 가진 나라를 건립하는 데 대치되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도록 강요한 것이었지 건국에 비협조적인 대상

을 협조적으로 개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중국 기독교 신도들에게 자기 생명의 안전을 부인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킴으로써 오는 ‘핍박’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믿음의 주인인 예수가 인도하는 좁은 길을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선택에 서게 된 것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신앙을 부인하고 성직자가 세속인으로 개조되는 것을 보았으며,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성직자들이 비판을 받고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보았다. 또한 자신들도 모두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부터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인 예수를 따라 세상이 주는 넓은 길이 아닌, 예수님이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믿는 자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마땅하고 당연한 처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중국의 가정교회 신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아주 존경한다. 그들은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며 얼마나 고독한 길인지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 지를 모른다. 또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존경하고 따른다.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아주 싫어한다. 개혁개방이 되고 그동안 믿음에서 떠났던 자들이 돌아와 삼자교회 문을 다시 열고 설교를 시작할 때도 가정교회 신도들은 그들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재 중국의 삼자교회가 가진 불안정한 정체성의 근본 원인이다. 가정교회 교인들은, 긴 겨울 동안 믿음을 버리고 주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안전하고 이익이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 긴 겨울 동안 연단을 받고 모두에게 인정받은 정금 같은 신앙을 귀중히 여기며, 그 반석과 같은 정통성과 정금 같은 품질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바로 그 신앙이 현재 중국 가정교회의 믿음의 씨앗인 것이다.



청년들의 제자훈련에 열심인 중국의 한 가정교회

둘째는, 중국 가정교회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평신도 신학이 세워지고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중국에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교파가 들어와 있었고, 또한 그들의 신학교가 세워져 있었으며 여러 다양한 신학적인 풍토가 있었다. 1930년대를 시작으로 외국에 가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배워 온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중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를 기점으로 중국 교회의 자립을 중시하는 일부 선교사들과 중국 지식 청년들의 민족주의 운동에 반항하여 교회 자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중국인에 의한 기독교의 토착화 운동과 교회 자립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1950년 공산화가 되면서 공산정부에 의해 점차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던 중국 교회는 강제로 폐쇄당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예배당과 성직자들을 잃은 교인들은 할 수 있는 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주로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권면 하는 일들이 전문성직자들의 일이 아닌 내 자신의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성직자들이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는 동안 가정교회는 가족들을 위주로 각자 모두가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그 형편에 맞게 평신도들에 의한 사역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발전되었다.

중국의 평신도 신학의 특징은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며, 권면하고, 말씀을 인도하는 모든 것이 각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깊은 성경 지식보다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말씀에 따라 살면서 은혜 받은 삶을

증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신앙 생활의 모습이 되어 갔다. 실제로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셨고 각종 병고침과 말씀에 보증이 되어 주셨으며 초자연적인 많은 이적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생활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자 이들을 지켜 본 불신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가정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그러자 그들에게 먼저 믿고 복음을 전해준 자는 복음을 받은 자를 이끌어 주어야만 하는 책임과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그들은 자신에게 위탁된 양들을 겸손하게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은 더욱 기도와 말씀을 행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런 복음의 재생산이 전 중국 가정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 가면서 가정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성직자가 없는 가정교회의 질서나 성사는 소홀히 되거나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하고 해외의 교회가 의아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해외 교회보다 훨씬 질서가 있고 성사를 소중히 여긴다.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평신도들이라 보니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고 성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신도들에게 충분히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는 성사를 집행할 엄두를 못 낸다. 한 예를 보면, 50년대에 믿음과 지체들을 저버린 서북의 한 가정교회의 지도자는 80년

대에 이르러 믿음을 지킨 50년대 자신의 동료들이 출옥하여 가정교회를 이끌고 성사를 행하는 것을 보자, 자신도 모임을 만들고 성사를 집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국 가정교회의 성사에 친히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 한 예에 불과하다. 중국의 Z성 한 지방에서는 가정교회 지도자의 자녀가 이혼을 하면 그 아버지는 반년 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규칙이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중국의 가정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다.

셋째, 복음 때문에 유랑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장 중시하고 영접하는 좋은 관습이 있다. 5·4운동 이후로 중국에서는 반기독교 운동 혹은 민족주의적인 운동이 지식청년들 사이에 많이 유행했었지만, 중국인 신도들에 의해 여러 곳에서 자립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적으로 부흥했다. 또한 자립 교회들에 의한 내륙 지역 선교운동도 그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워치만 니에 의해서 작은 양무리 운동이 일어났고, 후에 이 운동은 중국 교회에 지역 교회로서의 개념을 세우는 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 왕밍따오(王明道)에 의해서 베이징(北京)의 지식 청년들 사이에 복음적인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으며, 후일 중국 가정교회가 복음적인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송상지에(宋尙節) 박사라는 분이 대학교 강단을 떠나 부흥 강사로 중국 여러 도시와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대형 부흥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산둥(山東)성에서는 예수 가정이라는 중국인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서 널리 알려졌고, 또 화북 신학교 젊은 졸업생들을 위주로 산둥성 위방에서 서북영 공단이라는 믿음 선교단체가 생겨나 중국인에 의한 내지 선교 운동을 일으켜 중국인들에 의해서 신장(新疆)성을 복음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미 1930년대에 내륙 선교 운동을 시작한 중국 가정교회의 교인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고, 문화혁명이 시작 되면서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자 핍박을 피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집

을 떠나는 길을 택했다. 그 결과 유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농촌과 내륙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가정교회들은 복음 때문에 집과 가정을 떠나 유랑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다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여비와 먹을 것을 준비해주는 관습이 생겼고, 유랑하는 전도인들은 머무는 곳의 필요에 따라 여러 날을 머물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좋은 관습이 되어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혁명 시기에 S성에서 핍박을 피해서 몇 가정이 동북의 J성의 소수민족이 사는 농촌 지역에서 유리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좋은 신앙 생활로 그곳 가정교회를 굳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개방 후에 그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한 자들이 되었다. 문화혁명 시기에 복음 때문에 유랑하던 한 젊은이는 복음을 듣지 못한 농촌 지역을 찾아 골라가서 남의 집 돼지우리를 쳐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후일 개방된 뒤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었다. Z성의 한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예인데, 개방 후 몇 년이 지나고 한 성도 가정이 자신이 운영하는 조그만 기계 부품 공장을 세우기 위해 동북에 이사를 가게 되자 그를 따라 여러 가정이 함께 그곳에 가고자 자원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그곳 가정교회는 한 명의 지도자도 빠짐없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게 하였다. 그것이 모체가 되어서 그들이 정착한 그 도시 부근의 농촌들이 복음을 받고 지금은 큰 부흥을 이루는 지역이 되었다. 동부의 작은 도시에 사는 분은 정형 외과 의사로 은퇴하게 되자 신장성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남, 북, 서부 신장 여러 곳에 가정교회들을 여러 해 동안 개척하고 그의 남은 생을 그 지역 선교사로 마감하였다.

\* 다음 호에 계속



굶기를 밥 먹듯이 해서 뼈만 앙상히 남은 탈북 여성

## 탈북 동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최근 들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탈북 동포들에게 관심이 기울이고 있는 듯 합니다. 동포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자님께서도 그들 중 한 분인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1995년 8월 대홍수 사건 이후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식량 배급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년 반 동안 적어도 3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식량난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기근이 심해지고 굶주림을 해결할 길이 없게 되자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의 국경도시로 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 동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으나, 10만 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북한 동포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중국의 단속과 통제는 그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탈북 동포가 많은 세관(海關)이나 마을 근처 초소에는 경비병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초소 간격도 50m 정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을 주제로』를 애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최근 소식과 중국 교회 상황, 중국선교 상황을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기회를 만들어 탈북 동포들을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 동포들에 대한 상황과 그들을 만날 때 보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좁아지는 등 국경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잠을 재우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 공안들도 예전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애써 잡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안 중에 조선족이 많았기 때문에 말썽만 없으면 묵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시로 상부에서 검거령이 떨어지고, 공안들에게 검거 할당량까지 내려오면서 경비가 삼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을 도와주다가 적발된 조선족은 1인당 5천 위안(한화 75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한국인인 경우 1만 위안(한화 150만원 정도)을 물어야 합니다. 벌금은 계속 해서 인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경지역 일대에서 탈북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단기선교여행을 기회로 탈북자들을 돕고자 원하는 한국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국경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탈북 동포들도 마땅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에 사는 동포들보다 접근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에 돕는 일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단기로 들어가서 탈북 동포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들을 만날 때 어떻게 보안에 주의해야 할지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국 변경지역 관리조례'를 숙지하여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중국 변경에서 사진촬영을 자제해야 합니다.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면 카메라를 압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

다. 중국에서 외국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가 걸리면 불법처리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탈북 동포를 만날 때 함께 동행한 택시 운전사나 현지인 가이드에게 충분한 보수 및 사례비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사례비에 불만을 느껴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비상연락망을 갖추어 신변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만약 중국 공안에게 적발되어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한국 언론이나 대사관에 알려 시정하도록 하거나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일곱째, 현지 사역자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은 가지고 다니지 말거나 아니면 암호화해야 합니다. 이 수첩을 빼앗기면 현지 사역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중국에서 종교행위를 하거나 탈북 동포를 돕는 것은 중국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보안에 신경을 기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홉째, 탈북 동포를 도울 때 자신이 전면에서 나서지 말고 조선족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열째, 조선족 교회나 특별한 장소에서 양육 받고 있는 탈북 동포를 만날 경우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돕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당 사역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아우쫘록 탈북 동포를 돕는 일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히길 기도합니다.

# 이스라엘에서의 중국인 선교

권수영



이스라엘과 중국의 수교 이후 매년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건축노동을 위해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다(사진은 중국인 근로자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중국과 이스라엘,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두 나라.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전국적으로 5천여 명의 중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전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고토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을 위한 주거지를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고, 주택 건축을 위해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1992년 이스라엘과 중국의 수교 이후 중국에서도 매년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건축노동을 위해 이스라엘로 송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 대학에는 석·박사 이상의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이공계 전공자이며 국비 장학생이다. 이처럼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약 5천여 명, 예루살렘에 5백~7백여 명의 중국인들이 살고 있다.

### 고된 노동, 외로움, 향수...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은 동북삼성(東北三省), 산둥(山東), 장쑤(江蘇),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안후이(安徽), 쓰촨(四川) 등 중국 각지에서 왔다. 주택, 고층빌딩, 쇼핑센터 등의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중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기능직 노동자들이지만, 비교적 높은 학력을 가진 통역, 노무관리, 엔지니어, 설계기사 등도 있다.

이스라엘에서 이들의 생활은 무척 단순하면서도 고되다. 보통 새벽 5시에 기상하여, 6시나 7시부터 노동을 시작한다.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30분의 짧은 점심식사를 마치면 쉴 틈도 없이 다시 작업이 시작된다. 견딜 수 없이 뜨거운 사막의 기후를 견디며 해질 때까지 매일 10시간 이상 작업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과도한 피로로 몸을 가누기 힘들다. 개조한 컨테이너나 좁은 창고, 혹은 완공되지 않은 빌딩에서 더위와 모기에 시달리며 잠을 자야 하는 이들의 생활 여건은 중국 내보다도 더욱 열악하다.

작업 이외의 생활은 단조롭기 그지없다. 히브리어, 영어, 아랍어가 공용어인 이스라엘에서 중국인들이 겪는 언어소통의 곤란은 큰 장벽과도 같다. 1년 이상 있다보면 간단한 히브리어로 기본적인 의사 전달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건을 사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숙소가 대부분 시내에서 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유일한 문화매체라고 할 수 있는 현지 텔레비전 방송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으니, 퇴근 후에는 도박, 술, 담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 이들은 고향에 부모와 처자식을 남겨 두

고 먼 타국에 와서 고된 노동과 낮은 환경에서의 외로움, 향수를 달래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도 이들처럼 외국에 나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란 중국인들에게겐 하늘의 별따기이다. 절호의 취업기회를 잡기 위해 수속비 명목으로 3, 4만 위안(元, 한국 돈 420만 원~560만 원)을 들여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큰 빚을 졌다고 한다. 가족들에 대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빚도 갚고 목돈도 마련해야겠기에 2년 간의 고되고 힘든 생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 부드러운 마음 발의 중국인들

이스라엘의 중국인들은 복음에 대해 매우 열려있다.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스라엘까지 온 이들이다. 농촌이나 국영기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 600위안 이상 벌 수 없던 것에 비하면, 2년 간 일해 7천~8천 달러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사실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개혁개방을 맞은 오늘날의 중국인들은 물질추구에 모든 것을 건 '상첸칸(向錢看: 돈만 보고 나아가는) 세대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는 느낄 새도 없이 살아왔다. 기독교에 대해 접할 기회도 전혀 없었고,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이들은 이스라엘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다. 기독교의 모태이자 성지(聖地)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는 호기심 때문이라도 근로자들은 교회를 찾는다. 고된 노동으로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치고, 생활이 무미건조하다고 느낄 때쯤, 중국인들은 비로소 자기 심령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게 된다. 교회의 예배나 사역자들의 막사 방문을 통해 복음을 들은 후, 자신의 심령의 공허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으나, 신앙기초가 그리 깊지 못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며, 영적으로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 말 그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진리를 사모하는 이들은, 사역자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인다. 성경과 소책자, 간증, 찬양 테이프 등 각종 복음 문서자료를 서로 가져가려고 아우성이다. 본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잘 보관해두었다가 나중에 귀국해서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이다.

### 이스라엘에서 드러지는 중국인 예배

현재 사역자들에 의해 중국인 집회가 운영되는 곳은 이스라엘 전역에 4~5군데이다. 어떤 곳은 교회 형태로, 또 어떤 곳은 작은 단체 형식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예루살렘에는 대만, 유럽, 홍콩, 한국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약 90여 명의 중국인들이 매주 모이는 중국인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예루살렘 주변 6개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로 모여 2시간 반에 걸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평일 저녁에는 사역자들이 중국인들이 숙식하고 있는 건축막사를 심방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찬양, 기도, 말씀, 비디오 상영, 소책자 배포 등). 예루살렘에 중국인 사역이 시작된 이래로 약 100여 명이상이 세례를 받고 귀국하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중국인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

다.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브엘세바에서도 중국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홍해 연해의 도시 에일랏에는 호스텔을 운영하는 미국인 평신도 사역자 부부에 의해 중국, 태국, 러시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역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호스텔로 데리고 와 정원에서 노천집회를 열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이를 '정자그늘(涼亭)교회'라고 부른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는 않지만 존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인은 중국인들에 대해 각별한 전도의 열심을 갖고 있다. 매달 한 두 차례씩 차를 몰고 각 공사장과 노동자 숙사를 돌면서 성경이나 전도지를 배포한다. 이외에도 두 세 군데 중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화교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중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안식일에 식당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며 복음을 전하는 중국인 평신도 사역자도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중국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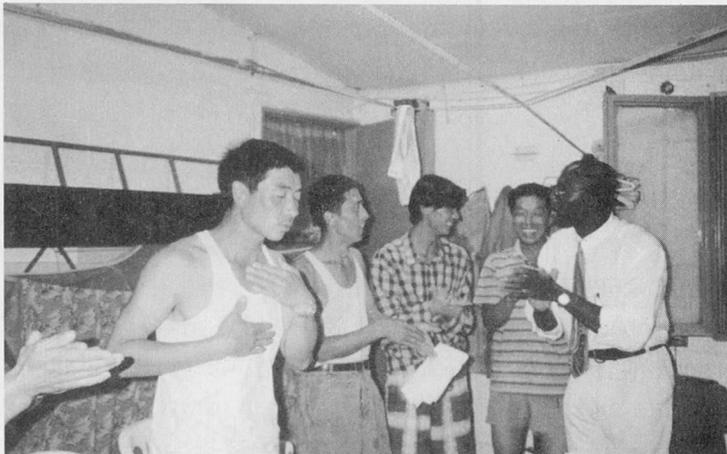
자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역자가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일하는 이들 중 이전에 복음을 들었었거나 다른 지역 교회를 다니다가 옮겨온 이들은, 자신들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싶다면 사역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997년도부터 이스라엘 중국인 사역이 동남아 화교 교회에 알려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의 화교 교회에서 단기선교팀(2, 3주)을 보내거나 6개월, 1년 정도 사역할 단기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중국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 사역자는 한 명뿐이다. 이스라엘의 중국인들은 먼 외국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화교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같은 아시아계인 한국인 사역자들을 더욱 반갑게 환영한다. 언어와

문화, 기후 모든 면에서 낯선 땅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2년 계약의 형식으로 이스라엘에 온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그중 극히 소수만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더군다나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중국인 사역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중국인들에게 허락된 이스라엘에서의 2년은 역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한 기회이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할 뿐 아니라, 최대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킴으로 이들이 귀국할 때 견고한 믿음 위에 서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사역자가 중국인 근로자들이 기거하고 있는 막사를 방문하여 함께 찬양하고 있다.

▶ 이스라엘에서 보내는 춘제(春節; 설날)



## 열린지역 선교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사역은 중국선교에 있어서 열린 지역을 통한 닫힌 지역으로의 선교이며, 현재의 준비를 통한 미래의 사역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귀국할 때 본국에서 지도자가 되거나, 중·상류층을 이루게 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 왔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선교전략이다. 또한 중국선교 헌신자들이 열린 지역에 투입되어 실제 사역의 경험을 할 수 있어 장차 닫힌 지역으로의 선교를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으로 중국인들을 보내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중국인을 돕는 것은 중국선교의 책임을 감당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복음과 진리에 갈급해하는 이스라엘 중국 근로자들의 상황은 홍콩, 동남아, 미국 등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광대하고 좋은 추수터이다.

### ※ 이스라엘 중국인 사역에 참여할 일꾼을 찾습니다.

열린 지역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일꾼이 필요합니다. 중국어로 메시지 선포와 성경공부 인도가 가능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안식년을 맞는 중국선교사, 제3국 중국선교에 비전이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중국어문선교회 선교국

이스라엘 사역 담당자(02-594-8038)

참고자료

『傳』, 1997년 7/8월호 “以色列의中國勞工”, 鐘漢光

『書傳』, 1999년 2월호 “以色列短宣行”, 葉華忠

## 외국 유학생 총 4만 3천명

한국은 1만명 ... 일본 이어 2위

### 중국내 유학생 현황

중국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홍콩 불포함)의 339개 대학들이 전세계 164개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외국인 유학생은 4만3천84명, 그 중 장기유학생이 2만9천346명, 단기유학생(6개월 이내)이 1만3천738명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유학생이 다소 감소한 반면 유럽, 북미 및 아프리카 유학생이 크게 증가했다.

주별로는 아시아가 여전히 1위로 3만1천90명(전체 유학생의 72.16%), 유럽이 5천160명(11.98%), 미주가4천688명(10.88%), 아프리카가 1천395명(3.24%), 대양주가 751명(1.74%) 등이다.

국가별 통계로는 일본,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및 독일 유학생이 각각 1만4천524명, 1만8명, 3천832명, 1천770명 및 898명으로 선두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유학생이 500명을 초과하는 국가로는 프랑스 783명, 베트남 686명, 러시아 651명, 호주 595명 등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준을 보면 지난해 중국에 와서 학력교육을 받은 외국 학생은 1만1천362명으로 전체 장기유학생의 38.72%를 차지했다.

박사과정은 전년대비 20.74%가 증가한 850명, 석사과정은 전년대비 9.1%증가한 1천907명으로 집계됐다.



## 특집/ 중국 소수민족 선교는 어떻게?

우리는 이제껏 중국선교를 이야기 하면서, 중국내 55개 소수민족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누누히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소수민족 지역에서 사역할 사역자가 부족하다고 외치고 있다. 한편 한국 교회 안에서는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비전은 갖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선교지와 본국에서의 이같은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수민족 선교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야 한다.

2000년대를 눈앞에 둔 지금, 한국교회가 소수민족 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헌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제는 말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이는 선교를 기대해 본다.

# 중국 소수민족 얼마나 알고 있나?

## 중국 소수민족(55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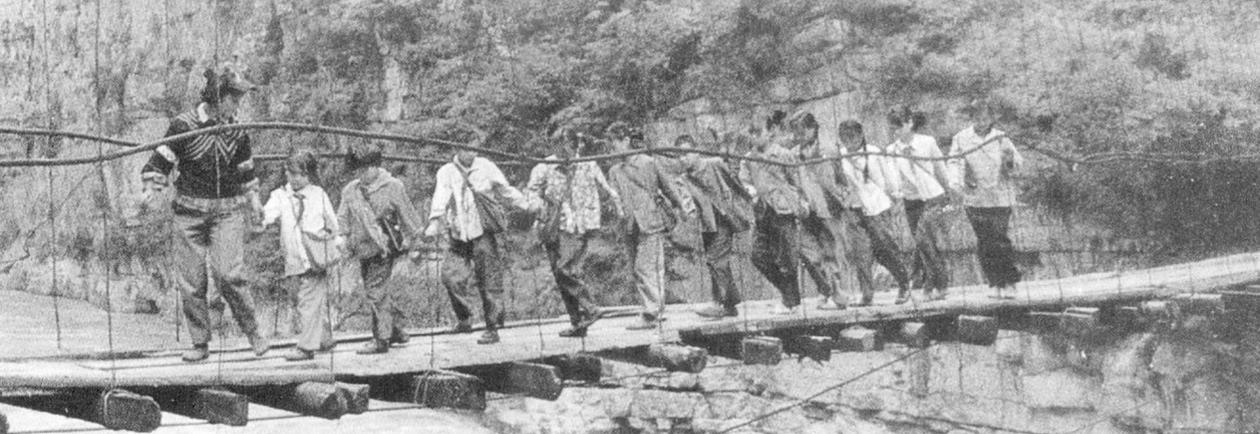
서	민족	인구(1992년)	분포	종교	언어	성경번역	복음상황
1	장족(壯族)	15,555,820	廣西,雲南,廣東, 貴州 및 全國各地	다신숭배, 자연숭배	14종의 언어를 사용, 문자는 없음	번역중	19세기 중엽 천주교가 들어왔고, 이미 복음방송이 들어왔음 (극동방송).
2	만족(滿族)	9,846,776	遼寧,吉林,黑龍江, 河北,北京市,內蒙古	사마니즘, 한장 불교의 혼합종교	만족문자, 한문	한문성경	1929년 동북 대부흥기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됨.
3	후이족(回族)	8,612,001	寧夏,甘肅,新疆,雲南, 河北,山東,安徽,河南, 北京,內蒙古,黑龍江, 天津,吉林,陝西	이슬람교 수니파	한문, 아라비아문, 페르시아어	한문성경	내지회 선교사들이 사역했었음. 1992년 복음방송이 시작됨 (극동방송).
4	마오족(苗族)	7,383,622	貴州,雲南,湖南,廣西, 四川,廣東	귀신숭배, 자연숭배	50종의 방언 사용, 마오문(苗文)	마오문(신약) 성경, 찬양집	현지교회에 마오족 신도가 있음.
5	위구르족 (維吾爾族)	7,207,024	新疆,湖南	이슬람교 수니파 와 의선파	위구르문	위구르문 성경	91년 복음방송이 시작됨 (극동방송).
6	이족(彝族)	6,578,524	四川,雲南,貴州,廣西	자연숭배	이문(彝文), 100여종의 방언	이문 (신약) 성경	운남 현지교회에 이족신도가 있고, 귀주성에 10만 명의 신도가 있음. 기타지역은 불분명.
7	투족(土家族)	5,725,049	湖南,湖北,四川	자연숭배, 투왕(土王)숭배	투자어, 문자 없음	투자어, 문자 없음	19세기말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었음. 신도수는 많지 않음.
8	몽구족(蒙古族)	4,802,407	內蒙古,遼寧,吉林,新疆,青海,河北,黑龍江, 河南,甘肅	라미교	몽문(蒙文)	몽문성경(수정이 필요함)	복음방송이 있음. 현지교회에 몽구족 신도가 있음.
9	짱족 (藏族-티베트인)	4,593,072	西藏,四川,青海,甘肅, 雲南	라미교	장문(藏文)	장문 (신약) 성경(번역 필요함)	감숙성 일대에 200명의 신도가 있고, 현재 약 400명의 신도가 있음. 90년 11월 복음방송이 시작됨 (극동방송).
10	부이족(布依族)	2,548,294	貴州	귀신숭배	한문, 본족 문자는 없음	한문성경	19세기 중엽 천주교가 들어옴. 신도가 3만여 명에 이르렀었지만 현재는 소수만 남아있음.
11	둥족(侗族)	2,508,624	貴州,廣西,湖南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음	둥족어		90년 복음방송이 시작됨 (극동방송).
12	야오족(瑤族)	1,402,676	廣西,湖南,廣東,雲南	귀신숭배, 자연숭배	3종의 방언 사용, 그중 1종의 문자를 만듦	야오문 신약 성경	1949년 이전에 선교사가 사역을 했었음.
13	조선족(朝鮮族)	1,923,361	吉林,黑龍江,遼寧	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종교	조선문	조선문 성경 및 찬송가	19세기말 조선족 지역에 선교가 이루어짐, 복음방송이 있음.
14	바이족(白族)	1,598,052	주로 雲南에 거주	불교, 귀신숭배, 원시종교	문자 없음	번역중	19세기말 따리(大理)에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었음. 내지회가 사역했었으나 사역의 효과는 크지 않음.
15	하니족(哈尼族)	1,254,800	雲南	다신숭배	문자 없음	일부 번역	40년대에 선교사역이 전개됨.
16	카자흐족 (哈薩克族)	1,110,758	新疆,青海,甘肅	이슬람교	아라비아 문자의 하나	번역중	복음방송 있음(트렌스 월드 라디오-복방선교방송).
17	리족(黎族)	112,498	海南	자연숭배	한문 및 리족어문	한문성경	선교사역 했었음.
18	다이족(傣族)	1,025,402	雲南	소승불교	문자 없음	신약성경	1920년대 선교사역 했었음.

순서	민족	인구(1992년)	분포	종교	언어	성경번역	복음상황
19	씨족(畚族)	634,700	福建,浙江,江西,廣東,安徽 등 5성의 산악 지역	다신숭배	문자 없음		절강성에 2,000명의 신도가 있음.
20	리쑤족(僂僂族)	574,589	雲南,四川	귀신숭배	리쑤문자	리쑤문 성경 및 찬송가	현지에 약 1,300개소의 교회가 있고, 리쑤족 신도가 있음.
21	거라오족(仡佬族)	438,192	貴州,廣西,雲南	자연숭배	거라오문	거라오문 해설판	천주교 신도가 있음.
22	라꾸족(拉祜族)	411,545	雲南	자연숭배	흑라꾸문 및 방언	흑라꾸문 신약성경	20세기초 미얀마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옴.
23	둥샹족(東鄉族)	373,669	甘肅,新疆	이슬람교 수니파	문자 없음		선교기록 없음.
24	외족(佯族)	351,980	雲南	만물에 영과 영혼이 있으며 죽지 않는다고 믿음	외문(佯文)	일부 번역	1907년 선교사가 미얀마에서 들어와 선교사역, 문자창제, 교회건립 등을 하였음.
25	수이족(水族)	347,116	貴州,廣西	다신숭배, 귀신숭배		번역 시작, 성경해설판	1884년 프랑스의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왔었고, 5,000명의 신도가 있었으나 현재 신도수는 불분명함.
26	나시족(納西族)	277,750	雲南,四川,西藏	동파교, 라마교			1912년 네덜란드 선교사가 리강에 들어와 선교하였는데, 소수가 예수를 믿었음.
27	창족(羌族)	198,303	四川	다신숭배			19~20세기초 선교사역을 했었음. 현재 소수만 예수를 믿음.
28	투족(土族)	192,568	青海,甘肅	라마교	장문(藏文)에 근거한 몽고어에 가까움		선교사역 했었고, 소수의 신도가 있음.
29	시보족(錫伯族)	172,832	新疆,黑龍江,遼寧,吉林	사머니즘, 다신숭배	만문(滿文), 한문	한문성경	선교사역 없었음.
30	무리오족(仡佬族)	160,648	廣西	불교, 도교, 귀신 숭배	둥어(侗語)에 가깝다. 문자는 없음		약 1,600명의 신도가 있음.
31	키르키즈족(柯爾克孜族)	143,537	新疆,黑龍江	이슬람교, 라마교, 사머니즘	일종의 개혁된 아라비아 문자	번역중	선교사역은 없었으나 복음방송은 이미 시작됨(트랜스 월드 라디오-북방선교방송).
32	다워얼족(達斡爾族)	121,463	內蒙古,黑龍江,新疆	사머니즘			소수의 신도가 있음.
33	징포족(景頗族)	119,276	雲南	귀신숭배, 만물에 영이 있다고 믿음, 이슬람교	징포문과 외문(文)을 쓴다	징포문 성경(수정필요), 제2대 방언으로 외문을 쓴다.	20세기초 미얀마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했다. 현재 약 5만 명의 신도가 있음. 천주교 세력이 크다.
34	사라족(撒拉族)	87,546	青海,甘肅	소승불교, 자연숭배	위구르문	위구르문 성경	선교사역이 있었으나, 사역의 효과는 없음.
35	부랑족(布朗族)	82,398	雲南	다신숭배	부랑문	번역중	선교사역이 있었고, 아주 적은 수의 신도가 있음.
36	마오난족(毛南族)	72,370	廣西	이슬람교	마오난어, 문자는 없음		선교사역이 있었고, 약 3,000명의 신도가 있음.
37	타지크족(塔吉克族)	33,223	新疆	라마교, 자연숭배	위구르문, 문자는 없음	위구르문 성경	선교기록 없음.
38	푸미족(普米族)	29,721	雲南,四川	귀신숭배			선교기록 없음.
39	아창족(阿昌族)	27,718	雲南	원시종교, 라마교	아창문	아창문 신약 성경	50여 명의 신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

## 특집/ 중국 소수민족 선교는 어떻게?

순서	민족	인구(1992년)	분포	종교	언어	성경번역	복음상황
40	누족(怒族)	27,190	雲南	원시종교, 라마교	누족문	누족문 신약 성경	선교사역이 있었음. 신도는 100여 명에서 1,000명 안팎일 것으로 추측.
41	어윈커족(鄂溫克族)	26,379	內蒙古, 黑龍江	사머니즘			100명의 동정교(東正教) 신도가 있음.
42	징족(京族)	18,749	廣西	도교 중의 정일파	한문, 광동어	한문성경	소수의 천주교 신도가 있음.
43	지늬족(基諾族)	18,022	雲南	자연숭배, 만물에 영이 있다고 믿음			선교기록 없음.
44	더양족(德昂族)	15,461	雲南	소승불교			선교사역이 있었으나, 신도는 극소수
45	우즈베크족(烏孜別克族)	14,763	新疆	이슬람교	슬라브문, 아라비아문	번역중	복음방송이 있음(트랜스 월드 라디오 북방선교방송), 약 50명의 신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
46	러시아족(俄羅斯族)	13,500	新疆, 內蒙古, 黑龍江	동정교	러시아어문(俄文)	러시아어문 성경이 부분적으로 번역됨	소수신도가 있음.
47	위구족(裕固族)	12,293	甘肅, 新疆	라마교	몽고어의 일종, 터키어의 일종		선교기록 없음.
48	바오안족(保安族)	11,683	甘肅	이슬람교			선교기록 없음.
49	먼바족(門巴族)	7,498	西藏	라마교, 원시종교	장문(藏文)	장문 성경	선교기록 없음.
50	어룬춘족(鄂倫春族)	7,004	內蒙古, 黑龍江	사머니즘			선교기록 없음.
51	두롱족(獨龍族)	5,825	雲南	자연숭배	문자 없음	선교사가 창립한 문자로 번역중	1935년 선교사역이 있었음. 신도는 1,450~5,000명으로 추측.
52	타타르족(塔塔爾族)	5,064	新疆	이슬람교	카자흐어, 위구르어	위구르문 성경	선교사역을 했었고, 극소수의 신도가 있음.
53	허저족(赫哲族)	4,254	黑龍江	사머니즘	문자 없음		선교사역 없었음.
54	까오산족(高山族)	2,877	(台灣), 福建	귀신숭배	아이족문, 고산족문	대만 고산족문 성경 있음	대륙에 극소수의 신도가 있고, 대만에 3,000명으로 신도수는 전 족속 인구의 80%에 달한다. 대만 고산족이 대륙에 들어가 동족 선교를 함.
55	뤄바족(珞巴族)	2,322	西藏	귀신숭배	장문(藏文)	장문 성경	선교기록 없음.

편집부 제공





# 중국 미전도종족입양 선교 현황

조명순



4대가 모인 아오족(瑶族) 가족.

한국미전도종족운동본부(Korea Center for Adopt-A-People, 이하 AAP)가 설립되어 미전도종족입양운동이 시작된 지 6년째에 접어든다. 그 동안 이 시대에 남은 과업인 미전도종족 선교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알리고 운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제 '미전도종족'이라는 단어는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된 것을 느낄 수 있다. 미전도종족 선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복음을 들어야 할 종족이 있는 한 그들을 향해 선교의 방향이 모아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성을 믿고,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의 선교 대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미전도종족입양 선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미전도종족입양운동의 현황 지역 교회가 미전도종족을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 연합적으로 제시된 것이 미전도종족입양운동(Adopt-A-People)이다. AAP운동은 남아 있는 미전도종족을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간, 그리고 선교사와의 연합 전선으로 제시된 '운동'으로 지역 교회로 하여금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1993년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가 설립된 이래 AAP운동이 지역 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4년 10월 혜성교회(예장합동)와 수원형제침례교회(기독교침례)가 각각 한 종족을 입양한 이래 99

년 6월 말 현재 31교회가 참여하여, 총 27개국 61개 종족이 입양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3개국, 16종족), 인도차이나(5개국, 15개 종족), 동아시아(3개국 9개 종족), 중앙아시아(7개국, 9개 종족), 서아시아(4개국, 4개 종족), 중동(1개국, 3개 종족), 아프리카(3개국, 3개 종족), 중남미(1개국, 2개 종족)등 총 8지역 61개 종족이다.

미전도종족입양운동이 갖는 밑그림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서로 힘을 합쳐(연합) 분담하여 효과적으로 복음화를 이루어 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전세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 그들 안에 자생적인 교회가 없어서 자민족을 복음화 시킬 여력이 미미한 지역 안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 교회로 하여금 미전도종족을 향해 선교를 해 나가도록 하는가에 있다. 이렇게 가시화된 목표를 향해 미전도종족입양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1995년 GCOWE '95 서울대회 이후에 연합전선으로 제창된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 운동에 기인한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전 세계적인 전략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함께 지닌 지역 교회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세계 각 나라들에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협동 전략이다. 이것은 마28:19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려는 전략으로 모든 종족들 가운데서 개척 교회 설립 운동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다. 먼저 전세계의 우선적으로 복음화 되어야 할 종족들 특히 10/40창문 지역의 90%, 22억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1,700개의 종족 리스트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이것은 '서기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교회와 단체, 교단을 동원하는 종족입양 전략이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우리 모두에게 가시화된 선교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세계의 미전도종족을 리스트화해서 우선적으로 복음화 운동이 시작되도록 격려하였다.

이 리스트는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들 각자가 조사한 리스트를 종합하여 '가시화된 공동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교회 개척이 필요한 종족을 뽑은 것이다. 기준으로 삼은 것은 첫째 기독교 인구 5% 미만이면서 인구 10,000명 이상인 그룹을 리스트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전도종족 리스트

##### 전체종족수 - 1,739 (97년 6월 현재),

전체 인구: 22억4백12만252명

교회개척 사역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종족: 579개

성경의 전체나 부분이 번역되어 있는 종족: 399개

라디오 사역이 진행 중인 종족: 549개

오디오(복음 음반) 사역이 가능한 종족: 1,062개

예수 필름이 번역된 종족: 797개

##### 지역별/나라별 종족 수: 1,739개

아프리카: 415개, 아랍세계: 248개, 중앙아시아:

209개, 동유럽: 22개, 유라시아: 59개

라틴아메리카: 32개, 북아메리카: 10개, 동북 아

시아: 95개, 남아시아: 260개

동남아시아: 320개, 남태평양: 7개, 서유럽: 62개

이러한 연합적인 전략을 통해 중북 투자를 피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 각국이 중점 전담 지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분담' 하도록 하였는데, 한국이 우선적으로 담당하기로 한 지역으로는 문화적 유사성과 지리적인 조건들



을 감안하였다. 즉, 우랄알타이권(터키에서 시작하여 …스탄, …스탄하는 지역들과 몽골)과 한자 문화권(중국, 인도차이나 반도, 일본),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권이다. 물론 타 지역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10/40창문지역 우선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 AAP는 이 지역의 미전도종족을 중심으로 하여 'Adoption 200'이라는 명칭으로 '한국 교회 우선입양종족'을 선정하였다. 기준은 '여호수아프로젝트 2000'에 들어 있으면서, 인구 10만 명 이상, 10/40창문지역 우선으로 166개 종족을 뽑았다. 166개 종족 이외의 종족의 입양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우선적으로 166개 종족을 지역 교회에 소개하면서, 166개 종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리서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중국 내 미전도종족입양 현황

중국 내의 미전도종족에 대한 구분은 중국을 선교하는 사람마다 약간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AAP운동본부에서는 '연합'한다는 의미로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미전도종족을 우선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상기한 대로 한국이 집중적으로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지역 안에 중국이 들어 있다. 중국은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의 주요 선교 대상국이다 (문상철, 1999). 그런 점에서 중국 선교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과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한국 기독교계가 관심을 갖고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열어가 는 시기에 있어, 그 동안의 중국 선교를 여러 면에서 점검하고, 옷차림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현재 개방화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변화하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중국 선교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우리들

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중국이 한국 선교의 주요 대상국인 만큼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퉁이돌선 교회에서 발행하는 '카타콤소식' (통권 73호, 1996년 9월호)에 게재된 자료를 인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700명이다. 그 중에서 64%에 해당하는 450명이 지린(吉林)성에서, 21%에 해당하는 150명이 라오닝(遼寧)성에서, 그리고 14%에 해당하는 100명이 베이징(北京)/텐진(天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 1%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린성, 야오닝성, 베이징/텐진 등의 이 지역은 동북삼성 지역으로 조선족과 한국인이 쉽게 접근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번쯤은 중국 선교에 있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 안에는 아직도 외국인의 거주 자체가 어려운 지역도 있고, 외국인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지역이 있다. 그러나 12억이라는 인구가 다 동북삼성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닐진대, 이러한 편중화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다는 것도 중국 선교에 있어 선교적인 과제라고 본다.

시장경제 체제의 변화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중국의 복음 전파의 적기는 '지금'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중국 선교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미전도종족입양 선교는 그 하나의 제시되는 전략으로 중국에 관심을 갖는 지역 교회로 하여금 중국 땅에 있는 복음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기도를 쌓게 하는 힘이 있다. 집중적인 중북투자 현상을 바

꾸기 위해서도 미전도종족입양 선교는 필요하다.

중국을 대표적인 55개의 소수 종족으로 구분되어 있음은 중국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종, 언어학적으로 구분하면서, 또한 '교회개척'에 이르는 단위로 구분해서 들어가면, 실제로 중국 땅에는 많은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다. 랄프윈터 박사는 900개의 미전도종족 그룹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AP운동본부는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리스트를 중점으로 우선적으로 입양하도록 지역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서 제시된 중국의 미전도종족은 89개 종족이다. 대부분이 중부와 중서부지역, 그리고 중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55개의 소수 종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뽑은 한국교회 우선입양종족 리스트에는 28개 종족이 해당된다. 이 중에서 지역 교회가 입양하여 기도를 쌓아 가고 있는 12종족 이외는 아직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 12종족 이외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소수 미전도종족이 입양되어 지역 교회가 선교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기도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종족까지 포함하면, 중국에서는 14종족이 입양되었다(99년 6월 현재).

중국의 미전도종족 입양에는 단체와 국내 교회, 그리고 외국 교회도 참여하여 서로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고 있다(표 참조: 한국 교회 우선입양종족표-중국지역).



#### 맺음말

'중국'이라는 거대한 선교지, 세계 인구의 1/4에 해당되는 거대한 땅 중국을 한 선교단체가 전부, 한 지역 교회가 전부 담당하는 것은 어렵다. 한족 내에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있다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소수 미전도종족들에게도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다양하게 선교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한 많은 종족들이 중국 내에 있다. 이제 그들을 향해 지역 교회를 움직여야 한다.

AAP운동은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는 어린 나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자라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날, 계시록 7장 9절의 꿈을 이루며 중국에 있는 미전도종족들과 함께, 구원하심이 어린양에 있음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교회 우선입양종족 - 중국 지역 28 종족

번호	나라명	종족문(영문)	종족명(한글)	인구	입양 교회
1	중국	Amdo	암도	856,700	
2	중국	Atuence	아투엔처	590,000	
3	중국	Bai (Pai, Minchina)	바이	1,594,827	
4	중국	Buyei (Bouyei, Buyi, Puyi)	부이	2,545,000	부산수영로교회
5	중국	Dai (Yunnanese Shan)	다이	1,025,128	여교역자위원회
6	중국	Dai Lu	다이	770,000	
7	중국	Dongxiang	둥샹	374,000	
8	중국	Hani, Ho-Nhi	하니	1,253,952	온누리교회
9	중국	Hui (Dungan, Tunya)	후이	9,277,412	예수전도단(YWAM)
10	중국	Iu Mein	위 메인	200,000	
11	중국	Kazakh	카자흐	1,198,844	
12	중국	Kirghiz	키르키즈	152,698	
13	중국	Li (Paoting)	리	1,197,989	
14	중국	Manchu (Man)	만추 (만)	10,591,177	
15	중국	Molao (Mulao, Mulam)	무라오	171,770	
16	중국	Mongolian	네이명구	5,183,663	여교역자위원회
17	중국	Nakhi (Na-Hsi, Moso)	나시	279,000	기독교 21C
18	중국	Qiang	창	198,252	
19	중국	She	써	679,744	
20	중국	Shui (Sui)	수이	373,126	
21	중국	Tibetan	티벳 (짱)	4,593,330	외국교회
22	중국	Tu (Monguor, Tu-jen)	투 (몽구얼)	206,613	
23	중국	Tujia (Tuchia)	투자	6,151,443	
24	중국	Uighr (Kashgar)	위구르	7,780,018	온누리/사랑의교회/YWAM
25	중국	Yao (Highland Yao, Mien)	야오 (미엔)	2,301,351	부천중동교회
26	중국	Yi, Central	중부 이	6,572,173	외국교회
27	중국	Yi, Northern (Lolo, Nosu)	북부 이 (롤로, 노수)	4,800,000	
28	중국	Zhuang (Chuang, Chwang)	창	16,703,987	외국교회

조명순/ 선교사,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총무

# 미전도종족 선교는 소수민족 선교인가?

석은혜

## 국가단위 선교에서 종족단위 선교로

최근 들어 세계 선교는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을 향하여 그 열기가 집중되어가고 있다. 국가단위 중심의 선교에서 종족단위 선교로 선교전략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세계 선교는 미전도종족 중심의 선교 보다는 도널드 맥가브란(D. McGavran)을 비롯한 교회성장학파들이 주장하는 '추수이론'에 따른 선교전략을 따라왔다. 그들은 전 세계의 선교지를 수용성(receptivity)에 따라서 구분하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지역을 '추수지역'이라 칭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적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을 '비추수지역'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선교사는 비추수지역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추수지역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성령께서 예비해 놓은 추수지역 선교를 간과함으로써 인해 그 지역이 또 다시 비추수지역화 되어 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전략의 맹점은 추수지역에만 집중하여 미전도종족 즉, 비추수지역 선교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

로운 선교전략으로 미전도종족 선교 즉, 비추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한국 교회에서도 미전도종족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여, 밀레니엄 시대를 앞둔 지금 그 열기는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 미전도종족 선교의 열기는 중국 선교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이 중국 소수민족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에 이르렀다. 중국 선교사들 중 중국 변방지역의 소수민족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중국의 한 선교사는 이제 중국 선교사들이 "미전도종족 선교가 아니라 미전도지역 선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과연 미전도종족 선교는 소수민족 선교와 동일한 것인가? 필자는 본 고에서 미전도종족 선교가 무엇인지, 미전도종족 선교는 곧 소수민족 선교인지를 살펴보고, 중국 선교를 위해 바람직한 선교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미전도종족 선교란?

국가단위 선교에서 종족단위 선교로 전향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28:19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24:14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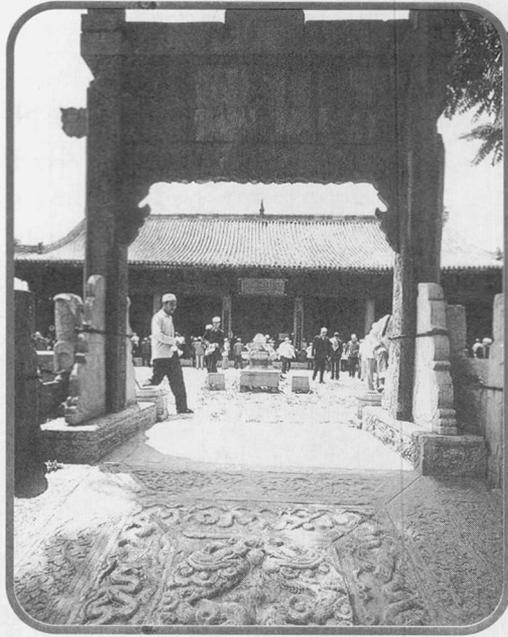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창세기 12:2, 3과 계시록 7:9, 누가복음 24:47 등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단위를 ‘족속’, ‘민족’ 등으로 칭하고 있다.

‘종족’에 대한 관심은 1974년 로잔세계선교대회에서 미국 세계선교센터의 원장인 랄프 윈터(R. Winter) 박사가 이 주제에 대해 주제강연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1980년에 열린 에딘버러 대회에서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이란 구호를 외치면서 미전도종족 선교에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89년 로잔II 선교대회에서는 종족 중심의 선교가 국가단위 선교보다 더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랄프 윈터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전세계를 국가가 아닌 종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2만 4천 종족이 있고, 그 중 1만 2천여 개의 종족, 즉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미전도종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족을 미전도종족이라고 하는가? 미전도종족이란 ‘타문화권(선교사)의 도움없이 스스로가 자신의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교회)가 없는 집단’을 말한다.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각 종족당 기독교인이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종족의 범위에 넣는다.

1만 2천 개의 미전도종족설을 제시한 랄프 윈터 박사는 각 종교별로 미전도종족의 대략적인 숫자를 제시하였지만, 그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미전도종족을 보는 관점과 기준의 차이로 미전도종족의 현황에 대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랄프 윈터는 우리가 미전도종족인 ‘감추어진 종족(Hidden People Group)’을 향한 선교를 소홀



중국의 이슬람 사원인 칭진쓰(清真寺).

히 하고 추수지역에만 집중했을 때, 주님의 재림과 세계복음화에 커다란 차질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전도종족 선교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제 미전도종족 선교는 중요한 선교 전략의 하나로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중국의 미전도종족은 얼마나?

랄프 윈터 박사가 주장한 1만 2천 개의 미전도종족은 다음과 같이 종교별로 나눌 수 있다. 무슬림 종족이 4천, 부족으로 이루어진 종족이 3천, 힌두교 종족이 2천, 중국의 종족이 1천, 불교 종족이 1천, 기타 종족이 1천 개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것은 그가 중국의 미전도종족 수를 1천 종족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미전도종족 수 역시 미전도종족을 보는 관점과 분류 기준의 차이에 따라 각 선교단체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는 중국의 종족수를 169개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미전도종족임양운동본부(AAP) 정보교환소는 225개 종족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여호수아 프로젝트

는 중국의 우선 전도해야 할 미전도종족 수를 89개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한 연구자는 중국의 소수민족 그룹을 308개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AAP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미전도종족에는 소수민족 외에, 한족도 주요 방언 집단을 기준으로 10개의 종족으로 나누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한족을 합하여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55개 소수민족을 분류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며, 정확한 민족 수로 보기는 어렵다. 한 소수민족 안에 여러 개의 다른 민족이 포함될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랄프 윈터는 중국의 미전도종족을 1,000개라고 주장하였지만 그가 미전도종족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발표한 적은 없다. 그가 실제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튼 그가 중국의 미전도종족을 1천 개로 주장한 것은 미전도종족을 구분한 기준이 단순히 인종언어학적인 기준만을 사용한 '종족(People)'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직업, 계급, 주거지 등 사회학적 기준을 이용한 것으로 '종족 집단(People Group)'적인 분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종족'과 '종족 집단'에 대한 차이는 무엇인가?

'종족(People)'이란 문화가 유사하고 동일한 언어를 가진 커다란 인종언어학적 집단의 사람들을 말한다. 이 종족은 다시 다양한 '종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족 집단(People Group)'이란 "언어, 종교, 인종, 주거, 직업, 계급 혹은 계층, 처지 등이나 혹은 이것들이 종합된 그 어떤 것을 공유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상호간에 공통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된 상당히 큰 집단"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

하는 관점에서 보면, 종족집단이란 "문화, 언어, 지리 등으로 인한 이해나 수용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랄프 윈터가 주장한 중국의 미전도종족은 사회학적인 분류로 중국의 소수민족을 가르는 것이 아니며, 종족 이름 역시 중국 소수민족 이름과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더 많다.

### 중국내 미전도종족 사역 대상은?

중국의 13억 인구 중 크리스천이 약 8천만 명에서 1억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기독교율이 7-8%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을 가진 나라로 꽤 복음화가 진행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상당 부분 몇몇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족집단의 개념으로 볼 때 매우 많은 미전도종족이 있는 나라이다.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저장(浙江)성, 허난(河南)성, 안후이(安徽)성, 푸젠(福建)성, 장쑤(江蘇)성, 산둥(山東)성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믿는 이들도 주로 한족이다. 또한 소수민족 중에는 조선(朝鮮)족, 리쑤(傈僳)족, 마오(苗)족, 징포(景頗)족, 이(彝)족, 두룽(獨龍)족 등 55개 민족 중 일부 소수민족에게만 기독교 신자가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한족 내 많은 집단과 소수민족 중 다수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종족이라는 것과, 모든 소수민족이 다 미전도종족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선교를 하는 한국 선교사들 중 1/3은 동북삼성에, 1/3은 수도를 중심으로, 나머지 1/3은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1/3 중 다수가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어떤 선



교사에 의하면, 최근 소수민족 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미전도종족 선교의 바람을 타고 소수민족 선교를 하기 위해 몰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전도종족 선교 열기로 말미암아 중국 선교에 있어서 소수민족 사역 이외의 사역은 경시되는 풍조를 만들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 의견에 대해 소수민족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수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현재 소수민족 지역(조선족 지역은 제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는 전체 중국 선교사의 10% 정도인데 그것은 비울적으로 결코 많은 수가 아니며, 그 가운데서도 정작 소수민족 선교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소수민족은 전체 중국인의 8%이다. 소수민족 선교를 하려면 중국어 외에 해당 소수민족 언어도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이 깊은 오지나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 지역에 들어가 생활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렇지만 선교사가 어떤 특정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소수민족을 쉽게 접근할수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하는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균형있는 선교방법을 동원하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전도종족 선교는 소수민족 선교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중국선교 후보자가 중국에 있는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굳이 소수민족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족들 가운데도 많은 미전도종족 집단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중국 내륙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그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없거나 있어도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겠다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선교하거나 위구르족, 회족, 티벳족 등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는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라고 권하고 싶다.

현재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는 미전도종족 선교로 가고 있다. 그러나 추수지역을 위한 선교와 미전도종족 선교가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교회성장학적 선교 전략만 주장해서도 안되고, 또 반대로 미전도종족 선교만 주장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추수지역 선교를 방치하고 미전도종족 선교만 한다면 추수지역이 곧 미전도종족 집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수지역도 우리가 선교 해야 하며, 미전도종족 선교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국 선교에 있어서도 한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도 해야하고,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도 해야 한다. 또한 한족 가운데 있는 많은 미전도종족집단 선교도 해야하고, 이미 믿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학교육이나 지도자로 양육하는 사역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양한 사역을 하되, 어떤 특정지역에 선교사들이 집중되어 있기 보다는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흩어져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 (참고문헌)

- \* 한수아, "중국의 미전도종족 선교 그 도전과 대응", 『미전도종족선교저널』, 1997, 여름호
- \* 이현모, 『미전도종족선교의 성경적 고찰』, 『미전도종족선교저널』, 1997, 여름호
- \* 이요섭, "중국 도시선교의 제 문제와 방향 -미전도종족에서 미전도 지역으로", 『중국교회와 선교』, 제6호
- \* 전D랍 저, 문상철 역, 『초점-종족집단별 접근 전략』, 한국해외선교출판부
- \* 최후의 개척자들을 위한 선교정 탐원현 표준강의안, AAP

# 중국 소수민족 신학교육 현황

류애화(柳愛華)



있을 만큼 교회가 부흥한 민족이 얼마나 있는냐고 묻는다면 마땅히 대답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개혁개방 후, 한족을 포함하여 소수민족들이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허락된 지도 얼마 되지 않기에, 지금은 교회의 큰 발전을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의 신학교육은 복음전파의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어느 한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제자양육이 이루어지며,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서 헌신된 일꾼들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발전의 과정이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 과정을 생각할 때 중국 안에서 과연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민족은 얼마나 있을까?

사실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 중에는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복음을 일찍 접한 민족들도 있다. 그러나 비록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100년이 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중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리된 신학을 공부할 수

기대할 수 없는 시기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중국으로 온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한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펼치기 때문에 한족의 교회발전 속도와 소수민족의 교회발전 속도는 차이가 크다. 그리고 소수민족과 소수민족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온 이들도 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소수민족 선교를 하려면 마땅히 해당 민족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소수민족 언어를 배우려고 하기 보다는, 한어로만 사역하기 때문에 동일한 교사가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도 배우는 사람들의 진보는 차이가 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민족들의 신학교육



현황을 다룬다는 것은 어찌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부분을 알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 만큼, 소수민족의 신학교육과 함께 성경을 배우는 과정들을 모두 다루는 것으로 하겠다.

현재 소수민족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학 교육과 성경을 가르치는 과정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떤 과정은 공개되면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밝혀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과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다루지 않는 교육과정도 대략 비슷하기 때문에 소개되는 내용만으로도 소수민족의 현황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윈난(雲南)기독교신학원

윈난기독교신학교는 중국 종교국과 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인된 신학교육기관 중에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3년 과정 신학교이다. G목사가 교장이며, 윈난 지역의 목사들이 주로 교사가 되어 가르쳤으나, 몇 년 전 운영권 다툼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지금은 다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휴교 기간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많이 모집되지는 않고 있다. 또 주도권 쟁탈에서 밀린 목사들이 교사로 강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여러 면에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소수민족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이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학교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 학교를 방문했던 한족 형제 자매들도 이러한 점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학교는 쿤밍(昆明)시의 북서쪽 외곽에 위치

해 있으며 건물이 잘 지어져 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은 운영권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이곳에서 배웠던 학생들이 지금은 여러 소수민족 지역에서 목회자로 또는 성경학교 교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 ● 리쑤족(傈僳族)

중국의 소수민족 중 기독교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으로 성경을 배우는 일에도 가장 앞장 서고 있다. 리쑤족이 성경을 배울수 있는 학교는 현재 네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 푸퉁(福貢)

리쑤족 교회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이곳은, 『이소벨쿤의 자서전』을 통해 한국의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은 이소벨 쿤 선교사의 활동 시기부터 성경공부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소벨쿤의 자서전』에 보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험난한 산을 넘어 교육장소인 푸퉁의 교회를 찾아왔던 리쑤족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가 있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과 자세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 시기에 그들이 주로 배웠던 것은 성경이며,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야 하느냐 하는 목회학과 교회음악, 가정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했다. 지금도 성경을 주로 배우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약간의 과목들과 조직신학개론 등을 다루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도 전문적인 교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성경을 배우는 것 외에 기타 등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4부로 노래하는 합창을 배우기도 하는데, 이들의 노래 솜씨는 아마도 중국의 소수민족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언제든지 찬양 인도자가 앞에



서 4부의 음을 잡고 노래를 시작하면 대중찬 양을 할 때도 4부로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

공부하는 시기는 1월부터 3월까지 1년에 한 번이며, 합숙하며 공부한다. 학생들은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먹고 생활하는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뚜렷한 학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왔던 학생이 그 다음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학생들도 몇 번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 위치적으로 누족(怒族)과 두룡족(獨龍族)이 참여하기에 좋아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의 누족과 두룡족이 리쑤족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 \* 리우쿠(六庫)

리우쿠는 리쑤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 중심지로써, 리쑤족 전 지역의 교회를 관할하는 양회(兩會)가 있다. 이 양회가 앞장서서 성경학교를 세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리쑤족 외에도 누족과 두룡족, 뤼바족(珞巴族·바이족의 한 지파) 등도 함께 배운다. 고정적인 교사로 는 2명의 노모사와 젊은 교사 1명이 있다. 젊은 교사는 한어(리쑤족 젊은이들 중에는 학교

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어로 된 참고서적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학교에서 한어를 배워야만 한다)와 성경 등을 가르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배우기도 한다.

100명이 넘는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교회 예배실에서 함께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함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누족과 두룡족, 뤼바족은 리쑤어를 배워야만 하기에 리쑤족 학생보다 공부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

공부하는 시기는 농한기인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전 학생이 합숙하며 학년의 구분없이 공부한다. 이 학교를 포함한 모든 리쑤족 성경학교가 학생들이 학비는 부담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비만 책임을 지는 형태이지만, 학교마다 요구하는 금액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 \* 퉁촨(隴川)

현재 리쑤족을 위해 개설되어 있는 성경학교 중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라고 본다. 이 학교에서는 리쑤족은 물론 징포족(景頗族)과 한족,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 쟁족(藏族·티벳족)도 함께 공부하고 있다.

이 학교의 시작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르다. 학교를 시작한 사람은 미얀마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리쑤족 목사이다. 이 목사는 신학을 공부한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중국 내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얀마와 인접해 있는 리쑤족 마을로 와서 전도하며 각 지역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필요에 의해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리쑤족 동역자와 결혼하여 함께 섬기고 있는데, 부인은 쿤밍의 윈난기독신학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섬기던 사역자이다.



학제는 4년 과정으로, 1년에 6개월씩(10월 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합숙으로 공부한다. 이 학교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되어 밤 11시에 마치며, 하루에 두끼 식사만을 한다. 기도로 하루가 시작되어 오전 강의가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 후에 한 과목의 강의를 있고, 강의가 끝나면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두 노동에 참여한다. 이 때의 노동은 밭에 나가서 함께 먹을 양식을 농사짓는 것이다. 노동 시간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다른 여러 학교 중 이 학교가 공부하는 시간은 가장 길지만 생활비는 가장 적게 낸다. 노동 후에 저녁을 먹고 강의를 들으며, 강의 후에는 자습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잠자리에 든다.

장족은 한족과 함께 한 반을 이루어 배우고, 징포족과 리쑤족은 각각 반을 달리하여 자기 민족언어로 배운다. 리쑤족 교사와 징포족 교사가 따로 있어서 가르치는데, 두 민족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교사는 두 반을 모두 가르치기도 한다.

#### \* 잉장(盈江)

이 학교에는 리쑤족과 징포족 두 반이 있다.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교사가 많이 있는 학교로써, 그 중에 M교사는 미얀마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젊은 교사이다. 이곳은 교사의 수가 많다는 장점 이외에도, 리쑤족과 징포족 교사가 모두 준비되어 두 민족이 반을 나누어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 학년도 구분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교실도 충분하여 반을 나누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공부하는 시기는 1월부터 3월까지로, 학교의 운영은 다른 지역의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의 4개 학교는 서로 필요에 의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자 자기 민족 복음화와 이웃 민족 섬기기를 잘 하고 있다.

#### ◎ 마오족(苗族), 이족(彝族)

이 두 민족들은 리쑤족만큼 활발하게 교육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정해진 교사가 반복적으로 이들 지역을 방문해서 가르치는 반과 교사가 준비될 때에만 공부를 하는 반이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부를 하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 \* 우멍(武定)

주로 우멍(武定)을 비롯하여 교회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성경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족이 함께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족도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외에는 한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적다.

#### \* 싸잉판(撒營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운영이 잘 되었던 이 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로써 교실이 10개 정도, 기숙사도 2층으로 잘 지어진 학교이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외국 선교사들이 하나 둘씩 추방을 당하면서 문을 닫았다. 최근에는 한 달 내지 두 달씩 공부하는 과정이 열리고는 있지만, 역시 교사 부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이 두 민족의 성과와 신학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언어가 가능한 교회 지도자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집중적으로 양육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깊이있는 내용보다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폭넓은 대상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자신들 민족의 문자로 성과와 성

경 외의 기독교 서적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적들도 번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교육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한 것이기에 여러 가지 신앙서적과 신학서적들의 번역사역도 요구된다.

● 조선족(朝鮮族)

신학교육과 성경공부에 있어서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조선족의 신학교육기관으로는 선양(沈陽)에 있는 동북신학교를 비롯해서 종교국과 삼자가 관할하는 학교와 또 다른 모습으로 감추어진 지하 신학교가 많은데, 감추어진 학교는 통계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선족의 학교는 교육 내용도 매우 다양하여, 제자훈련에서부터 신학의 각종 과목들이 강의되고 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국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목회현장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이다.

● 징포족(景頗族), 다이족(傣族)

이 두 민족은 자신들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징포족의 경우, 리수족에 있는 성경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징포족은 이미 교회가 꽤 부흥한 민족이고, 다이족은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으나 이 민족들만을 위해서 준비된 학교는 없다. 간헐적으로 며칠씩, 길게는 1~2주 동안 일반 신자 교육 등이 그것도 한어로만 실시되고 있다. 이들만을 위한 전문적인 성경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외에도 복음이 전해진 민족들에게 약간씩의 교육들이 펼쳐지고 있으나, 신학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제자양육 차원이고, 극히 적은 수가 훈련되고 있어 각 민족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태이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받고있는 신학교육의 혜택은 너무도 미미해 신학교육이라고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필자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사역자들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다. 첫째는 소수민족들을 섬기고자 하는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미전도족속만을 위해 준비하고 사역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민족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비거주 사역자들로, 섬기려는 대상 중심의 사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자기 중심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교대상 민족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한어만 사용하며, 그 민족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 전해주는 태도 등이다.

소수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사역자들은 이제 미전도족속만이 아닌, 이미 교회가 세워진 민족들도 섬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그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성경교육과 신학교육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현장 사역자 외에 한국의 기도 동역자들도 이 문제를 위해 함께 무릎꿇는 시간이 많아야 하리라 생각되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싶다.



# 중국 소수민족 선교방법

김중하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먼저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갈 때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 미리 계획되지 않으면, 이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아닌 것 같을 때 저 방법으로 바꾸고, 또 저 방법도 별로 좋은 효과가 없는 것 같을 때 다시 이 방법으로 돌아오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선 계획되고 준비된 방법을 필요로 한다.

어떤 지역 어떤 민족을 선교의 대상으로 하든간에, 변하지 않는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지역과 민족마다 같을 수 없다. 어떤 한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전략)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성공을 거둔다는 법칙은 없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비슷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범위와 그 안에서도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대상들로 범위를 좁혀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선교의 걸음마 단계를 넘어서서 당당하게 세계선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때, 선교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필자가 새삼스럽게 선교의 방법을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직접 선교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기보다는 필자의 생각을 나눔으로서, 소수민족 지역으로 나아가 그 지역의 민족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려하는 동역자들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필자는 선교에 있어서 '전략'(전략이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는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군대운용의 방책으로 승리와 정복을 위한 것을 말한다)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교는 영적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해야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렇지만 선교가 한편으로는 전쟁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상민족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전투적인 용어인 전략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전략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한다면 국가는 독립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속국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속국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신앙적 속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선교국이 선교국의 신앙적 속국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각 민족마다 독특한 문화와 사회배경에 맞는 선교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진은 쓰촨성의 한 소수민족 마을).

선교사가 피선교지에서 왕처럼 높임을 받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방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기는 했지만, 일찍부터 많은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이 결정하고 사용해왔던 '전략'이라는 용어를 짧은 생각으로 '방법'이라는 용어로 바꾸자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단지 이 글의 성격상 '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뿐이다.

### 중국이라는 배경을 고려해야

중국은 우리 한국보다 100여 년 먼저(경교(景教)부터 계산하면 더 빠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은 중간에 그들이 겪어온 험난한 역사에서 기인할 것이다.

물론 1949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교회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중국의 교회가 경험한 가장 커다란 고난은 공산당으로 인한 박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문화대혁명 시기에 와서 교회

는 완전히 없어질 위기를 맞기도 했다. 문화대혁명 시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신앙과 사상의 수난기이기도 했다. 이 엄청난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족과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왔던 소수민족의 교회들이 외견상으로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문을 닫은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것이다. 비록 외부의 박해는 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해 왔다.

중국이 근래에 와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위해 외견상 종교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종교에 대한 정책일 것이다. 그것은 중국 정치와 사상의 중심인 공산당이 무신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민족 선교라고 할지라도 중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점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신의 역할만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소수민족 자치정책을 펼치고 하여 성장(省長), 현장(縣長), 향장(鄉長)들을 소수민족 중에서 세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직책인 각 성과 현, 향의 당 서기는 한족이 맡는다. 이는 소수민족의 모든 것이 중국의 법과 정책 아래 움직여져야 하고,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들을 상대로 하는 모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소수민족 선교를 할 때에도 중국이라는 배경을 꼭 기억해야 한다. 단지 열정만 앞서서 일을 하다보면 차질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자. ○의료선교팀이 단기로 X지역에 가서 의료사역을 할 때였다. 필자로부터 들은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



음을 전하려고 애쓴 사역자들이 있었다. 사역을 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으나 그들이 돌아간 후 그 팀을 안내했던 중국 측 안내자가 문책인사를 당했다. 그들은 한국 측 안내자였던 필자도 찾았으나, 다행히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필자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런 일을 볼 때 자신의 열정에 사로잡혀 제한된 사역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등을 고려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지만, 각 지역과 민족마다 그 진리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민족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중국 소수민족들은 크게 회교권, 불교권, 샤머니즘 등으로 종교권이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민족의 문화와 특징들을 구분하기 전에, 여러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를 살펴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북지역에서 중앙 쪽으로는 회교권, 시짱(티벳)에서 네이멍구(內蒙古)로 이어지는 지역은 라마불교권이다. 서남지역은 여러 종교가 혼합된 샤머니즘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동북지역은 조선족과 만족을 제외하고는 샤머니즘이 주된 종교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이 고려된 후에 구체적인 각 민족마다의 문화와 언어 등이 참고되어 이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각기 다른 모습과 성격을 주신 것처럼, 각 민족들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갖게 하셨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언어의 그룹을 나누신 이후, 새로운 언어와 문화권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더욱 세분 발전

되어 왔다. 이 사실은 우리가 각 민족의 차이를 인정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똑같은 진리를 전해도, 대상이 대학생일 때와 어린이일 때 그들에게 전하는 용어와 방법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른 민족이라면 이를 마땅히 참고하여야만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 민족의 문화와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윈난(雲南)성 에 사는 바이족(白族)에게는 '사랑' 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주셨다고 말한다 해도 그들에게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복음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게 할 것인가?

외족은 가장 존경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물소인데, 이는 물소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귀찮게 하지 않고 유익만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민족이 농경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민족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물소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큰 도움을 주고 더 이로운 대상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대상을 발견한다면 이들은 숭배의 대상을 물소에서 새로운 대상으로 바꿀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해를 비치게 하시고 비를 주셔서 모든 생물들이 잘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한다면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예로도 우리는 연

구사역의 필요를 알 수 있다. 어떤 미전도족 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부담을 가졌다면 먼저 그 민족에 대해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지역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그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 사역이 우선되지 않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준비할 수 없다.

이 연구 사역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사보다는 사회학이나 인류학, 문화학, 민속학 등을 공부한 헌신자가 필요하다. 이런 사역자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일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민족에 대한 필요한 연구를 마치면 또 다른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등 계속해서 필요한 민족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전문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사역은 소수민족 선교의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사귀게 되면, 다음 사역자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될 때 이미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을 소개하여 그 민족 사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선교 정보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민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자료화 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 연구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들을 상대로 펼쳐왔던 기본적인 선교의 방법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보기도, 연구, 미전도족속 입양, 교회개척, 성경번역, 문맹퇴치(교육), 의료, 농촌개발 등의 사역은 어느 민족을 상대로 하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할 때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따로 이야기 해보기로 한다.

### 의료 사역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 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이다. 중국은 의료수준 자체도 그리 발전하지 못했지만, 특히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는 기본적인 의료혜택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도 의료 사역을 통해 복음의 길을 열고,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몇 가지의 예를 보면, Y지역에 단기 의료선교팀이 와서 사역을 하던 중에 현지 보건소 직원이 의료선교팀의 아름다운 봉사를 보고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이다. 하루는 이 직원이, “어떻게 우리도 싫어하는 환자들의 더러운 부분을 일일이 만져주고 또 오는 사람마다 손을 잡고 반갑게 맞아서 치료해주는가? 더구나 돈을 버는 일도 아닌데...” 라고 질문을 해왔다. 이때 사역자들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려고 왔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 물론 전혀 긴장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혹시나 이들이 유도심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는 염려에 불과했다. 이튿날 그 직원이 사역자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으면 안되는가?”라고 진지한 모습으로 물어왔다. 사역자들 중에 훈련된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리없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Z지역에서 의료선교팀이 사역을 잘하고 돌아간 뒤에 그 지역에서 매우



좋은 평을 얻었다. 필자는 의료사역 후 몇 달이 지난 뒤에 훈련된 중국인 동역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했다. 이때 만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의사가 왔다고 하며 우리를 크게 환영했다. 이런 환영은 의료선교팀이 사역을 잘 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환영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조심스럽게 전도했다. 두려움과 염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결과 3일 동안 한 지역에서 40여 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다.

의료사역의 좋은 예는 이보다 더욱 많지만, 나타난 결과들로만 보아도 의료사역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의료사역에만 온 힘을 기울여 그들에게 좋은 의료팀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농촌개발 사역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대부분이 농촌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낙후되어 있다. 때문에 농촌개발을 위해 그 지역에 가려한다면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 안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직접 농민들을 자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마련되리라고 본다.

### 선교자원으로서 한족 동원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한족 크리스천들이 이미 소수민족을 향해서 많은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한족과 소수민족 사이의 민족감정으로 인한 벽은 무척이나 크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어느 민족은 자기들과 관계가 있는 사역자

가 한족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한족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수민족을 끌어 안으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소수민족을 이야기할 때 야만인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족 스스로 소수민족의 선교를 담당하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교사들 간의 동역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교사가 한족을 상대로 사역을 잘해서 양육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에게 그냥 소수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한다면 위의 두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선교사들 간의 동역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A선교사가 양육한 사역자들을 B선교사가 사역하는 소수민족들에게 보내어 함께 사역을 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 안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언어 그룹으로 나누자면 그보다 몇 배나 되는 수의 영혼들이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위한 사역자를 모두 외국으로부터만 채우려 한다면 언제나 가능할 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족이 동원된다면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선교는 한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 복음이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우선 넘어야 할 부분이 중국 내의 소수민족이다. 한족이 전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데 우선적인 대상이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이기에, 중국 소수민족 사역에 있어서 한족 동원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소수민족을 상대로 하여 무슨 사역을 하든지, 중국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김중하/ 중국 소수민족 선교사, 본지 편집위원

# 중국 소수민족 복음화 현황

참석자: 왕 유(중국 선교사)

진행: 석은혜(선교사/본지 편집장)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회의실

일시: 1999년 7월 2일

중국에는 55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민족들이 얼마나, 어떻게 복음화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55개 소수민족 중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져서 자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은 일반적으로 6개 민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조선족, 리쑤족, 마오족, 이족, 징포족, 두룽족입니다.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음화 비율을 살펴보면, 리쑤족은 70% 이상 복음화 되었고, 마오족과 이족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지역은 97~98%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어떤 지역은 0%의 복음화율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같은 민족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수민족 전체의 복음화율을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쑤족, 이족, 징포족의 복음화율은 최소한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족의 복음

화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룽족은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고, 샤머니즘적 요소가 강하며 리쑤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은 리쑤족, 마오족, 징포족, 이족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족, 하니족, 라후족, 다이족 등은 한족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으며 예배 중 한어(중국어)를 사용하거나 민족 언어로 동시통역하기도 합니다. 다이족의 경우, 자신들의 민족 교회를 세운 지역이 있으며 장로가 세워지는 등 지도자도 존재합니다. 누족은 리쑤어로 드리는 리쑤족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누족은 생존을 위해 많은 부분을 리쑤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들 민족의 대부분은 공산당 집권 이전에



활동했던 서양 선교사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리쑤족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교사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리쑤족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먀오족 역시 선교사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자신들의 선교 역사를 말합니다. 이족과 먀오족이 함께 공부하는 성경학교 역시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반면 다이족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복음을 접하여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복음화된 소수민족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같은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현재 가장 활발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민족은 리쑤족과 다이족입니다. 리쑤족은 두롱족, 징포족, 누족과 같은 타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리쑤족은 이들 세 민족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 면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이족 역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기독교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기 전, 선교사들이 다이족 문자로 신약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지만, 선교사가 철수하고 나서 신자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도시에 나갔다가 복음을 듣거나, 다이족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의해 복음을 접하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두 민족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문화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족의 경우,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문화나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먀오족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



원난성의 하니족 소녀들.

에 먼 거리를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이들 민족은 장애를 뛰어넘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화된 소수민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보통 한족(중국인)들은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소수민족 대부분은 주일 낮, 저녁, 수요일 저녁에 모두 집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교회가 열려있어서 특별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이 저녁에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달리 즐길만한 문화나 오락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녁마다 모여 찬양으로 시간을 보내다보니, 먀오족의 찬양 솜씨는 인근에 소문이 나서 한족 교

회에 초청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잦아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공연행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 조금 염려가 됩니다. 리쑤족 역시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지역을 방문하여 리쑤족 교회의 수요 저녁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30여 명이 모였는데, 성가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4부 화음으로 나누어 리쑤어로 찬양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소수민족들은 한국의 찬양곡을 선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 민족 고유의 곡조로 만들어진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률이 높은 소수민족에게는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의 문맹률이 높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문자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민족에게도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민족의 문자는 모르지만 이웃 민족의 문자는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문자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읽기는



“...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소수민족은 문맹률이 높다고 하던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요? 샤머니즘적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맹률이 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요소가 있는데, 문맹

읽어도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이 전해지려면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라쑈족과 징포족은 신, 구약이 번역되었고 마오족, 이족, 다이족은 신약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니족, 라후족, 외족은 일부만이 번역되어 있고, 누족은 라쑈족의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 신앙요소를 갖고 있는 이유는 높은 문맹률을 탓도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줄 지도자가 없는 이유도 크다고 봅니다.

**소수민족 내에 목사안수를 받은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삼자교회를 통해 안수 받은 목사가 있지만, 극히 소수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목사 한 사람이 200여 개의 교회를 돌보고 있어, 목사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의 경우, 평신도 중에서 신앙연륜이 비교적 높은 사람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학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한족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소수민족 신학교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공부합니다.

**소수민족 교회도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소수민족 내에서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를 구분하기란 어렵습니다. 한족처럼 종교국 관할이 아니라 소수민족 종교로 처리하기 때문에, 삼자에 등록은 시키지만 삼자의 간섭은 그리 많이 받지 않습니다. 반(半)삼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물론 삼자에 등록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삼자에 등록한다고 해도 별 간섭은 받지 않지만, 당이 세운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 삼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소수민족 젊은이들에 대한 복음화율은 높은**

**반면, 나이든 분이나 노인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도 있고, 노년층의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교회에 주일 예배만 있는 곳은 노년층이 많고, 평상시에 교회 안에 교제와 찬양의 분위기가 있는 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청년부라고 이름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젊은이들이 저녁에 교회에 모여 한쪽에서는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는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양과 위생교육, 성경공부 등 말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신분노출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로부터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은 현지인이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수민족 선교에 있어서 한족을 통해서 선교할 때의 장, 단점과 한국인이 직접 선교할 때의 장, 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한족이 소수민족 선교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족과 소수민족 간에 존재하는 민족 감정입니다.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사역할 때, 선교사가 한족과 관계된 것을 알면 위구르 신자들이 그 선교사와 관계를 끊을 정도입니다. 한족 스스로도 민족우월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반면 한족이 소수민족 선교를 할 경우의 장점은 외국인보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이 소수민족에게 접근할 때, 그들처럼 소수민족인 조선족과 혈통이 같다는 점은 그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언어와 문화와 교통의 불편함을



함께 노래부르며 즐거워하는 마오족 처녀들.

극복하고 그들에게 갈 수만 있다면 환영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와주러 왔다', '가르쳐주러 왔다'는 등의 접근 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언어와 문화입니다. 소수민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와 소수민족 언어를 모두 습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지역의 낙후된 사회와 문화는, 자신이 살던 곳의 문화적 혜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조금하게 열매를 기대하는 요구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성급하게 열매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교사 자신도 조금하게 사역하다보면 대상 소수민족을 이해하기도 전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한국 교회가 빠른 열매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선교사 자신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재정 후원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사역하고 조금하게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어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소수민족 언어 구사만으로는 사실상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중국어를 반드시 구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어와 소수민족 언어, 두 가지를 모두 습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학과 문화인류학 등을 공부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점점 많은 단기선교팀들이 중국의 소수 민족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수 민족 선교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는 개방된 지역과 미개방 지역이 있는데 이에 따라 선교전략이 세워져야 합니다. 개방된 지역에서는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만, 미개방된 지역에서는 신분을 감춰야 하고 전도의 열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단기선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도 역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게 될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짧은 언어나 전도지 하나 주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은 그 민족을 위한 전체 선교전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민족을 향한 전체적인 전략을 생각하고,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복음화 되지 않은 소수민족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티베트의 짱족입니다. 그들이 믿는 라마 불교는 신앙이라기 보다 그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교권에 속해 있는 민족으로서 주로 서북쪽에 있는 위구르족, 회족, 어원커크족 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구가 극히 적은 민족으로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아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민족들입니다. 지뉘족, 어룬춘족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한국에서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보

기도, 단기선교를 통한 민족 리서치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소개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수민족 선교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족 선교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도자 양육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역자가 그 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소수민족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민족을 향해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가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의 일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야만 그 민족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고, 교회개척도 할 수 있고, 성경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는 것→연구, 조사→교회개척→성경번역→지도자 양육의 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 소수민족 지역에 사역자가 너무 많이 몰려있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멍구, 신장, 시짱(티벳), 윈난, 쓰촨, 구이저우, 광시, 동북 등을 소수민족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역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윈난과 쓰촨을 합쳐서 40가정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사역자들 모두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윈난성의 65%는 한족이며, 쓰촨성 인구의 대부분도 한족이기 때문입니다.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사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중국 소수민족 선교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정리/박선경 · 자원봉사자

# “내가 믿고 또 일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어느 가정교회 지도자의 어머니

왕쓰웨이

## 가정교회 최고 지도자들의 특성

허 형제의 가정교회 계파가 포함된 R지역 내 총 네 개의 큰 가정교회 계파의 지도자들과 식사시간, 또 휴식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다. 이들 큰 가정교회 계파의 최고 지도자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특징과 카리스마를 지녔다. 허 형제는 총명하고 구변(口辯)이 뛰어났고, 말수가 적은 린(林) 형제는 조직력과 사람 관리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장 아이(張阿姨)라는 50대 후반의 자매는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지도력과 사랑이 많은 여장부였으며, 호리호리한 쑨(孫) 형제는 항상 입가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강조하면서 기도로 삶을 일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R지역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시고 계셨으며, 이제 이들은 타 지역, 타 성(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 사이에 아직도 서로를 견제하며 상호간에 작은 갈등과 불신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연합적으로 지도자훈련을 개최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 지도자들은 차이점보다는 일치점을 찾는 데 더 노력하고 있었다. 이 또한

중국인들의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공동의 목적을 위해 차이점들을 유보하는 소위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이었다.

## 불속 찾아오신 허 형제의 어머니

어느 날 오후, 내가 묵고 있는 숙소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노크 없이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더니 “왕 선생님, 안녕하세요. 과일 좀 드세요.”라고 말하며 들어왔다. 그녀는 가방에서 비닐로 포장된 감귤을 꺼내면서 의자에 앉았다. 백발을 곱게 빗은 할머니의 환한 얼굴을 보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70세는 족히 넘어 보이는 이 할머니는 나에게 “왕 선생님의 중국기독교사 강의를 저도 강의실 뒤쪽에 앉아서 들었는데, 혹시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녀의 말에 내가 당혹함을 느끼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사실 저는 허 형제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며칠 전 허 형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허 형제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삶과 행적에 경탄하였으며, 혹시 기회가 있다면 한번 만나 뵈었다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허 형제 어머

나의 갑작스런 출현은 나에게 놀랄만한 기쁨이었다.

나는 “혹시 강의 도중 제가 잘못 이야기 한 점이 나,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허 형제 어머니는 “혹시 해방 후(즉 공산화 이후)의 중국기독교 역사도 강의하시나요?”라고 물었고, 나는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해방 전까지만 강의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허 형제 어머니는 가방에서 또 무엇인가를 꺼내었다. 보자기를 열고 비닐종이를 펴더니 흰색 실로 칠(綴)한 원고지 한 뭉치를 조심스럽게 내 앞에 놓으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허 형제 어머니는 “제가 1975년 법정에서 검사의 심문을 받은 심문 기록입니다. 왕 선생님께서 중국기독교사를 가르치시니 혹시 흥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헌신된 전도자는 가난  
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어려움을 두려워해서  
는 안 되며,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不窮, 不苦, 不死).

#### 허 형제 어머니와 시작한 대화

나는 중국의 공안국에 붙잡혀간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 보았고, 그들이 공안국에서 당한 고초와 고통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가정교회 지도자가 법정에서 검사에게 심문 받은 기록은 아직 본 적이 없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나는 원고뭉치를 뒤적거리면서 그것이 만년필로 쓴 것임을 알고 “이 심문기록은 누가 쓴 것입니까? 법원의

공식문서는 아닌 것 같고, 또 법정 기록인이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하니, 허 형제 어머니는 “이것은 제가 쓴 것입니다. 제가 출옥한 후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허 형제 어머니는 이 기록을 가족 이외의 어느 사람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나의 중국기독교사 강의를 들으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배려에 감사하였으며, 속으로 심문기록을 천천히 보고, 이 기회에 허 형제 어머니의 생애와 삶의 행적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노트를 꺼냈다. 허 형제 어머니는 준비하였다는 듯이 내가 묻는 말에 매우 자세하게 대답해 주었다. 어떤 때는 이야기가 탄탄대로 빠질 때가 있어 다시 교통정리를 하곤 하였지만 말이 꽤 논리정연 하였다.

우선 그의 생년월일과 출생지와 성장과정을 들었다. 며칠 전 그의 아들인 허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에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었다. 허 형제 어머니는 1929년 장쑤성(江蘇省) 출신이고, 14세 때 어머니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중학교 때 어느 부흥집회에 참석하여 그 모임에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녀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교회의 목사님께 말씀드리자 목사님은, 헌신된 전도자는 가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不窮, 不苦, 不死). 이 세 마디 말은 허 형제 어머니의 평생 좌우명이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1948년에 쓰촨성(四川省)의 어느 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공산화 이후 졸업하였다.

#### 정치학습, 정탐꾼과 유다 목사들

신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여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회의 사정은 이전과는 달랐다. 먼저 그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치학습을 해야 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정부에서 보낸 정탐꾼의 시달림을 받았고,



장승원 그림

설교 내용도 항상 종교사무국의 검열을 받아야만 했다. 또 몸이 불편한 신도들이 기도를 요청해 기도를 해주면 정탐꾼의 고발로 인해 종교사무국 간부에게 경고를 받곤 하였다. 존경하던 목사님은 제국주의자들과 관계하였다 하여 그녀가 부임하기 이전 이미 반혁명분자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교회에는 정부의 말을 잘 듣는 목사들이 대접받게 되었고 신앙이 돈독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였다. 허 형제 어머니는 이들 정부의 말을 더 잘 듣는 목사들을 '유다목사'라고 비난하였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자, 결국 그는 비밀리에 신도의 집을 심방하면서 그때마다 신도들을 모이게 하여 설교하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였다. 공개적인 활동은 위축되었지만 적

극적으로 비공개적인 활동을 했다. 이것이 허 형제 어머니의 가정교회 사역의 원류와 모체가 되었다.

이렇게 사역한 지 몇 년 후, 그의 척추에 문제가 생겨 결국 교회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친척집으로 가서 요양하였다. 한동안 요양한 덕택으로 건강이 회복되자 안과 의사인 친구의 진료소에서 진료업무를 거들게 되었다. 그는 내친김에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하였고, 친구의 가르침과 진료소에서의 실습으로 안과진료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예배와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1955년 그는 안후이성(安徽省) 출신의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허씨와 결혼하였으며, 1958년에 다시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지역 병원에서 안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여전히 옛 신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다. 1962년 초 어느 날, 그녀는 길을 건너다 '유다 목사'를 만났다. 그 목사는 다가오면서 "이제 안과 의사로 전업한 걸 보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냐?"라는 매우 의외의 질문을 했다. 허 형제 어머니는 "내가 믿고 또 일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한마디 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을 재촉하였다. 허 형제 어머니가 거리에서 말한 이 한마디의 말이 결국 그녀의 이후의 삶을 결정하였다. 1958년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남편과 네 자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만 아는 신앙과 사역을 해 왔다고 하였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녀의 모습과 삶이었다.

허 형제 어머니는 1958년부터 의료전도를 하였고, 주변에 있는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꾸준히 모임과 교제를 하였다. 기회 있을 때마다 비밀리에 전도하였고, 심지어 농촌에 들어가 안과진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인 1969년에 첫 번째로 공안국에 의해 가택수색과 심문을 당하였으며, 그 후 1971년에도 비밀 모임과 세례활동이 발각되어 공안국에서 남편과 더불어 고초를 겪었다. 1975년에도 붙잡혔는데, 그때는 2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1979년 공안국으로부터 1975년 「현행반혁명(現行反革命)」의 죄명이 잘못되었음을 통고받고 명예회복 되었다. 1980년 지역의 공인된 교회가 재개되자 허 형제 어머니도 기대를 품고 예배당을 찾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유다 목사를 내세워 교회 목양을 하게 하자 곧 실망하였다. 종교사무국 간부도 여러 번 그녀를 찾아와 공인된 교회에 출석하고 신도들을 '잘 이끌어 줄 것'을 종용하였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 허 형제 어머니의 가정교회는 R지역 가정교회의 모체

1980년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으로 국가와 사회의

분위기가 조금 느슨해지자 허 형제 어머니의 가정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은 더욱 많아졌고, 그녀의 남편과 큰아들도 여러 가정모임의 책임자와 설교자로 적극적인 사역을 하였다. 그 후 허 형제 어머니의 가정모임이 더욱 커지자 말씀사역과 목양에 은사가 있는 형제들을 독립시켰다. 또 때마침 공인된 삼자교회에서 탈퇴한 신도들이 독립적인 가정모임을 갖게 되면서 허 형제 어머니의 가정교회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결국 R지역의 비공인 가정교회는 모두 허 형제 어머니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현재 R지역 네 개의 큰 가정교회 계파 중 둘은 허 형제 어머니의 가정교회가 커지면서 독립한 두 형제의 가정교회이고, 하나는 삼자교회에서 탈퇴한 신도가 허 형제 어머니의 도움으로 세운 가정교회이며, 나머지 하나는 허 형제 어머니의 가정교회로 지금은 그의 네 자녀들 모두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R지역의 가정교회는 모두 허 형제 어머니의 가정교회를 원류와 모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허 형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진짜 시간가는 줄 모르게 듣고 또 적었다. 대부분은 내가 일방적으로 들었지만, 어느 대목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허 형제 어머니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해당 연도와 달까지도 정확하게 언급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전도와 교회개혁의 은사가 있으며, 자신은 말씀강해와 설교, 신도양육에 은사가 있다고 하였다. 나는 허 형제 어머니의 설교를 들어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녀에게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의 아들인 허 형제의 구변과 말씀강해의 은사는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았다.

오후 내내 나는 허 형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고, 대만에서 온 탕 교수가 강의를 마치고 들어와 앉자 허 형제 어머니는 "왕 선생님이 쉬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는 허겁지겁 일어

나 문 밖으로 나갔다. 이튿날 오전 내 강의의 때, 허 형제 어머니는 강의실 맨 뒤쪽에 다소곳이 앉아 강의의 들었다. 다른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빠른 손동작으로 필기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시종일관 고개만 끄덕이면서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점심식사 때 혹시 같이 식사하지나 않을까 기다렸지만 그녀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식사를 하였다. 탕 교수의 강의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은 오후에 그녀는 또 조심스럽게 숙소 방문을 열고는 “왕 선생님, 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 허 형제 어머니의 뜻밖의 선물

허 형제 어머니는 또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어제 나에게 보여준 자필로 쓴 법정 심문기록 원고 봉치였다. 그것을 나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귀한 것을 읽었으면 됐지 받을 수 없으며, 이것은 당연히 허 형제 어머니가 보관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녀는 자기에게 같은 내용의 또 한 부의 필사본이 있기에 이것을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시 공안국에서 1979년 석방시키면서 준 〈석방통지서(釋放通知書)〉와 1979년 명예회복 시키면서 준 〈XXX안건의 재심명예회복에 관한 결정(關於對XXX案件的復查平反決定)〉의 원문 복사본을 가방에서 꺼내주었다. 이 두 문서는 모두 처음 본 것이기에 나는 읽으면서 매우 흥분하였다. 그리고 허 형제 어머니가 쓴 요한계시록 강해서 《주님 따라 펼쳐진 계시록(隨主揭開啓示錄)》 10권과, 자신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 12곡이 들어있는 등사(謄寫)로 인쇄된 찬송 소책자 1권도 주었다.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주면서 꼭 읽고 비판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천년왕국에 대한 개인의 입장도 피력하였다. 12곡이 수록된 찬송 소책자의 첫째 찬양은 「사랑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親愛主, 我愛你)」였는데, 노래 오른쪽 상단에 ‘1975년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의 심경’이라고 명기하였다. 둘째 곡은 「주님, 저는 약속장소에 왔습니다(主, 我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나의 신앙은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퇴색되고 있는가?**

已來約會地)인데 역시 오른쪽 상단에 ‘1975년 감옥에 들어가고 난 후의 심경’이라고 쓰여졌다. 두 곡의 제목에서 허 형제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공안국에 잡혀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으며, 감옥에 들어간 후 그는 이 감옥장소가 주님과 만나는 약속장소라고 하였다.

나는 이 엄청난 것을 받으면서 이것을 받아도 되는지, 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허 형제 어머니는 “이제 왕 선생님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급하게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그날 오후 나는 법정의 심문기록 원고를 읽으면서 또 찬송곡을 시창(試唱)하면서, 공안국의 문서를 낭독하면서, 허 형제 어머니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였으며, 나의 신앙과 삶도 아울러 점검하게 되었다.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나의 신앙은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퇴색되고 있는가? 매우 부끄러웠다. 어려움을 당해도 “사랑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허 형제 어머니는 내가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더 잘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엄청난 자료들을 주셨지만, 내 개인에게 있어 이것은 역사적 자료를 넘어서 살아있는 신앙의 자료요, 채찍이 되었다.

# 중국 교회 잘 도우려면 바로 알아야

유준상

지난 7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만나고 또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그들 안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특히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으며, 자녀가 죽임을 당한 가정도 많아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동안 중국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절대적으로 숭배해 왔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이 무너지자 마땅히 의지할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성경공부를 통해 이들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인들 역시 처음부터 저희에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진실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 속의 아픔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성경공부와 기도를 통해 치유사역을 하고 있던 하지만, 상처받은 중국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전문 치유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저는 뜻밖에 중국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상처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부문제나 자녀문제로 인한 상처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역자들 중 50% 이상이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모는 우리 나라처럼 사모로만 내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내도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이 목회를 합니다. 특별히 중국 교회는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사역에 쫓겨 가정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하면서 겪는 부부간의 갈등,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 그들이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자녀들이 부모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해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인들과 친숙한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때 치유사역을 하면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때론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치유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선교 7년 동안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중국인에게 다가갈 때 절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인은 자긍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와 교제하고 있는 중국인 사역자들은 저에게 외국 선교사들의 장·단점이라든가 한국 선교사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히 말해주곤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은 너무 성급하고,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선교를 하는 데 있어 우리는 단지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섬길 뿐, 우리들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를 존경하고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인과 관계를 맺는 데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그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물질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면, 그들은 계속 돈만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물질에 의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중국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중국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자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 중국 교회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 교회는 우리 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삼자교회와 협력하여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도 세계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2천만 명의 화교를 깨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화교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부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중국 대륙의 성도들뿐입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동남아시아 화교들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어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큰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에 의해 이렇게 확산된 복음이 장차 실크로드를 따라 이슬람권 선교를 가능케 하리라 바라봅니다.

저는 세계선교라는 릴레이 경주의 마지막 주자는 중국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선교의 동기만 부여해 준다면 그들은 잘 움직이고 세계선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에 큰 부담을 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중국인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사명 의식을 심어주고, 선교하는 방법들을 조금만 안내해 준다면 멀지 않은 날에 그들이 세계선교를 담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승원 그림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중국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 있다는 것과 이들을 위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일꾼이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 36~38)

중국은 지금 추수할 때인데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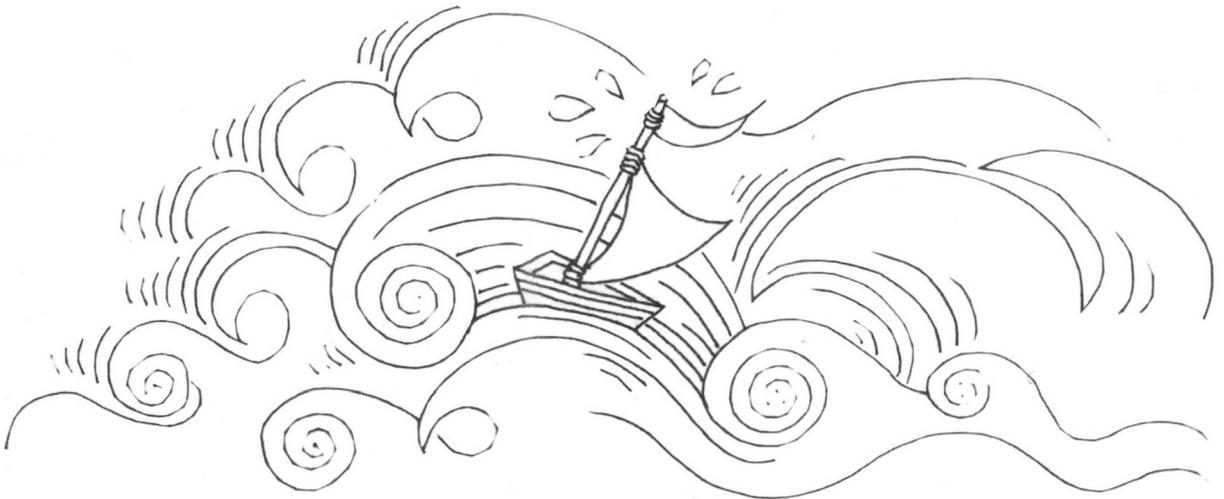
특히 중국 내륙지역엔 선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오는 일꾼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제 중국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선교사도 자신의 전문적 사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 사역, 어린이 사역, 캠퍼스 사역, 치유 사역, 상담 사역, 행정 사역, 신학훈련 사역, 교회개혁 사역, 단기성경학교 사역, 제자훈련 사역, 장년 사역 등등 입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에 동참하여 귀히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동안 중국선교를 하면서 실수했던 것들을 거울삼아 이제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중국 교회를 섬깁시다.

유준상/중국선교사

#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

까오루이(高魯翼)



장승원 그림

저지는 문화보 등 홍콩과 미국의 여러 신문사와 통신사 특파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학 부교수와 화성(華聲) 텔레비전 방송국 편집을 맡고 있다.

## 40세,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1980년 4월, 나이 40에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다. 오고 갈 데 없는 나는 이모님 댁에 머물러 있었다. 그 때 누가 나에게 미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나고 물어봤다면 아마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꿈을 꿀 자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승용차, 고급 주택, 산해진미, 값비싼 고급 옷들... 물론 사랑스런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도 있어야 천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을 실현하려면 높은 지위와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 당시 나에게서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미국에서 석사·박사 코스를 밟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하지만 그 때 나는 선택의 여지없이 후자를 선택했다.

미국에 온 지 두 달 후, 이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다. 두 분 모두 정년퇴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가서 독립하였다. 간신히 구한 아르바이트는 고생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가장 바쁠 때는 시간을 쪼개어 하루에 4건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성인학교에서 영어공부까지 했으니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였다.

중국 청화대학에서 8년 동안 힘들게 공부할 때, 대학원생 친구들이 나를 큰형으로 여기며 “꼭 출세 할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후 15년 동안 과학 기술자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큰 공사를 책임 맡아 수하에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에 오니 그러한 경력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설거지와 막노동을 해서 살아야만 하니 안팎으로 불만이 가득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중국의 친척들과 친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위도 없고, 돈도 없고, 영어도 할 줄 모르는 내가 귀국해서 무슨 낮으로 고향 사람들과 나이트 부모님을 뵙겠냐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빈털털이 백수가 되어버린 나는, 나이트클럽 옥상 위에 있는 싸구려 허름한 월세방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영어공부에 매달리기로 결심했다. 매일 18시간 이상 열심히 공부했고, 매주 한 차례씩 몇 만개의 단어시험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모른 채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다.

###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속에 있는 쪽배 한쪽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후, 중문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신분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남보다 더 성실히 사력을 다해 일했다. 그 때 방 한 칸에 혼자 살면서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며 법률서류에 있는 난해한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번역하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글 쓸 기회가 많아지고, 글의 내용도 깊어지면서 점점 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뉴욕과 홍콩의 편집장이 종종 한밤중에 나를 깨워 일을 부탁하곤 했다. 그들의 요구대로 나는 최대한 빨리 일을 완성했다. 특히 1984년의 한 작가의 “장남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내막을 캐어 내기도 했다. 그래서 연방조사국(FBI)과 협력하여 범인

을 잡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가장 활발히 일했을 때는 국내의 8개의 중문판 신문사와 통신사, 잡지사의 특과원 혹은 사설란을 담당하는 논설위원을 겸임하여 40여 개의 필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당시 불법체류자로서 신분증도 없는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니 종일 뛰어나다녀도 전망이 없어 보였다. 일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었어도 수입은 고작해야 천여 원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 돈들을 버는 즉시 은행에 저축했다니, 몇 만원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집을 사고 싶었지만 불법체류이니 집을 살 수가 없었다.

1986년, 나는 뜻밖의 재난을 당하여 미국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연초에 신문사에서 해고당하였는데, 하필이면 마침 이 때 영주권이 발급되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돌아가 면담을 거친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거류할 수 있다고 했다. 사장은 내가 그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민국을 속여 서류에 서명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소용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사기꾼에게 걸려 가지고 있던 돈 6만원(元)을 다 털리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결코 굴하지 않았다. 아직 건강한 신체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필이면 그날 하루종일 비가 내렸다. 아스팔트 길에서 홀로 걷고 있는데, 난데없이 달려온 차가 나를 치어 3m 밖으로 내팽개치고는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뇌진탕을 입은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병원에 보내졌다. 영주권, 직업, 돈,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동전 한푼 없는 주머니에 빗까지 가득 짊어졌다. 내가 의존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은 대신 몸쓸 놈의 병과 빚을 얻었다. 집세마저 낼 수 없을 때가 많았고, 입맛도 잃었다. 이때 만약 누가 나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이라고 물어 보았다면 나는 ‘죽음’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 실패 끝에 성공하다

사고가 난 후, 종합병원에서 신경내과, 신경외과, 뇌내과, 뇌외과 등 7명의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다 한결같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권유했다. 내 주치의는 대만에서 온 천용청(陳永成)이라는 분이였다.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듣고 난 그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하나는 자주 정신과 의사를 만나 정신요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 때 나는 종교가 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 선생님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는 내가 퇴원한 후에도 전화를 해서, 추석을 맞아 저녁에 교회에서 청년들의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다. 그날 저녁 청년들이 의자빼앗기 게임을 했다. 나에게서는 흥미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천 선생님께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천 선생님은 3권의 소책자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였다. 얼떨결에 책을 받아가지고 돌아와 그냥 구석에 던져버렸다. 그러다가 천 선생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신 후 아무 생각 없이 한 권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를 넘기고 나서 단숨에 세 권을 다 읽어 버렸다. 그 책들은 장밍저(張明哲) 교수가 쓴, 『성경은 무엇인가-책 중에 책이다』, 『기독교와 과학』, 『기독교와 중국문화』였다. 이 책들 속에 지금까지 내가 고민해온 모든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었다. 비록 해답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새벽 1시가 넘었지만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천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약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중국 대륙에 있는 12억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당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 책의 저자인 장밍저 교수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천 선생은 장 교수가 마침 퇴직하고 미국에 와 있으니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장밍저 교수는 원래 대만 청화대학 학장과 국립 과학위원회 주임을 역임한 분이였다. 천 선생과 함께 갔던 교회의 주러화(朱樂華) 목사 주선 하에 나는 장 선생님과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매번 대화할 때마다 6~8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때때로 주 목사님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주 목사님 역시 원래 과학자로, 생화학교수로 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된 분이다.

우리가 토론한 범위는 아주 넓었다. 생명의 기원에서부터 출발하여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한 것, 다윈의 진화론, 유기물과 무기물 등등 평소에 내가 궁금해하던 것은 뭐든지 서슴치 않고 질문하였다. 장 교수는 내가 질문할 때마다 인내심 있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다. 장 교수와 주 목사는 내게 책을 더 읽어볼 것을 권유하셨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했다.

##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영생의 길

원래 나는 세상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친다. 무슨 일이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다. 그 이후 나의 인생관은 완전히 달라졌다.

성탄절 밤,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로 나서면서 편지함을 열어보니 법원에서 보내 온 판결문이 한 통 있었다. 그것은 주(州)정부에서 법정에 기소한 내용이었는데, 나의 잘못된 점만 적혀 있어 나는 적잖이 실망했다. 나는 그 편지를 주 목사님께 가져갔다. 목사님도 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러나 세심한 목사님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마지막장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매달 일정액의 보조금을 나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다.



장승원 그림

서 감절로 돌려주셨다. 지금 나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10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도 지난 해부터 함께 살고 있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두 딸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현재 우리 가족은 우리 소유의 집에 살면서, 비록 부유하지는 않으나 궁색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은 내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다. 이 찬양을 목청껏 부를 때마다 내 두 눈엔 눈물이 흐른다.

몇 년 동안 내가 지나는 길이 탄탄대로는 아니었지만, 잠시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결국은 위기를 평안으로 바꿀 수 있었다. 절망의 순간에도 죽음에 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유명해지게 되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또한 나의 최후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실명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 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을 행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변화된 나를 볼 수 있고, 또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 도전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은 내가 절망 속에서 일어서는 데 큰 격려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골동품과 고서화를 판매하는 가게를 열기로 했다. 외할아버지가 골동품 수집가여서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어 나의 안목은 꽤 높은 편이었다.

자본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지만, 유명한 화가가 선물해 준 그림 한 폭을 네덜란드 경매시장에서 청조의 12폭 풍경 병풍으로 바꿨다. 본래 조금 손상되어 있었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남아 있어, 전문가들에게 부탁하여 손질하였더니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게다가 국가 문물감정위원회에 부탁하여 친필감정서를 첨부하니 액수가 배가 되었다. 나는 주 목사님께, 이 그림을 팔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목사님은 모든 일에 대해 다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다.

모든 것을 걸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뜻밖에 좋은 성과를 거두어 그림이 몇 만원에 팔려나갔다. 밀천이 생기자 한층 더 분발하여 몇 년 사이에 나는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1986년 추수감사절, 나는 세례를 받았다.

지난 6년 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주님께

# 기독교가 바꾸어 놓은 중국 문화

이삼열

선교사가 현지에 파송된 후, 어떤 방법으로 선교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또 선교 현지 환경에 적합한 선교 방법을 고려하기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다. 나라마다 현지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가 그 현지에 맞는 선교 방법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접근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중국에 온 외국 선교사들이 당시 중국의 환경에서 착안했던 주요 선교 사업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출판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문서 운동은 당시 중국의 선교 환경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방법이었다. 문서는 기독교의 교의를 중국 지식인들에게 소개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서방의 과학 지식을 중국에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써 선교사들의 현지인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다.

## 번역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성서번역에 착수하여 6년만에 신약성경을 완역하였다. 그는 광저우(廣州)에서 목판을 조각하여 처음으로 중국어 신약성경을 출판하였고, 그 후 계속 번역사업에 노력하여 1823년 광저우에서 구약성경을 완역하여 목판인쇄하였다. 같은 해 시란푸(錫蘭浦)에서 선교하던 마삼(John Marshman) 목사도 중국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하여 목판으로 인쇄하였다. 1862년에는 비치문 선교사와 극패신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여 「문리성서(文理聖書)」를 출판하였다. 마삼 목사는 그의 성경번역 수정판을 완성하여 약 10만 권

을 인쇄하였다.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였는데 모두 합하면 11종이나 된다.

초기의 성경번역문은 모두 문언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언문은 소수의 지식인만 읽을 수 있었기에, 교회가 부흥하고 신도가 늘어나자 구어체로 번역하게 되었고 후에는 이를 다시 표준어와 지방어로 번역하였다. 제1차 북경어 역본은 1875년 상하이(上海)에서 발행되었고, 제2차는 1872년 후베이(湖北)에서 발행되었으며, 1874년에는 신약성경 모두 표준어로 발행되었다. 신약성경이 지방어로 번역된 것은 1916년부터이며, 맹인들을 위한 점자 성경도 출판하였다.

그리고 모리슨이 10여 년의 각고 끝에 전 6권으로 된 「화영자전(華英字典)」을 펴내어 중국과 서방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 모리슨은 이 작업을 위해 중국 서적 1천여 권을 참고했다고 한다. 또 아이터(J. Eiter) 목사의 「광주방언자전(廣州方言字典)」, 레홀러((Rudolph Lechler) 목사의 「조어덕화자전(潮語德華字典)」, 「객어덕화자전(客語德華字典)」 등은 어문연구에 꼭 필요한 참고서들이다.

또 영국 선교사 레게(James Legge)는 1840년, 당시 25세의 나이로 중국(홍콩)에 와서 1861년부터 사서오경을 번역하여 서방에 소개함으로써 중국 문화에 대한 서방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기여하였다.

## 서적 출판

선교를 위한 기독교 출판단체만도 69개 처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광학회(廣學會), 성교서회(聖教書會), 침례서국(浸禮書局) 등의 출판사가 역사가 깊고 많은 도서를 출판하였다. 또 화흥보사(化興報社), 기독교 교육회 신의회서보부(信義會書報部), 기독교협진회(基督教協進會), 기독교문사(基督教文社), 여청년협회(女青年協會)도 적지 않은 서적을 출판하였다.

전국의 기독교서점은 130개로 각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중 상하이에 위치한 광협서점(廣協書店)이 가장 많은 서적을 취급하였고, 기타 남녀 청년

회, 각 교회, 대학교 부설 서점에서 많은 도서를 반포하였다.

당시 중국에는 3개의 성서공회가 있었다. 대영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등이 성서를 출판, 반포하고 있었다. 1914년까지 3개의 성서공회가 출판 공급한 성서는 1천 8백 2만 7천 8백 60권이나 되었다. 1935년과 1936년 2년 간 보급된 성서의 수는 무려 9백 30만 4천 5백 62권이었다. 3개의 성서공회가 출판한 성서의 수는 모두 합쳐 1억을 초과하였다.

## 정기간행물-신문과 잡지

「중화양간(中華叢刊)」은 1832년 5월에 창간한 월간지로서, 매회 5백여 페이지 분량으로 30여 종의 내용이 실렸으며, 동남아를 위시하여 구미 각지에 보내졌다. 「중화양간」은 당시 아편의 위기에 직면한 중국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지식인들에게 학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 교회의 첫 번째 신문은 1870년 푸저우(福州)에서 간행한 <육산사자월보(郁山使者月報)>이다. 또한 광학회에서 발간한 <만국공보(萬國公報)>, 장로회 기간 신문으로 전국의 교회 소식을 알린 <통회보(通回報)>, 1904년에 창간된 <교회공보(教會公報)>, <성공회보(聖公會報)> 등이 있다.

## 2. 교육사업

### 학교설립

영국 런던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1807년 중국에 도착한 모리슨 목사는 1817년 영화학원(英華學院)을 설립하고 중영문을 사용하여 기독교 교육과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영화학원은 중국인이 영어로 학습한 첫 번째 학교이며, 이 곳을 통해 기독교계의 중국인 지도자가 여러 명 배출되었다. 1825년 공리회의 갈란덕(葛蘭德) 여사는 싱가포르에 여자중학교를 설립하고 중국의 여성교육에 전력하였다. 1835년에는 모리슨 선교사 기념회에서 마카오

에 여자중학교를 설립하고 중국 여성 교육에 공헌하였다.

남경조약 이후에는 중국 내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1858년 천진조약 이후로는 중국 내지 어디에서나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여러 서양 선교단체에서 앞다투어 학교를 설립하였다.

1936년의 기독교연감에 따르면, 그 당시 중국에 남녀전문대학교 13개교, 남녀중학교 249개교, 고급소학교 956개교, 초급소학교 5,637개교, 남녀 대학생 6,423명, 남녀 중학교 학생 50,000명, 남녀 고급소학교 32,899명, 남녀 초급 소학생 151,582명 등이 있었다. 이렇듯 기독교가 중국에서 교육을 시작하지 1년만에 중국 각지에 기독교 교육 기관이 산재하게 되었다.

### 맹인 교육

선교사들의 교육 사업 중에 특이한 것은 맹인 교육이라 하겠다. 초조말, 당시 중국 전역에 약 50만 명의 맹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 가운데 안질 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의료 선교가 시작되면서, 백내장으로 실명한 환자들이 전국 각처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선교사를 찾았는데, 때로는 250여 리의 먼 길을 도보로, 약 50명이 행렬을 지어 오는 광경도 있었다 한다.

맹인 교육은 프랑스가 1785년, 영국은 1791년, 미국은 1832년에 각각 실시되었는데, 표준 육점식 점자가 1837년 프랑스인 브래일레(Louis Braille)에 의해 개발되면서 맹인 교육이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의 맹인 교육은 독일 선교사 구츨라프(Gutzlaff)가 1840년 광저우에서 6명의 맹인 아동을 돌본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맹인 교육에 실제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영국 선교사 머레이(William H. Murray)이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방치된 맹인들의 참상을 깊이 관찰한 머레이는, 원래 그가 계획했던 문서 보급활동을 제쳐 놓고 맹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머레이는 프랑스의 육점

식 점자를 중국 표준어 점자로 개조하여, 1874년 베이징에 설립한 맹인 학교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머레이는 1890년 상하이에서 제2차 대집회를 열고 맹인 교육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여 전국 선교사들의 호응과 교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한커우(漢口)에서 힐(David Hill), 1889년 대만에서 캠프벨(William Campbell), 1911년 상하이에서 프라이얼(John Fryer)이 각각 맹인 학교를 설립하였다.

### 주일학교

중국에서의 주일학교 창시는 시기적으로는 오래되었지만, 당시 약 1/8의 교회에서만 주일학교를 운영하였다. 후에 만국주일학교회를 조직하고 아동과 성인을 위한 각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편집하였다. 주일학교가 부흥되자, 아동의 범위를 넘어 교회 성인들에게까지 이루어졌고, 나아가서는 교회 밖으로 영향을 미쳐 평민교육으로까지 확산되었던 것이다. 위춘투완(郁春團)이 전국 각 교회에 성인 주일학교를 세우고자 다년간 노력한 결과, 남자 60%, 여자 40%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주일학교의 성인교육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교인들의 식자율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높았다. 교회가 문맹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던 것이다.

### 3. 의료

중국에서의 의료 선교는 남경조약 체결 7년 전, 개신교 선교를 시작한 지 28년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이때만 해도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활동은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은 태국, 홍콩, 마카오 일대를 중심으로 문서 활동과 교육 사업을 위주로 선교의 길을 모색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1840년, 중국과 영국의 외교관계가 극히 어려운 와중에 약 20여 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홍콩과 마카오를 무대로 집중되어 있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목사였지만, 전문 의료 선교



기독교는 중국 여성들의 좋지 못한 습관을 고치고 여성 인권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사진은 연산(鹽山)에 있는 교회의 여성신도들)

사도 있었다. 예를 들면 파커(P.Parker), 록하트(W.Lockhart), 헵번(J.C.Hepburn), 케르(J.G. Kerr), 허더(E.G.Horder), 밀스(Mrs. Mills) 등이 모두 의료 선교에 빛을 보인 공로자들이다. 의료 선교사들의 주요 진료 과목은 안과, 피부과(혹은 나병) 혹은 농아 지도 등이었다.

의료 선교는 타문화권에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선교의 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중국에서의 의료 선교는 문화의 벽을 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른 선교 방법에 비해 특이한 점은 찾아오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청조의 엄격한 통제 아래서 외국인들의 행동이 부자유한 상황이었으나,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인도적인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곧 의료 선교였던 것이다.

#### 4. 구제

과거 중국은 서방 학자들에게 “기근의 나라”로 불리웠다. 중국은 역대 이래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 계속적인 피해를 입은 나라이다. 한재(旱災), 수재(水

災)는 1936년까지 매 2년마다 1차례씩, 그리고 바람, 서리, 우박, 지진, 온역 등도 평균 4개월마다 한번씩 겪어야 했다. 중국에서 다양한 전통 종교가 번성한 것은 이러한 자연의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생존에의 투쟁에서 연유한 바가 크며, 이에 따라 기독교 선교 역시 발전의 힘을 입은 듯하다.

청조 시대에는 201차례의 한재와 19차례의 심한 수재가 있었다. 화북 5개 성(山東, 直隸, 山西, 陝西, 河南) 일대의 대한재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비참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과 3년 여 동안 약 1천여 만 명이 희생되었다. 이때 선교사들은 각기 자발적으로 구제 활동에 앞장섰는데, 리처드(Timothy Richard), 네비우스(John L. Nevius), 힐(David Hill), 터니(Joshua Turner), 포스터(Arnold Foster), 알렌(Yong J. Allen) 등의 역할이 눈부셨다.

# 죽음에서의 승리

- 존 스태م과 베티 스태م



존 스태م(좌)과 베티 스태م(우) 선교사 부부

저 침체에 빠진 시기에 다  
시금 선교의 중요성과 도전을  
주기예 충분했다. 최근  
은퇴한 당시의 선교 실행위  
원은 “개인적으로 나는 존  
과 베티 스태ムの 죽음 때문  
에 선교 사역에 헌신한 다  
양한 연령 층, 수백 명의 선  
교 자원자들을 알고 있다.”

고 말했다.

1934년 12월 8일, 미국인 선교사 존 스태م(John C. Stam)과 베티 스태م(Betty Stam) 부부는 ‘제국주의의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당시 그들은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었으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딸 헬렌 프리실라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전세계 교회에 알려진 스태م 부부의 순교 소식은 전세계에 밀어닥친 대공황으로 선교사역마

## <소망성 선교회>와 존의 가족들

네델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존의 부모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네델란드어와 영어로 된 신약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한 존의 가족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바쳐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극빈자를 위한 패터슨의 무료 봉사’에 전 가족이 봉사하였고, 병원, 감옥, 구빈

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또한 <소망성(所望星) 선교회>를 창설하여 극빈자들에게 음식을 제공 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번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상처받은 수천 명의 시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뢰하게 하였다. 스태 가족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소망성 선교회>의 전도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15세가 되었을 때 존은, 소망성 선교회에서 한 맹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단하였다. 내성적인 성향의 존은 앞에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구원의 놀라운 기쁨은 그로 하여금 노방전도를 하며 자기 주장을 확실히 밝힐 줄 아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하였다.

존은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회사생활을 하다가 1929년 본격적인 사역 준비를 위해 무디성경학교를 지원하였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학생선교협회 동료들과 함께 한 기도 모임을 통해 그의 신앙은 점차 확고해져갔다.

### 중국 선교사의 딸, 베티

베티의 부모 찰스 어니스트 스코트 박사와 그 부인은 중국 북부 산둥(山東)성의 장로교 선교사로서,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인물들이다. 베티는 1906년 5남매의 장녀로 미국 미시간 앨비온에서 태어났다. 베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후, 스코트 부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 이들 가족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가정예배, 운동, 독서 시간을 갖곤 했다.

베티는 고등학교를 마치기 9개월 전에 염증을 일으키는 류머티즘과 무척이나 쇠약해진 심장 때문에 병상 치료를 위해 학교를 떠나야 했다. 이 회복 기간 동안 베티는 자신에게 시 쓰는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 챔벌스버그에 있는 윌슨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그녀는 이러한 재능을 더욱 발전시켰다. 대학 재학시절 베티는 문예회장으로 당선되었고, 또한 윌슨대학 문학출판사의 부편집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

생 자원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뉴저지에서 열린 케직 사경회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변화된 생명 (허드슨 테일러)」,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가르침」, 「매일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등의 책은 베티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도록 결단하게 하였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이니라”라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 결혼보다 사역이

1928년 윌슨 대학을 졸업한 후, 베티는 실제적 전도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 무디성경학교에 입학하였고, 존은 베티보다 1년 늦게 무디성경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중국을 가슴에 품고 있던 존과 베티는 <중국내지선교회>의 중국 기도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고, 이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1931년 무디성경학교를 졸업한 베티는 중국내지선교회로 들어가 훈련을 받은 후,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존은 1년을 더 공부해야만 했다. 존과 베티는 결혼을 마음에 두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 모두 사역을 결혼보다 더 중시하였기 때문에 베티는 결혼을 뒤로 미루고 중국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떠나갔다.

1932년 7월, 베티보다 1년 늦게 졸업한 존은 내지선교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바로 중국으로 갔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 존은 친구들과 하객들에게 자기의 비장한 각오를 이렇게 나타내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속에는, 자금이 풍부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자기 부인이 필요 없을 때에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결코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환난과 박해가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딛고 이기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오는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

라는 깨달음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 결혼과 딸의 출생

상하이에 도착한 존은, 이곳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던 베틀의 부모 스코트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약혼을 허락 받아 약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존은 언어 공부를 위해 안후이(安徽) 남동쪽에 있는 안칭(安慶)으로 떠났고, 베틀은 안후이 성의 북서쪽에 있는 푸양(阜陽)으로 각각 떠났다. 5개월만에

존은 언어 공부를 마치고, 조지 버치 부부와 함께 스왕치아오(雙橋)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약혼 1년 후인 1933년 10월 25일, 존과 베틀은 베틀의 부모가 사역을 하고 있는 친안이라는 곳에서 결혼했다. 칭다오(靑島) 해변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존과 베틀은 스왕치아오에 임시 머물게 되었다. 이들은 중국인 사역자들과 팀을 이뤄 선교지국과 설교를 필요로 하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다. 6시간 동안 10마일을 이동하는 강행군이 다반사였다.

존과 베틀은 스왕치아오에서 스왕치아오 남서쪽 6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칭양(靑陽)이라는 곳으로 사역 장소를 바꾸었다. 그곳은 본래 안식년 휴가를 떠난 워런 부부가 사역을 하던 곳으로, 그들이 안식년 휴가를 떠나는 동안 그 사역을 이어서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또한 그 근처에 있는 미아오췌오를 오가면서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1934년 9월 11일 오후, 감리교 병원에서 존과 베틀 스태트 부부의 딸 헬렌 프리실라가 태어났다.

### 그들의 헌신과 순교

존과 베틀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당시 중국의 상

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1922년에 시작된 반기독교 운동의 여파가 날이 갈수록 거세어져서, 1924년에서 1934년 사이 27명의 개신교 선교사가 목숨을 잃었고, 59명이 인질로 납치되었으며, 21명이 투옥되었고, 2명이 감금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등 큰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증오는 학교와 병원을 부수거나 선교사들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죽이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존과 베틀이 사역을 하던 안후이성에서도 이런 반기독교 운동은 거세게 일어났다. 안후이성에서는 1867년 초 영국인 국제성서공회 직원이 살해되는 것을 시작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거국적인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어가고 있었다.



〈3개월 된 헬렌 프리실라〉

드디어 1934년 12월 7일 공산주의자들은 2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산을 가로질러 기습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때 마침 베틀은 딸 헬렌을 목욕시키고 있었다. 존과 베틀은 집안 일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존과 베틀의 집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베틀은 그들에게 차와 케이크를 대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존과 베틀 그리고 아이를 끌고 갔다. 그러다 한 군인이 “아이는 불편하니까 먼저 죽이는 것이 어때?”하고 옆의 군인에게 말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농부가 아이를 죽이는 데 대해 항의하자 그들은 “네가 아이 대신 죽을테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그 농부는 그 자리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그 농부의 목숨이 헬렌 프리실라의 목숨을 대신한 것이다.



장승원 그림

그들은 그날 밤 미아오쉐오로 가서 피난을 떠난 한 부자의 폐가에 묵었다. 존은 무거운 침대 기둥에 묶여 있었지만 베틀은 헬렌 프리실라를 돌볼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공산주의자들은 겨우 3개월 된 프리실라를 폐가에 남겨둔 채, 존과 베틀을 재판하기 위해 소나무 숲이 있는 한 언덕 위로 끌고 갔다. 그 추운 겨울 아침 존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옷도 벗기워진 상태로 공포에 질린 군중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다. 결국 젊은 선교사 부부는 공산주의자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온한 가운데 순교하였다.

한편 어떤 나이 많은 노파 하나가 미아오쉐오에 있는 한 중국인 복음 전도자에게 어떤 외국인 어린 아이가 하루 반나절 동안 폐가에 홀로 버려져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중국인 복음 전도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폐가에 가서 헬렌 프리실라를 구해내었다. 그는 아이를 쌀바구니에 숨긴 채, 무려 100마 일이나 떨어진 그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찰스 어니스트 스코트 부부에게 데리고 가서 아이를 넘겨주었다. 헬렌 프리실라의 구출은 참으로 기적이었

다. 존과 베틀의 순교와 그들의 딸 프리실라의 기적과 같은 구출 소식은 곧 세계 각처에 알려졌다.

### 우리는 이를 위해 이 때에 왔다

존과 베틀의 순교는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존과 베틀 모두 20대의 젊은 나이였으며 오랜 준비 끝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진 죽음이었으며, 그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사역에 헌신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존은 일찍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고통을 만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다’ 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만사가 현재 상황을 만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죽음은 좌절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들 부부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으며, 더 많은 열매를 남기기 위해 씌어진 하나의 밑알이었다.

\* 이 글은 도서출판 햇빛의 허가를 받아 「그리스도의 대서들」에서 발췌함  
정리/곽숙·본지 편집기자



# 이것이 중국식인가?

도디모데

얼마 전부터 중국 생활에 접어들었다. 물론 이미 6년 전부터 중국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중국의 실상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중국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동역자 1명, 현지 사역자 2명과 함께 중국 내지 깊은 곳으로 선교지 답사 겸 여행을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을 안내해 줄 인도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웬일인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나는 현지 사역자에게 그들과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며 이렇게 물었다.

“언제, 어디서 그들을 만나기로 했나요?”

“2,3일 내로 그곳에 갈 테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 2,3일 내로 간다고 했다고요?”

“예. 그러니 어디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2,3일 내로 간다는 것도 약속인가? 이것이 중국식 약속? 적어도 몇 월 몇 일 몇 시에 갈테니 정류장으로 마중 나오라는 정도는 되어야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동안의 내 방식과 너무도 달라 혼돈이 왔다. 나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었다.

“그렇게 약속을 해도 지켜집니까?”

“물론입니다. 이곳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 시간도 맞추기 어렵고, 중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거의 집 밖으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약속보다는 그런 약속이 피차 간에 좋습니다.”

중국을 다녀보니 사실 그럴만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리 그래도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하지 않는가. 더욱이 선교의 시간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에 괜히 현지 사역자에게 불만을 늘어놓기도 했다.

중국에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고속버스가 있긴 해도 작은 도시지역에서는 약 25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이위이커(소형버스)’라는 차



를 타고 다닌다.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5일 동안 거의 이런 차를 타고 다녔다. 이위이커는 우리 나라의 개인택시처럼 개인 소유로 운영되는 것 같았다. 대개 부부가 같이 일하는데 남편은 운전을 하고 아내는 차장 역을 맡아서 돈을 받는다. 나는 부부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떤 차의 부부는 서로 실견이를 하면서 운행하기도 했지만, 서로 끔찍하게 위해 주는 모습도 보였다. 열심히 살아가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차 안에서 보는 것 같아 흐뭇했다.

그러나 한 번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역시 이위이커를 탔는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출발을 안하고 시간을 계속 끌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는 속셈인 듯 했다. 웬만큼 사람이 탔으니 출발하면 좋으려만,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차장은 손님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는가를 살펴보고 있었다. 승객들의 얼굴이 찡그려지고 시계를 들여다보며 뭐라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겨우 출발을 하는 듯하였다.

정류장 입구에서 차장이 내렸다. 나는 무슨 불일이 있어 그곳에 남는 줄로만 생각했다. 이위이커는 출발하여 서서히 속력을 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가는 길이 좀 수상쩍었다. 큰 도로로 가지 않고 좁은 골목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마도 빨리 가려고 질러서 가는가보다 생각했다. 약 10분 정도 가더니 어느 허름한 공장 같은 곳에서 멈춰 섰다. 운전사가 내려서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사람을 불러내고 짐 3~4박스를 실었다. 아니, 목적지로 가지는 않고 자기 개인 짐을 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손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10분 정도 지체한 후 차가 출발했다. 이제야 제대로 떠나는가 보다 생각했다. 나는 안심하고 좁디좁은 의자지만 뒤로 기대어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조금 가다보니 조금 전에 우리가 차를 탔던 곳을 다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잠시 후 도로가에 차가 다시 멈추었다. 나는 다른 손님을 또 태우려나 하고 창 밖을 보았으나 손님은 없다. 그런데도 차는 계속 엔진소

리를 내면서 덜덜거리고 서 있다. ‘아니 왜 차가 안가고 있는 거야?’ 나는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동행한 현지 지도자들은 고개를 한 자나 높여뜨린 채 잠을 자고 있다. 깨우려 했으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 포기했다. ‘아니 지금 잠잘 때가 아닌데...’ 항의라도 하고 싶었지만 언어가 안 되니 참았다.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 약 20분쯤 지나서야 조금 전에 내렸던 차장(기사의 아내)이 골목 안에서 걸어왔다. 그는 차를 타고서도 손님들에게 한마디 상황 설명이나 사과의 말이 없었다. 오히려 운전사인 남편과 짜증스럽게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그제야 출발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중국선교를 해야 할까’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렸다. 운전사의 핸드폰이었다. 그는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갑자기 차를 돌려,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아니 이럴 수가. 손님들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지. 아무 해명도 없이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 이제는 울분마저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상한 감정과는 상관없이 차는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왔다. 그곳엔 두 남자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약 2톤 가량 뒹직한 많은 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설마 이 짐들을 우리가 탄 차에 실으려는 것은 아니겠지 생각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추스렸다. 아니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짐들을 주섬주섬 차에 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자마다 사람들이 앉아있고 통로도 이미 좀 전에 실은 박스로 막혀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짐을 실으려는 것인지. 그러나 차장은 안쪽부터 박스 위에 짐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 통로 끝부터 출입구까지 짐 박스가 천장에 닿도록 쌓고 또 쌓는다. 그제야 손님들의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은 참 무던하기도 하다. 그동안 아

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손님들의 불평 소리가 커지길 바랐다. 그 틈에 잠을 자던 우리 동료들도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그들은 바보(?)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다. 아니 뭐라고 소리라도 쳐야 되지 않는가. 나라도 항의해야겠다는 생각에 우리말로 “아니 이 차가 화물차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운전사나 차장이 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다. 그제서야 우리 동료 한사람이 내 말에 자극을 받았는지 “박스가 떨어져 사람 다치겠어요.”라고 소리를 쳤다. 손님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장은 계속 짐을 차 안으로 쑤셔 넣었다. 나중에는 운전석 좌우측까지 밀어 넣었다. 우리의 시야는 짐으로 완전히 가려졌고, 오히려 우리가 짐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했다. 그 많던 짐을 다 싣고 나자 그때서야 차가 출발했다.

두 시간쯤 갔을까? 휴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내 동료 중 한사람이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 마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기회를 타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소리를 쳤다. 그러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짐을 다 내릴 수도 없었다. 결국 창문을 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슬아슬하게 좁은 창문으로 유격훈련 하듯이 빠져나가서 볼 일을 보았다. 다시 창문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들어오는 것은 나가는 것보다 더욱 힘들었다.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겨우 탈 수 있었다. 나는 목이 말랐지만 일부러 음료수도 안 마시고 꼭 참았다.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서였다. 오랜 시달림 끝에 결국 목적지에도 도착했다. 승객들이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그들은 짐을 치워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자 손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그래도 창을 넘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여자들은 좀 곤란했다. 그러나 그들도 차 안에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나역시 겨우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돈 때문에 사람과 화물이 같은 취급을 받는 나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게 중국식인가?” 하면서 마구 따졌다. 그리고 나서야 마음이 좀 풀어지는 듯 했다.

며칠 동안 여행을 하고 나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이해할 것 같았다. 이제는 이력이 낫는지, 훈련이 좀 되어서인지 그때처럼 불평, 불만이 생기지는 않는다. 여행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중국식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얼마 전에 들은 말이 생각난다.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 말이 정말 실감 난다. 너무 이치에 맞지 않아서 “정말 이래도 되는가?” 라고 질문하면 “중국에서는 그래도 된다”고 대답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짧은 여행이었지만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국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내가 중국인들을 섬기려고 중국에 왔으니 이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여행을 하면서 불편했던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던 나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중국 생활 초년병인 나에게서는 이런 일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차이가 많았지만 웬지 그들을 볼수록, 겪을수록, 만날수록 더욱 사랑이 생겨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삶의 방식은 달라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일까? 내가 과연 중국선교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 보면서 내가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가 알게 되었다. 이 여행을 통해 나는, 중국선교는 자신을 준비하고 현지 문화와 중국인들을 이해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 바람난 남편이 뿌린 고통의 씨앗

황리리(黃鯉荔)

적지 않은 수의 홍콩인들이 홍콩과 중국대륙에서 매춘부들과 관계를 맺은 후 성병에 감염되었는데, 이후 자신들의 아내에게 성병을 전염시켜 몸과 마음에 고통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근래 들어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홍콩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남성 주도의 전통 성 관념 하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선전(深圳)의 밤거리

결혼한 지 3년이 된 '아이(阿儀)'라는 여성은 석 달 전 음부에 붉은 반점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그녀가 '성병 콘질로마' (속칭 '예차이화(椰菜花)'라고 하는 성병의 일종)에 걸렸다고 진단을 내렸다.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놀란 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오직 그녀가 아는 것은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이었다.

결혼 후 줄곧 남편에게 순결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했다. 그렇다면 남편이 의도를 한 것은 아닐까? 그녀는 울면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따졌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된 남편은 머뭇거리며, 자신이 전에 선전(深圳)에서 일을 할 때 유혹을 견디지 못해 창녀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최근 홍콩에 성병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성병을 전염시키는 것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부부관계, 더 나아가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매우 큰 사회문제가기 때문이다. <밍아이가정문제센터>에서 일하는 귀즈잉(郭志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병에 걸린 대다수의 여성환자들은 자신이 갑자기 성병에 감염된 것을 안 후에야 비로소 남편이 의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남편이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정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녀는 아주주간(亞洲週刊)에게 말하길, '밍아이가정문제 전화상담소'는 1997년 6월에 창설되었는데, 그때부터 올 4월까지 1,321건의 성병에 대한 상담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 30여건은 남편에게 전염된 경우였다. 전화한 사람들이 말한 남편에게 전염된 성병의 종류는 매독, 성병 콘질로마, 요도염, 임질 등이다.

### 신체는 죽지 않았지만 마음은 죽었다.

'아이(阿儀)'는 남편에게 성병이 전염된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성병 콘질로마는 에이즈와 달라서 죽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비록 몸은 죽지 않지만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귀즈잉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편이 외도한 줄은 알지만 성병에 걸린 줄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처럼 남편의 외도와 성병 감염을 모르고 있다가 자신에게 전염된 후에야 비로소 남편이 외도한 것을 알게 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성병환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귀즈잉은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남편을 용서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수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성병이 전염되어 다시 성병이 재발하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부연 설명에 의하면, 일부 여성들은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콘돔을 사용하도록 요구했으나 남성이 주도하는 전통관념을 가진 남자들이 부인의 요구를 무시하기 때문에 부인들이 성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홍콩정부 위생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들어 성병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작년 위생부의 관할 하에 있는 사회위생과에서 성병에 대한 진료를 한 수가 30

만 회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1997년에 비해 10% 증가한 수이다. 각종 성병 가운데 임질이 아닌 요도염 환자의 진료 회수가 가장 많았는데 약 7천여 건에 이른다. 그 다음은 성병 콘질로마로 3,641건인데, 이것은 1995년부터 홍콩에서 발생한 성병건수 중 제2위이다. 제3위는 임질로 2,800건에 달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과거 2년 동안 성병에 전염된 남자 가운데 6,70%는 외지에서 외도함으로써 전염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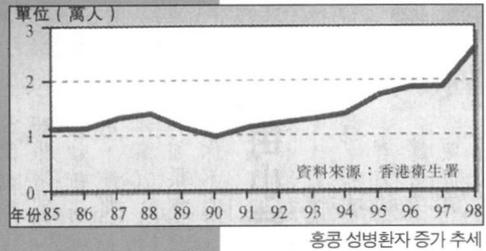
금년 5월 하순 홍콩 중문대학 임상실험실과 전염병학연구센터에서 남성들이 매춘부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었는데 그 숫자는 사람을 놀라게 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7명 중 한 명이 반년 내에 외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외도한 사람의 총 숫자는 거의 30만 명에 달했고, 그 중에 1/4은 외도할 때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3만 명이 외도 후 성병에 전염되었다. 30만 명 중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한 곳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녔다. 13만 명은 중국 내륙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외도했다. 이들은 콘돔을 사용하지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마구 외도를 했다고 한다.

런던 황제내과의학원 예롱건(葉榮根) 원장의 말에 의하면, 성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분별하게 외도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성병 콘질로마는 환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전염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자신을 정결케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경험이 이룰수록 감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인의 무분별한 외도나 반려

자의 무분별한 의도는 성병종기를 전염시키고 이것 외에도 다른 종류의 성병에 전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히 화류계의 여성을 좋아하는 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홍콩과 중국대륙의 경제무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홍콩남성들의 일부가 대륙의 화류계 여성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귀즈잉의 말에 의하면 근래 들어 홍콩 남자들이 공무로 북상(北上)하여 대륙으로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남자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외도하며 첩(장기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현지처)까지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가 홍콩에 돌아가서 자신에게 전염된 병을 아내에게 옮기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죄 없는 배우자까지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홍콩사람들이 북상하여 외도하고 첩을 두는 바람이 더욱더 뜨겁게 불고 있는 가운데 성병 전염의 기회는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성병통제중심’에서 발표한 숫자에 의하면 1998년 전국에서 63만 2,512건의 새로 증가된 성병 병례를 접수했다. 이것은 1997년에 증가한 37% 이후로 90년 이래 증가폭이 가장 큰 해였다고 할 수 있다.



### 광둥성의 성병이 홍콩까지 영향을 미치다.

홍콩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인 광둥성의 ‘창녀촌’ 일대는 전국적으로 성병의 전염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숫자로 증명하자면, 지난해 일년에 광둥성에서 9만 여건의 성병이 새로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매독의 증가율이 가장 크고, 성병 콘질로마의 증가율도 높아 세상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예룡건씨가 이주주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국대륙의 성병 콘질로마는 1997년에는 104,729건이었는데 98년도에는 14만 1천4백 여건으로 급증하였다고 한다. 증가폭은 35퍼센트가 되는데 전국의 대도시 가운데서 성병 콘질로마가 가장 많은 지역이 홍콩에 인접한 광둥성이다. 1998

년에는 총 2만 1천617건의 성병 진료가 있었고, 발병률은 30.26%에 달한다.

아시아에서 성병 콘질로마에 감염된 사람수가 예상했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홍콩도 성병 종기균 때문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홍



상하이(上海)의 신식 스텐드바

콩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루오즈렌(羅致廉)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홍콩 성병환자들의 숫자를 정확히 모르지만 사회에서의 성 관념이 점점 개방되면서부터 성병환자들의 숫자들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오즈렌 씨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정부사회 위생과 진찰실의 숫자통계에 의하면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성병 콘질로마에 감염된 새로운 병례가 673건에서 2,971건으로 4배나 증가하였는데 그 상황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일부분 환자들은 자기 자신이 성병 콘질로마에 감염된 줄을 모르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아내에게 성병을 전염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부가 다 성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

성병이 가져오는 고통은 개인 육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성관계를 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귀즈잉 씨는 홍콩이 비록 선진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여성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성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들이 성 관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아내들은 종종 남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피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여성들은 남편의 외도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성병에 걸렸다면 배우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외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라고 귀즈잉 씨는 말하면서, 성병을 배우자에게 감염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기에 밀어 넣을 권리가 없기에 성병에 감염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려주고, 배우자에게 성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이 자기가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사실을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의사의 도움을 받든지 한 다음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귀즈잉 씨는 “성생활에서 쌍방은 모두 자기와 상대방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亞洲週刊』, 1999, 7.5~7.11

번역/ 석은혜 · 본지 편집장



# WTO 가입과 중국 정국(政局)



백악관을 방문한 주룽지 총리(오른쪽)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위해 13년 동안 담판을 해 왔다. 이 과정 중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방미는 대폭의 양보를 통해 WTO 가입에 가능성을 확보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코소보 사태 중 베오그라드 시 중심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주재 중국대사관이 피폭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 민족주의를 야기시키면서, WTO 가입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희망컨대 중국 당국이 민심에 맞추어서 보수세력의 선전에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단시일 내에 WTO에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시에 중국의 정세가 세계 현대화 방향에 발걸음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란다.

## 중국의 WTO 가입의 득과 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은 GATT이다. GATT는 1947년 10월에 23개국이 참가하는 것으로 조직되었다. 1993년 12월 WTO

로 이름을 바꾸면서 117개국이 조직에 참가했는데, 1995년에는 100여 개국이 정식 인준을 거쳤다. WTO는 국제무역의 법률과 규칙에 의거해 각 정부간에 다자간 협정을 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자간 무역협상을 진행하여 국제적인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장소로 쓰여진다. WTO는 자유무역 원칙에 입각하여 다자간 협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최혜국을 확대하며 평등무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를 보호하고 우대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시장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수입제한을 철폐하며, 최대한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허가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조건하에 연내 WTO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어냈다.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취해 온 차별무역정책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매년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해줄 지를 걱정해야 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한다면 중국의 대외무역환경은 좋아질 것이다.

대다수의 중국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이들에게 WTO 가입은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입장권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신발, 방직, 완구 등의 중저가 과학기술 산업에 유리하다. 방직산업에 특히 유리해 외국에서 일정한 소비분배액을 갖게 되면 상품의 수출은 현저하게 늘어날 것이다.

두번째, 외자의 중국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외국자본은 중국에 들어와서 이익을 얻게 된다.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중국의 취업기회는 확대될 것이고, 현지의 세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런 합작관계 속에서 중국은 더 우수한 관리 능력과 과학기술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외국자본과 합작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외국자본은 국내 투자도 촉진시켜 결국 내수의 확대에도 유리해지게 될 것이다.

세번째, 시장을 개방하여 국제시장의 경쟁체제와 규칙을 국내에 들여오면 세계경제체제에 접근하여 시장화와 현대화 공업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산업은 성장을 멈출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들어오

면 비록 중국의 산업은 압박을 받고 위기감을 느끼겠지만, 자국산업의 발전을 자극할 것이다. 일본이 개혁을 진행할 당시 매우 큰 외국의 압력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압력을 환영하였다. 결국 이 압력은 시장개방과 산업의 발전을 도왔고, 일본 현대화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당연히 불리한 점도 있다. 우선 국제자본이 중국 내로 진입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국제자본이 기계조립공업, 금융보험, 전기·통신산업과 건설업에 유입되어 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업종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상품시장, 농업, 자동차 제조업, 석유공업 등도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들이 경쟁이란 압력을 극복하고, 에너지로 승화시켜 시장화의 틈바구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먼 훗날이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단순히 경제만을 보면 중국의 WTO 가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외국자본과 수입상품의 충격으로 국내의 어떤 품종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시장경쟁이 발전하며 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정치체제의 개혁이 촉진되어 더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 WTO를 둘러싼 투쟁

이상 그 득과 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중국 정부 내의 각 파와 각 사람들의 WTO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장쩌민(江澤民), 주룽지를 대표로 하는 주류파는 중국공산당 14기 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체제의 건립을 결의했다. 또 15기 대회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체제개혁을 전개할 것을 통과시켰다. 주룽지는 총리에 취임할 때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



▲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한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  
▶ 주룽지 총리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층에서 리펑(李鵬)을 대표로 하는 온건보수파는 WTO 가입을 반대했다. 또 군대의 보수세력도 주룽지의 방미기간 동안 WTO 가입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4월 중순 군측에서 주관하는 연구토

론회의는 WTO 가입문제를 분명히 지적하여 “서방선진국이 경제 지구촌화 진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금융 자유화정책을 시행하여 서방국가의 단기투기자본이 밀려올 경우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으로 비록 중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더라도 선진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 수준은 중국에 타격과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속했었다. 그래서 주룽지는 WTO 가입의 임무를 띄고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때 중국 중앙정부는 대폭 양보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후에 나토의 유고대사관 폭격사건으로 중국 민족주의 정서가 고양되어 WTO 가입이 공격을 받을 때 홍콩 신보(信報)에서는 “WTO에 가입하려는 중앙의 정책은 이익과 폐해를 잘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비록 WTO 가입이 중국에 완전히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13년 간 어렵게 담판을 해왔는데, 중앙이 준 권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이(吳儀)는 말했다.

WTO에 대해 덩리쥘(鄧力群) 같은 당내 극좌보수세력은 개혁개방을 반대하고,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사회주의를 회복할 것을

**대사관 피폭사건으로 WTO 가입 변수 증가**  
5월 8일 나토의 유고 중국대사관 폭격사건은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였다.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위기는 반미배척의 정서로 흘러갔다.

WTO에 가입하는 문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당내의 극좌보수세력, 지도층, 군대의 보수세력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리펑은 5월 19일 일본 국회의 중국방문단 앞에서 “중국은 WTO에 양보하거나 굽힐 필요가 없다. 중국 공산당은 아직 그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또 주룽지 총리가 행한 양보안 ‘21개 조항’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주 총리를

‘매국노’라 하였다. 이것은 보수세력이 주룽지 총리의 WTO 적극 가입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의 기본 국책상 중국은 기필코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적인 국력의 성장을 목표로 할 것이다. 설사 중미관계가 소원할지라도 미국과 완전히 대립할 수는 없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95년 중미 마찰에 대하여 “대화를 강화해 신임을 늘리고, 번거로움을 줄여 협작을 발전시키고 반발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5월 27일까지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핵기술을 절취했음을 질책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WTO 가입에 대한 입장과 관점을 변화시킨 적이 없다.”라고 의견을 표시했다. 또 미국에 계속해서 금년 말까지는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6월 3일 중국정부는 “우리 나라는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한편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하였다. 이 날 인민일보의 사설에선 미국의 패권주의를 공격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고 미국 등 서방선진국과의 연합관계도 함께 발전해나갈 것을 분명히 표시하였다. 특별히 미국과 맺은 든든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고, 세계 평화의 발전에도 유리함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관영에서는 미국에 대해 군사교위간부 간 교류 정지, 무기확산 담판 정지, 인권 담판 정지 등 이 세 가지의 항의조치가 WTO 가입정지와는 무관함을 여러 번 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자국 및 WTO의 이익에 기초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미국 측에서도 각종 장소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은 대사관 폭격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은 미국에도 이익이 됨을 강조하였다.

양국 대다수의 비교적 이성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권력 균형의 이익과 폐해이다. 또 작은 국면은 큰 국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내부건설이 외교분쟁에 우선하며, 단기적인 권력균형 충돌이 있다하더라도 근본적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내의 보수세력도 장기적으로 역사의 흐름인 WTO의 가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대외무역부 부부장이며 WTO 수석담판대표인 룡용투(龍永圖)는 얼마 전 1차 회의에서 WTO 가입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반격하며, 이런 사람은 국유기업에 대한 염려를 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불법적인 권익을 지키려는 부패한 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경제 최대의 위협은 관세인하나 수입분배액 감소가 아니라, 무역보호주의제도와 관료기구의 부패와

밀매라고 말했다. 결국 WTO 가입의 변수는 반대하는 환경을 뚫고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 중국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6월 16일 중국 정부는 미국 국무차관의 나토 주유고대사관 폭격사건의 조사보고를 거부했다. 이 사건이 중국의 WTO 가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의는 이제까지 중미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인사들의 주목을 끌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시장화 발전에 필수이다. 또 13년간 길게 끌어온 것을 다시 반복해선 안될 것이란 점도 분명하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단기간 내에 특별히 미국과 중국이 원래부터 주장해 온 것처럼 금년 내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금년 시애틀회의까지는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오폭사건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시간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미국의 보수세력에서도 중국을 반대하는 소리가 크지만, 미국에 근본적인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에 근거해 정부측은 재계에 중국이 올해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호소하고 있다. 양당의 정치 경쟁이 대통령 선출과 맞물리고 있지만,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중국에 대해선 자신의 잇속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변하지 않는 국책이다.

이 문제에서 관건은 중국이다. 중국 당내와 정부 내에서 WTO 가입에 대한 쟁론이 있다. 민간에선 WTO 가입의 이익과 폐해에 대해,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됨에 따라 당 정군(政軍)내의 보수세력과 이익집단은 공개적으로 가입을 반대했다. 또 '애국'의 명목 하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중국 경제학자 우징리엔(吳敬璉)은 중국이 올해 내에 가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였다.

WTO에 가입하는 것은 하나의 개별사건이지만 중국 개혁의 실마리로서 중국 정국의 흐름을 이끌고 갈 것이다. 중국은 금년 일련의 '풍랑'을 거친 후 다시 교차로에 이르렀다. 어디로 갈 것인지 집권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WTO 가입은 작게는 중미관계에서, 크게는 개혁개방의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공의롭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이 다시 쇠국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특사의 '해석'을 거절한 후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미 양국의 우호관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 대외무역부 부부장인 스푹생(石廣生)과 국무위원 우이(吳儀)는 6월 17일 영국무역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사관 폭격사건에 대해 중국 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함을 제기한 동시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는 의지는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정치권력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장쩌민은 요즘 내부회의에서 WTO 가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 '기민한 방법', '뛰어난 협상', '단순조치불가' 등 4가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바라기는 중국이 다시 한번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발휘하여 담판을 재개하고, 국가가 장기적으로 낙후한 기업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국내의 상황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극복하길 바란다. 특히 보수세력의 이데올로기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WTO 가입을 향해 다시 전진하는 것 역시 실사구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중국 정국은 세계의 현대화 흐름에 적응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영적 성숙

제국주의 시대 때 미국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의 한 명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였다. 유럽에서 이주해 온 자들이 미국 원주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놀란 브레이너드는 19세의 나이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계획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원주민들의 언어도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인디언들은 애니미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선교사들을 당연히 의심스럽게 볼 것이고 따라서 브레이너드를 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이교도들 사이에서 살게 되면 그의 재능은 낭비되고 그의 건강은 분명히 망가질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브레이너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쪽 귀로 흘려 버리고 인디언들을 만나러 떠났다. 이후 9년 동안 그는 일만 명을 헤아리는 원주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러다가 오랜 여행에서 온 피로가 누적되어 그의 건강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급기야 28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브레이너드가 젊은 나이에 소천하였지만, 그의 짧은 삶은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성숙된 삶이었다. 또한 그의 일기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려는 마음으로 특징 지어졌던 삶을 볼 수 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하워드 헨드릭스 저, 도서출판 디모데) 중에서-

#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

## 종교

### 북한 난민 통해 기독교 급속히 확산

지난 4년간 식량 부족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 온 북한 난민들을 통해 북한에 기독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르몽드는 국경 근처 중국인 목사들의 말을 인용, 식량을 구하러 온 난민들 일부가 다시 돌아가 식량과 더불어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한 지난 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기독교 단체들이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북한 난민들을 상대로 구호활동과 함께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독교 신자가 된 난민들이 돌아가 기독교를 전하

고 있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연합 99.6.20)

### 중국 파룬궁, 장쩌민에 "탄압말라" 탄원서



중국의 기공 단체인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약 1만4천 명이 장쩌민(江澤民) 국가 주석과 주룽지(朱鎔基) 총리 앞으로 파룬궁을 탄압하지 말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홍콩의 인권단체가 밝혔다. 중국인권민주운동정보센터는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

庄)시 수련자 1만3천742명이 서명한 이 탄원서가 스자좡시 불만 처리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인권단체는 "탄원서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최근의 단속과 탄압에 항의하는 한편, 중앙당국이 파룬궁의 공개적 수련과 창시자 리홍즈(李洪志) 저작의 합법적인 출판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동아 99.6.26)

### 중국 미신 넘친다.

#### 처녀 시신 훔쳐 판매

최근 중국은 몇 년 사이에 미신이 급속히 고개를 들어 일부 당 간부들까지 미신을 믿고 있다고 한다. 6월초 산시(山西)성 공안당국은 허진(河津)시 일대에서 무덤 120여 개를 파헤쳐 유골을 훔친 40대 남자를 체포했다. 또한 2월에는

산시(陝西)성 우치(吳旗)현에서 처녀 시신을 전문적으로 훔쳐 팔아온 일당이 구속됐다. 산시성 일대에서는 죽은 처녀 총각들을 영혼결혼시키는 풍습 때문에 시신 도굴이 빈발해 왔다는 것. 시신은 1구에 7천 위안(91만원 상당)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 99.6.22)

### 정치·군사·외교

**개혁기수 쟁칭홍 사정 갈들었다**  
중국에서도 당·정 관계에 대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했다.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오른팔인 쟁칭홍(曾慶紅) 당 중앙조직부장이 최근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개혁의 완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난 3월 중순 중앙조직부장에 취임하면서 당·정·군의 인사권을 장악한 실세답게 마침내 개혁 추진의 전면에 본격 나섰다. 쟁 부장 나름대로 계산된 고도의 전략이 있다. 그것은 요즘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의 언론에 연일 등장하는 '삼계(三戒)와 '삼강(三講)' 운동의 실천 압박을 통한 당·정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 정풍 노력이다. (문화 99.6.19)

### 사법부 직원

#### 전원 재교육 후 채용시험

중국 사법부는 50만여 명에 이르는 소속 직원 전원을 법과 대학

에 보내 재교육시킨 뒤 채용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가오창리(高昌禮) 사법부장이 밝혔다. 가오 부장은 차이나 데일리(중국일보)와의 회견에서 "사법부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험을 통과한 뒤 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소속 직원 전원을 앞으로 3년 동안 법과 및 정치학과 대학에 보내 재교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법이 제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부적격자들이 사법부에 채용됐었다"며 "자질이 부족한 관리들은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FP연합 99.6.22)

### [12월 마카오 반환]-

#### 중국인 90% 환영 분위기

마카오는 442년 간의 포르투갈 지배에서 벗어나 12월 20일 중국에 반환된다. 반환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치안확보를 위해 중국 경찰이 들어왔으며 지난달에는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맡게 될 초대 행정장관도 선출됐다. 영국이 홍콩 반환 협상 당시 정치적 자유 보장 등으로 중국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것과 달리, 포르투갈은 화해와 화합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중국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주민 반응도 홍콩반환 때와 다르다. 홍콩인들은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이라고 주장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는데, 마카오 주민들은 중국 귀속을 당연한 것

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동아 99.6.25)

### 내년 봄 유인우주선 발사

중국이 빠르면 내년 봄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전망이다. 중국이 발사에 성공할 경우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유인우주선을 띄운 국가가 된다. 중국은 발사, 궤도비행, 무사귀환에 이르기까지 유인우주선 발사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과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USA 투데이는 중국이 건국 50주년인 올 가을 1단계로 무인 우주선을 발사한 뒤 내년 봄에 유인우주선을 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연합 99.6.28)

### 공산당원 6,100만 명

인구의 5%인 중국 공산당 당원이 98년 말 현재 6,100만 명에 달했다고 인민일보가 당 조직부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전체인구의 5.1%에 해당하는 숫자다. 당원 중 농어민과 근로자가 전체의 48.8%인 3,017만 명에 달하고, 나머지는 전문기술인력(788만 명), 기관간부(557만 명), 사업-기업체 관리요원(638만 명) 등이다. 학력별로는 석사 이상이 31만 명(0.5%), 전문대학 이상이 1,102만 명(17.8%)이다. 또 이중 여성당원은 1,029만 명(16.6%)이다. 당의 기층조직은 350만 개이며, 이중 기층 당위원회가 16만

개, 총지부가 18만 개, 당지부가 316만 개라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조선 99.6.28)

### [중·일] WTO 가입협상 타결

중국과 일본은 7월 9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한 쌍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일본은 서방선진 7개국(G7) 가운데 첫 번째로 중국의 WTO 가입을 공식 승인한 국가가 됐다.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서비스 부문의 쌍무 협상에서 만족스런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히고 중국의 WTO 가입은 양국의 공동이익이며 모든 WTO 회원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국은 지난 97년 상품 교역에 관한 틀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합의로 모든 쌍무 협상을 실질적으로 끝냈다.”고 밝혔다.

(연합 99.7.9)

**장쩌민, 후계자로 후진타오 시사**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후진타오(胡錦濤) 부주석을 후계자로 지명할 뜻을 내비쳤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장 주석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차세대를 이끌 지도자를 거론하면서 “후 부주석은 나보다 16세나 적다.”고 말해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주석은

“중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주석은 임기 5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 총서기직은 규정이 불명확해 70세가 넘으면 퇴임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후 부주석 이야기를 꺼냈다. 장 주석의 국가주석 임기는 200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때, 당총서기직 임기는 16차 당대회가 열리는 2002년에 만료된다.

(동아 99.7.11)

### 경제

[中] 혼례비 증가 '20년 사이 48배로' 결혼에도 '자본주의 물질'



중국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들이는 제반 비용이 20년 사이 4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자본주의'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생활시보(生活時報)가 주최한 '개혁 20년 텐진(天津) 청년의 결혼소비 변천'이란 주제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8년의 경우 결혼 총비용은 평균 1천16위안(元.1위안은 약 1백30원)이었으나 99년 초 결혼자의 평균 총비용은 5만1천38위안(元)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개혁 개방 20년 동안 중국인들의 의식 변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경향 99.6.24)

### 홍콩, 7개월째 물가 하락

지난 5월 홍콩의 디플레는 소비자 물가가 연 7개월째 하락한 가운데 심화됐다고 정부 통계처가 발표했다. 정부 통계처는 소비자 물가가 연간 기준으로 지난 4월 3.8% 하락한데 이어 5월에는 4.0% 떨어졌다고 밝혔다. 올 들어 5개월 동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하락했다.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월의 소비자 물가 하락이 비용과 가격의 지속적인 하향 조정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물가 압력 완화가 광범위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 반영됐다고 밝히고 소매시장에서 가격 할인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99.6.24)

### 만성적 식량부족 탈피

중국은 지난 4년간 계속된 풍작으로 식량부족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인구국 중국의 식량 조달에 대한 국제 식량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다.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는 최근 곡물판매제도 개혁을 위한 한 회의에서 “중국이 지난 4년 간의 풍작으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소하고 식량 수급균형을 이룩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중국당국이 식량 ‘잉여’를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중국은 지난 84년과 90년 ‘공급초과’를 기록한 바 있으나 곡물 판매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금과 달리 당시(84, 90년)에는 판매제도가 빈약해 공급 초과가 발생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합 99.6.28)



**韓·中·日 정상회담,  
내년 봄 개최 검토**

한국·중국·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경제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3국 정상회담을 내년 봄 일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신문들이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도 규슈(九州) 미야자키(宮崎)에서 연설, 내년 7월 일본 오키나와(沖縄)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앞서 5월

이나 6월 경 새로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 99.7.11)

**중국 경제 여전히 문제에 직면**

금년 상반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7.6%를 기록했지만 수출감소, 외국인 투자 감소, 소비부진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경제분석가들이 지적했다. 국가통계국의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3조 6천200만 위안(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상승했다고 밝히고 “이는 금년 전체 성장목표(7%)보다 0.6%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99.7.19)

**사회**

**중국 인구 올해 말  
12억 6천 만 명 예산**



중국 인구는 올해 1천1백만 명 이상 증가해 연말에는 12억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2000년까지 인구를 13억 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신화통신은 양쿠이

푸 국가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이 “현재 진행되는 상항으로 볼 때 이같은 인구억제 목표가 달성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중국 인구는 지난 98년 1천184만명(0.95%) 증가해 12억 4천8백만 명에 달했다. 중국 인구가 연간 1% 이내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7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양 부주임은 덧붙였다. (연합 99.6.25)

**날로 심해지는 중국의 환경오염**



중국의 환경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금 상태로 환경파괴가 지속될 경우 중국 자체는 물론이고 인류 전체가 최악의 환경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땅 덩어리가 워낙 크고 거기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이 워낙 엄청난 규모로 나타나고 있어 전 지구촌 차원에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통계수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 총생산의 3.7%가 매년 환경오염으로 사라지고, 그 같은 피해

는 98년 한 해 만도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40% 정도인 2,300억 위안(약 30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 99.6.28)

### 인터넷 인구 연 60%씩 증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1998년 210만에서 금년에는 670만 이상으로 늘어나고 2003년에는 3천3백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Washington, D.C.에 있는 시장조사 회사 <The Strategis Group>과 중국의 <BDA China Ltd>가 공동 발행한 보고서 "The Internet in China"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의 인터넷 인구 증가율은 연 평균 약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BDA China Ltd>의 파트너 던컨 클락 씨는 중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터넷 시장으로 부상했고,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뉴스 99.6.29)

### 집중호우와

#### 우박 등으로 110여 명 사망

중국 중부지역을 휩쓴 집중호우와 우박, 산사태 등으로 중국 전역에서 모두 110여 명이 숨진 것

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여름 두 달 동안 계속된 폭우로 남서부 쓰촨(四川)성에서는 49명이 숨졌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후베이(湖北)성에서도 27명 이상이 토사에 묻혀 사망했다고 베이징(北京)만보가 보도했다. 또 폭우가 강타한 후베이성 등지에서 2명이 숨졌다는 당초 보도와 달리 북서부 칭하이(青海) 지방에서도 28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동아 99.7.2)



### 후난성서 열차 탈선...

#### 8명 사망, 61명 부상

중국 남부 후난(湖南)성에서 최근 1천여 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가 탈선, 8명이 숨지고 61명이다. 사고 열차는 이웃 후베이(湖北)성 우창(武昌)시에서 광둥(廣東)성 잔장(長江)으로 가던 중 형양(衡陽)시 부근에서 갑자기 탈선, 전체 18량 중 12량이 탈선하고 그중 4량이 뒤집어졌다. 한편 당국은 테러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99.7.10)

### 에이즈 급속 확산...

#### 내년 100만 명 이상 감염

중국 내 에이즈 감염자 수는 지난해 말 12,639명으로 공식 집계됐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30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문화보는 베이징 의학전문가들의 보고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8,000만~1억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유동인구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윈난(雲南), 허난(河南), 신장(新疆), 허베이(河北), 광둥(廣東)과 쓰촨(四川)성 순이며, 최근 들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 99.7.11)

### 인권

#### 건국 50주년 앞두고

#### 반체제 인사들 검거 나서

중국 공안당국이 오는 10월 1일 건국 5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반체제 및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2차 예비 검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6·4 천안문(天安門) 사태 10주년을 앞둔 1차 예비 검속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올렸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곧 2차 검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산당은 이미 구금된 반체제 인사를 계속 구금하는 한편, 혐의가 있는 반체제 인사를 상대로 강력한 예비검속을 실시하고 격리수용할 방침이어서 반체제 구속인사는 급증할 전망이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 99.6.23)

#### 하루에 마약사범 65명 처형

중국은 유엔의 반(反)마약 기념일을 하루 앞둔 6월 25일 하루 동안 최소한 65명의 마약밀매 사범을 총살형에 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최근 며칠간 최소 92명의 마약사범이 처형되거나 사형이 선고됐으며, 이 가운데 28명은 광저우(廣州)에서 7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군중집회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 이날 처형됐다고 밝혔다. 광저우에서 사형이 집행된 마약사범들은 히로뽕 '아이스'와 헤로인 등을 밀매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산시(山西)성에서 12명, 푸젠(福建)성에서 14명, 상하이(上海)에서 3명, 후난(湖南)성에서 8명이 이날 처형됐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AP연합 99.6.26)

#### 한중관계

#### [중국 지방공무원]-

#### 국내 지자체 연수근무

중국 지방공무원 9명이 6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 간 국내 9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돼

근무한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 방중 때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토대로 중국 헤이룽장성 양홍펑(32)씨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것을 비롯, 9명의 중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 자치단체에서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선 99.6.20)

#### 연변일보 8월부터 서울서 본다

중국 동북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지역의 조선족 신문인 연변일보가 한·중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변일보 한국판'을 서울에서 8월부터 주간으로 발행한다. 현지 발행부수 10만 여 부인 연변일보는 중국 내 조선족 2백여 만 명을 대상으로 한글로 발행되는 신문 중 유일한 중국공산당 기관지. 연변일보 한국판은 오는 8·15 광복절부터 일반 신문판형인 대판크기로 매주 20면 짜리 신문 3만 부를 발행,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의 보따리상이나 기업인, 국내 조선족 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문화 99.6.29)

#### 중국 산둥(山東)에

#### '제2의 구로공단' 생긴다

중국에 10만평 규모의 '제2의 구로공단'이 생긴다. 서울 구로구(박원철 구청장)는 30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산둥(山東)성 평두(平度)시 인민정부와 시유지 10만 평을 구로구 소재 기

업들의 전용공단으로 5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작 협정서를 곧 체결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두시는 이미 한국기업들의 입주를 위해 전력, 급수, 통신, 도로 등 기초 시설을 이미 완비한 상태이며 투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권리침해 방지 보장, 세금 감면 등 외국투자기업에 부여하는 우대 혜택을 약속했다. (연합 99.6.30)

#### [한·중 주거문화전]-

#### 9월 중국 장인시에서 개최

한국의 건축산업 및 문화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대형 전시회가 9월 중국에서 열린다.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장쑤(江蘇)성 장인(江陰)시 금융국제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한·중 주거문화교류전(집행위원장 이환의)」은 한국건축산업과 문화를 한꺼번에 해외에 소개하는 국내 최초의 건축산업 박람회이다. 이 행사에서는 건축자재·장비·설비 등 관련 기업 및 제품 소개 뿐 아니라 건축작품전·건축영상전·건축문화의 해 소개와 전통건축전·전통예술 공연 등 건축문화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한국 99.7.20)

# 가난도 우리 신앙을 막진 못해 - 광시(廣西)성 교회

광시성 북부 허츠(河池)시의 환장(環江)현은 여행가들의 구미를 잡아끌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다. 석회암으로 구성된 산들이 펼쳐 내는 그림 같은 장관은, 천하제일의 산수로 꼽는 꾸이린(桂林)의 풍경을 훨씬 능가한다. 수정같이 맑은 시내,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환장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현의 하나로 꼽히고도 있다.

허츠시에서 현(縣)으로 가는 길은 대략 80~90km 정도 되는데, 보통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는 것은 산허리를 감아 도는 거친 산길 이어서 조금만 비가 내려도 아무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석자 이상 평지가 없으며, 삼일 이상 맑은 날이 없다”고 표현한다. 주로 좡(壯)족과 마오난(毛南)족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산간 마을은 걸어서만 갈 수 있다.

현(縣) 통일전선사업부 종교담당 책임자는 환장현에는 842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기독교인 자신들은 오히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를 것이라 한다. 세 군데의 예배당과 가정 처소가 17곳에 있는데, 서로 오고가려면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제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리고 1/3 이상의 교인들이 문맹이다.

환장에는 71살의 깊이 주름진 얼굴에 유난히도 온화한 미소가 빛나는 안수 받은 탄(譚)장로님이 계신다. 우리는 현에서 약 4시간 동안 비포장도로를 달린 끝에 시아난(下南) 촌에서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또한 매주 설교하시는 이곳 예배당까지 산골에서 꼬박 2시간을 걸어 오신다. 탄 장로님은 자신이 아직도 산간 경사지에 있는 본인 소유의 땅을 경작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데 대해 무척 감사하였다. 장로님은 1992년, 꾸이린(桂林)에서 평신도훈련학교를 졸업하신 후 안수를 받았다. 17살에 복음을 받아들인 후, 모든 식구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였는데, 지금 장남은 그의 보조사역자로 봉사하고 있고, 딸들 또한 식구들과 함께 80여 명 되는 신도들 중에서 가장 열성적인 신도들이다. 그렇지만 현에 있는 다른 교회와 처소들의 교인들은 장로님을 거의 만날 수가 없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그들을 방문한다.

“더 이상은 불가능해요, 너무나 많은 날들

이 걸리는 데다, 저는 아직 제 밭을 농사 지어야 하거든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다.

환장의 교회들은 대개 주일 정오에 시작하고 예배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집까지 돌아가자면 서너시간이 걸리고 적어도 해가지기 전까지는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환장의 교인들도 매우 가난하다. “나는 성경을 사랑해요.”라고 한 할머니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들이 할머니에게 성경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할머니는 입고 있는 바지와 저고리를 가리키며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어떻게 내 성경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라고 반문한다.

시아난의 교회는 현에 있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매우 단순한 건물인데 그나마 마카오 교회의 지원으로 세운 것이다.

밍룬(明倫)촌에서는 교회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건축비가 바닥나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황메이푸(黃美富)라는 중년여성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3,000위안(元)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라며 안타까워하였다.

환장 사람들의 1년 평균소득은 480 위안(元)이다. 이것은 그들이 아주 기초적인 생필품을 구하고 나면 전혀 남는 것이 없는 정도이다.

### 전업사역자 부족의 어려움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광서 좡(壯)족 자치구는 1949년 약 7,000명의 기독교인에서 오늘날 8만~9만 명으로 성장한 곳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농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도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의 수는 크게 늘지



훈련반의 학생들은 교회당의 부족이 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고정적인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교회등록신청이 계속하여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목재를 모아놓은 중국의 어느 교회).

않았다. 광시성 기독교협회 회장인 디모데 위(玉耀昆) 목사에 의하면 현재 광시성에는 아직 22명의 안수 받은 목사만이 있고 그나마 60대 이하는 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 목회자 전원은 현재 도시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교회들은 전임사역자들에게 사례비를 줄 만한 여유가 없으며, 많은 처소교회와 가정집교회에는 약간의 교육이라도 받은 지도자가 한 명도 없다. 평신도 지도자 훈련반이 성, 시, 현 기독교협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설되어 그나마 사역자 부족현상을 해소할 평신도지도자를 길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처소들은 단기간의 지도자훈련을 받은 사람조차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광시성 북부에 있는 허츠시는 매우 넓은 산간지역인데 한 명의 목사도 없다. 포장도 안된 산길을 구비구비 돌아서 가야하는 길은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려 다른 지역의 목사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극히 희귀한 경우이다.

“지난 50여 년간 이 지역 산간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구경을 못했습니다.”라며 광시성에 있는 4명의 60대 이하의 젊은 목사 중 한 명인 리형첸(李恒權)목사가 알려준

다. 그는 이러한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을 자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안수례 조차 잘 행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60명의 젊은 신학교 졸업생들이 광시성 각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안수를 받는 기본조건의 하나인 3년 간의 교회 봉사 기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 평신도 훈련반

오늘 우리들은 광서 좡족자치구의 성도인 난닝(南寧)의 훈련반을 찾았다. 자치구의 전역에서 모여든 학생들은 절반이 한족(漢族)이고 나머지 절반은 좡족이다. 첫눈에 보아도 뻑뻑히 들어찬 44명의 학생들에게서 공통점은 거의 없어 보였다. 푸마 티셔츠를 입은 활동적인 여학생 옆에 마오쩌둥(毛澤東) 초상이 찍힌 빛바랜 상의를 입은 풍채 좋은 남학생이 앉아 있었다. 나이트 농민 여성은 책벌레처럼 생긴 젊은 남학생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교실구석에는 갓 침대를 넘긴 듯한 여학생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심각한 얼굴을 한 채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나이 지긋한 중년부인들도 보였다.

아마 현재 중국 전역에서 매년 각급 기독교 협회의 주관 하에 열리는 수백 개의 평신도지도자훈련반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다. 이것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목회자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의 중국 각지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지도력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다음 세기 중국 교회의 중요한 대부분의 과제들은 이들에게 맡겨질 것이다.

오늘 아침, 이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여행을 배우고 있다. 교사는 난닝의 연로하신 목사님으로, 한 절 한 절 짚어가며 다소 딱딱하게 성경내용을 설명하시고 학생

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쓰고 있었다. 교재가 거의 없는 상태인지라 선생님의 말씀은 모두가 몇 년 후 그들의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이 될 보물과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받아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요한복음, 고린도서와 로마서, 모세오경과 시편을 주로 공부한다. 전도훈련, 교리문답, 찬송가, 교회행정에 대한 것도 배운다.

학생들의 하루는 6시 30분의 새벽기도로 시작되고 저녁 7시 30분의 저녁기도회로 마감한다. 이들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조건 아래서 생활한다. 남남만 분리된 채 2개의 방에서 층침대 속에서 생활한다. 아주 간단한 음식들이 식당에서 제공된다. 이 식당은 실제로 아무런 설비도 없는데 야간에는 학생들이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러기에는 주어진 2개월의 시간은 너무나 짧아 생활상의 불편을 느낄 여유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농민들이다. 그러므로 추수기에 그들이 논밭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른 신도들이 저의 가족을 도와서 추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도 또한 도움이 되니까 그들은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였답니다.” 한 중년여성이 이곳의 상황을 설명하여 주었다. 일부 학생들은 스스로 결정하여 이곳에 왔고, 대부분은 소속 교회에서 보내서 왔다. 한 젊은 여성은 “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라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녀는 스스로 결정해서 온 것이다.

학비를 낮추기 위해서 광시성 기독교협회

는 학생들로부터 하루 6위안 정도의 식비만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너무도 가난하기 때문에 2개월 간의 학비 400 위안을 들여 한 사람을 훈련반에 보내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성 기독교협회에서 특별지원을 해주고 있다(참고로 광시성 일부 농촌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일인당 일년 소득이 500위안에도 못미치고 있다).

학생들의 반수 이상은 개인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교회에서 왔다. 아주 외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아주 간단한 예배처소를 마련할 1만 위안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것이 일부 현(縣)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관리들이 교회등록규정을 들어 이들 가정집회들이 예배드릴 '고정적인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등록신청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훈련반의 학생들은 솔직하게 교회당의 부족이 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실토하였다.

그들의 교회와 관련하여 볼 때 학생들은 서로가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다. 리우저우(流州) 시에는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의 신도가 모일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교회들은 아주 조그마하고 신도들도 멀리 외딴 곳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산에서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 왕래하기도 힘든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일부 학생들이 밝히기를, 이런 신도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집회나 처소를 가는 것도 너무도 어려워 버스를 타고 예닐곱 시간을 가야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한다.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돈 또한 문제예요. 매주 버스비용 또한 대단한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랍니다." 한 중년 농민여성은 이렇게 가난이 빛은 불편을 토로하였다(중국의 버스요금은 대략 우리 돈 100원 가량 된다).

학생들의 2/3가량은 일대(一代)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은 친구들이나 직장동료, 혹은 급우들에게서 복음을 전해 받았다. 한 여성은 홍콩으로부터 방송되는 기독교 방송을 듣고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학생들은 광시성에서의 전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한결 같이 동의하였다. 난닝 근처 한 현에서 온 젊은 여성은 "제가 사는 곳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돈 버는 데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가난한 지역, 혹은 외진 지역에서는 그 이유가 전혀 다르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많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신적인 생각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광시성 북부의 농촌에서 온 여성의 이야기이다. 학생들은 전도는 동년배 사이에서 가장 이루어지기 쉽다고 입을 모았다. "교회에 젊은 사역자가 오게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허후현에서 온 한 젊은이의 말이다.

평신도지도자훈련반은 중국의 신학교육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광시성 기독교협회 회장인 디모데 위(玉耀昆) 목사에 의하면, 광시성에는 9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나, 안수 받은 목사는 겨우 22명 밖에 없고 그나마 4명 만이 60대 이하의 젊은(?) 목사들이다.

이 성에 50km의 거리도 한나절을 가야 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들 지역의 교회들은 너무도 가난하여 전업 사역자를 모실 수가 없다고 한다.

결국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의 헌신이 없다면 이 교회들은, 아니 중국 교회는 소생할 수가 없을 것이다.

# 독립가정교회의 신학사상(II)

주피득



중국의 광대한 지역과 많은 지역적 다양성을 어떻게 일반화 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국 가정교회의 과제이다 (사진은 가정예배 규모에 가까운 중국의 어느 가정교회).

중국 독립가정교회의 신학사상을 서술하기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적어도 두 가지 난점이 있는데 첫째,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지역과 많은 지역적 다양성을 가진 중국 가정교회 신학사상을 쉽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더 심각한 난점은 중국 독립가정교회 자체의 신학적 체계를 발견하는 일이 그것이다.

중국 외부세계의 교회, 특히 서구교회의 중국 교회와 중국 가정교회들에 관한 보편적인 결론은 중국 교회에는 신학적인 성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램(Lam)은 “중국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은 세속적 지식인들이 들을 수 있는 합리적 기독교의 부재”(1983:25)라 표현하기도 하고, 엘우드(D. Elwood)는 “중국의 신학은 거의 모두 해석적이라기 보다는 경건적(교백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유명한 신-공자사상 학자인 왕티스트 찬(Wing-tsit Chan)은 “기독교가 중국의 지식인들을 접촉하는 데 실패하는 한 중국인의 신경 중심에 도달하는 것은 실패한다.”(1975:8-9)는 말로 그러한 현상을 묘사한다.

위의 첫 번째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열거하면: (1)중국 대륙을 오랫동안 지배해 온 그들의 언어와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거대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문화적 통일성을 보여준다는 사실, (2)그들 역사에서 대부분 각기 하나의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다는 사실, (3)중국 독립가정교회 신학 사상에 대한 조사를 어느 소수민족이 아니라 한족에 대한 연구로 제한한다는 사실, (4)이전의 각기 다양한 배경들 속에서 받았던 것 외에는 외부의 가르침이나 자료들이 비교적 전무하고, 이와 함께 각종 핍박이나 억압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 내부에서 각 지역 성도들의 사상을 서로 나누고 발전시킨 많은 순회 복음전도자들이나 성경교사들의 활동이 요구되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위의 두 번째 난점은 그 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문자답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난점으로 볼 수 없다. (1)신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서방신학과 같은 식의 합리적인 학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2) 자신들의 신앙생활과 가치관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그것이 비록 독특하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기독교가 신앙생활의 실천의 모습으로서 개발될 수는 없는가하는 질문, (3) 신학연구 혹은 신학활동이라는 것이 그 어떤 특별한 지위나 문어적인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들만이 신학적 사고의 전부라고는 볼 수 없다. 깊이 있는 문어적 문화(a strong written cultural context) 전통이 없는 사회에서는 이런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오랜 문어적 전통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것은 대부분

소수의 식자층에 의한 묘사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더욱이 현대 중국 대륙의 문맹률(비록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을 생각해보면 구어적 사회적 성격이 아주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기된 난점과 그 해결책을 고려하면서 본고에서는 가정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 경험을 통한 그들의 신학사상과, 현재도 존재하는 공산당 이전의 다양한 교파적 신학 사상, 주요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사상, 전통적 신학범주에 따른 신학사상 등 이렇게 4가지 관점 혹은 영역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A. 가정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한 신학사상

중국 가정교회, 특히 농촌이나 전통적인 가정교회들은 불속같은 과거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 속에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과 신학적 체계를 발견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3세계의 '본국어 신학(Vernacular theologies)의 실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윌리엄 다이네스(William Dymess)의 연구내용(1992:42~63)을 중심으로 중국 가정교회 신학사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장(A)의 논의는 근래 중국의 도시에서 형성된 가정교회들보다는, 농촌이나 산간지역 가정교회와 좀더 전통적인 성격을 띤 도시교회들(특히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공산당으로부터 갖은 핍박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도해오던 그런 가정교회들)과 연관된 상황들을 주로 염두에 둔 것임을 밝힌다.

### 1.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기독교 초기 신학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격이

중국 가정교회들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덕과 절제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와의 동일화를 의미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반영하듯 왕밍따오(王明道)는 “일반적 영적 성숙의 수준이 점점 낮

은 예수를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Chao, 1988:58).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여졌는데 그것은 오직 고난의 불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 (Wang, 1981:71)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들의 간증과 찬양의 주요 주제이며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특별히 동일화 되도록 이끈다.



중국 가정교회는 과거의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사진은 중국 어느 가정교회의 주일학교 모습).

이러한 주제 즉, ‘실제 생활에서 겪는 주를 위한 고난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도덕적 삶’의 평가를 위해 적어도 두 가지 점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의 주제는 그들의 현재 상황을

아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덕과 능력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강한 결심이 있는 사람.”(1981:49)이라고 말한다. ‘예수를 따르다’는 말은 보통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하게 의존하면서 성결과 경건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도덕적 삶에 대한 강조는 공자사상과는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공자사상과 완전히 다른 구조 즉,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삶과 고난의 체계에 대한 강조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은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 특정한 양상을 띄는 것이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것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과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경시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사실만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그들의 생활과 예배의 중심에서 차지하고 있는 양식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효용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동일화이다. 둘째는 다른 욕망에 대한 선택과 대상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일종의 수단 즉, 중국적인 자기성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신앙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성도들은 수감 중에도 ‘나는 참으로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가?’라고 자문하고 자성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마치 불교신도들이 욕망을 제거하기 위한 것과도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 그

리스도에게 자신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자기훈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평가에서 두 번째로 언급해야 될 것은 어떤 종류의 정치적 참여도 거절하는 그들의 헌신에 따른 배타성이다. 그것은 자유주의 사상이나 보수주의 사상이나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들의 신학체계의 상황적 성격이 명확히 나타난다. 사람들은 종종 중국 기독교는 문화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는 그리스천의 삶을 나타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는 심오하고도 주저함 없이 헌신하는 정신을 가진 그들을 세상이 쉬지 않고 공격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자연스런 결론으로 인도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한 이해일 것이다.

## 2. 예수를 증거함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한다는 뜻으로서 기적 즉, 어떤 특정한 방식이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간섭하신 일이나 특별히 구원을 체험한 일 등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을 때 “그녀는 정말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된다. 간증 가운데 두드러진 주제는 고난이다. 왜냐하면 고난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이별을 의미하든, 수감을 의미하든, 강한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하든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교회들 가운데 행해지는 중요한 복음전도의 형태이다. 가정집회의 예배도 종종 ‘간증회

(witness meetings)’ 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통 정식 설교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순회전도자들이 방문하는 일도 아주 드물기 때문에 ‘설교’ 라는 것은 성도들의 간증과 나누는 것 (sharing) 이외엔 아무 것도 아니다(Chao, 1988:116). 그러므로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누가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든지, 출감하였다든지 하는 등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지에 대해 서로 다른 간증들을 하며 서로를 격려한다.

사도행전에서처럼 이러한 간증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능력 있는 수단이 되어왔다. 더욱이 자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 그 자체이기도 하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지도자에게 한 회중이 갑자기 집회에서 간증하도록 부탁했을 때는 그들에게 신학강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중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해 가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임을 그는 안다.

오늘날 중국 교회에서는 자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충성심의 표시와 관련된 정치적 진술로 이해되고 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라에 대한 자신의 충성의 정도를 제한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행위는 비록 잘 정리된 형태로 표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들의 신학적 실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간증이란 그들의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중심적 상징이 된다. 또한 간증은 자기들의 신앙

에 대한 신학적 진술이고 사회적 진술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진술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실재라는 것은 비록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지 그것만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과 관련된 간증으로부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고난받는 환경의 변화일 수 있다. 실제로 성경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선하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

### 3. 기도

가정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간증에 비중을 두는 것만큼 기도에 비중을 둔다. 그들의 예배나 모임들은 어떤 때는 '간증회' 또는 '기도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존의 태도가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 그들은 문을 닫고 기도한다. 한 공산당 간부가 계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갖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성도들은 그 상황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이것으로 인해 공산당 간부는 반신 불수가 되었으며, 간부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고 한다. 어떤 곳에서는 매주일마다 한 가정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고는 집으로 돌아간다. 설교자도, 성경도, 찬송가도 없다. 그 동네에 한 사람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Chao, 1988:111).

간증을 통해 표현되는 기도의 결과들은 중

중 전도의 중요한 수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병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며 그들은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즉시로 도우며 불신자들은 얼마후 신자가 된다. 기도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항상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중국의 독립가정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징적 체계에서만 기도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정치적 압박의 결과이기도 하다.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은 결코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필요와 부족함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다. 다른 모든 자원이 막혀있을 때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인식은 특별하다. 또 기독교문서나 성경을 구하기 어려울 때 그들은 더 자주 기도한다.

### 4. 성경 읽기와 연구

중국 가정교회는,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책임'을 확신한다. 성경 외에는 입을 책들이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왔다. 그 동안 갖은 핍박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대한 상징적인 중요성은 참으로 지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다른 성도들과의 모임에 동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은 성격책을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능력의 상징 이상이었다.

### 5. 성도들의 협력과 후원

중국의 가정교회운동에 있어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여러 지역의 믿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따뜻한 성도의 교제이다. 선교사들이 강제 추방되기 이전의 중국에는 각기 다른 많은 선교단체들과 교회

중국의 가정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들이 존재했었다. 이것으로 볼 때 공산당시대 이전의 중국 교회는 '루터교 지역', '감리교 지역', '장로교 지역', '침례교 지역' 등으로 불렸다. 실제로 각 지역들이 그러한 성격들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교회운동의 시작으로 이러한 모습은 점차 변하게 되었다. 물론 요즘도 각 지역의 다양성과 교리적인 독특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가정교회의 성도들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떤 성도는 표현하기를 "각 지역의 많은 가정교회 그룹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교리적인 독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적인 차이점들은 그전처럼 그들을 서로 갈라놓지 않으며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Chao, 1988:57) 한다. 따라서 가정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다른 지역의 성도들과 실제적인 연합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상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교제는 '정치적' (?)인 성격이 내재되어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의 연합을 분명히 거부하게 만든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왕밍따오 등 지도자들의 교훈이다(Chao, 1988:17).

물론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재의 고난을, '슬픔과 눈물이 더 이상 없는 참된 고향에 이르는 것' 과 연결시킨다.

## 6. 결론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중국의 독립가정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완전하게 묘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 표현한 몇몇 요소들은 신앙생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신학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살아있는 구조 혹은 틀의 각도에서의 신학적인 사고는 제기된 각종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위에 언급한 모든 요소들은 신학적인 사고와 서로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들의 간증과 기도를 신학적인 면에서 고찰해 볼 때 기도만 논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

# 윈난성의 소수민족(IX) 징포족(景頗族)

허중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징포족은 손님이 오면 주인이 차나 담배, 술을 주는데, 손님은 반드시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

**인구:** 123,100명(1996년 통계)

**분포:** 윈난성(云南省)의 서부 더홍다이족·징포족자치주(德宏傣族·景頗族自治州; 루시(潞西), 잉장(盈江), 룡촨(陇川), 양허현(梁河縣), 두안리시(端麗市))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누장리쑤족자치주(怒江傈僳族自治州; 피엔마(片馬), 꾸랑(古浪), 후수이(護水), 텡충(騰衝), 란창현(瀾滄縣)) 등에도 일부 거주하고 있다. 국외로는 미얀마(緬甸)의 북부 킨방(克欽邦) 등에도 일부가 분포하고 있다.

**언어:** 징포어(語)는 한장어계(漢藏語系) 장면어족(藏緬語族) 경파어지(景頗語支)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3만 정도가 징포어를, 7만

정도는 짜이와(載瓦), 랑쑤(浪速), 보라(波拉) 등 각 지계(支系)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 짜이와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문자:** 징포문자(文)와 짜이와 문자(文) 등 두 종류의 문자가 있다. 징포문자는 1876년 미국 선교사 추샹(Cushang)에 의해 미얀마(緬甸)에서 처음 창제되기 시작하여, 1892년에 미국 선교사 한슨(O. Hanson)에 의해 로마문자 병음표기 방식의 교재가, 1895년에는 《영경사전(英景詞典)》이 만들어졌다. 이후 1915년 영국인 램(Im, ram)에 의해 만들어진 학습교재가 사용되어지면서 징포족 지역에 전파 사용되어왔다. 짜이와 문자는 징포족 지계 가운데 비교적 큰 짜이와족이 사용하는 문자로서, 1889년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창조되어 널리

사용되어왔다. 1957년에 중국 정부에 의해 새로운 징포문자가 만들어져 사용되어지고 있다.

**민족역사 :** 징포족은 고대 스창족(氐羌族)에 선민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당(唐)나라 때에 시작하여 윈난 진샤오장(金沙江)과 루장지역으로 이동하면서, 17C에 이르러 지금의 윈난 더홍 지역과 미안마 북부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징포족은 대부분 비교적 높은 산 위에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산토우(山頭)'라고 불리웠고, '따산(大山)', '샤오산(小山)', '랑쑤(浪速)', '차산(茶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져 왔다. 건국 이후 징포족으로 통일되어 부르게 되었다. 징포, 짜이와, 라치(喇期), 랑어(浪莪), 부라(布拉) 등 5개의 지계가 있으며 이중에 짜이와 지계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 대부분 해발이 높은 아열대 산지에 거주하는 데, 이 지역은 땅이 비옥하여 다량의 농산물이 생산된다. 농사는 주로 논벼와 옥수수, 좁쌀, 수수 등을 재배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무나 커피, 차, 그리고 열대과일로 망과, 파초, 호두 등을 재배한다. 이밖에 천연자원인 광석(금, 은, 동, 철, 가스, 수정) 등도 이들의 거주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건축 :** 촌락은 주로 해발 1,900m~2,000m의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주택양식은 대부분 지붕은 초가로 되어 있으며 전체는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집안은 크게 위, 아래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위층은 사람이 거주하고, 아래층은 돼지나 닭 등 가축들이 산다. 일반적으로 긴 베란다를 가지고 있고, 문은 중앙이 아닌 끝부분에 만들어져 있다. 집안으로 들어가면 각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



술과 물로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는 징포족.

로가 있고, 이 통로를 통해 위층으로 올라간다. 위층에는 적게는 2~3개, 많게는 10개의 방들이 있다. 각 방 안에는 휘탕(火塘)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문은 있으나 창문은 없다.

**복장 :** 징포족의 복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검은색, 빨간색, 백색을 주로 사용하고, 은색과 기타 색깔을 가미한 옷을 입는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박하고, 명쾌하고 생동적이며, 열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함이다. 여자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검은색이나 백색 바탕에 옷깃이 짧은 상의에 옷깃이 없는 옷을, 하의는 꽃무늬나 모직으로 만든 빨간색 통치마를 입는다. 허리에는 검은색의 등나무로 만든 테나 꽃이 새겨진 대나무 테를 두른다. 그리고 어깨와 앞가슴 부분에는 크고 작은 많은 거포모양의 은색장식과 은화로 만든 단춧구멍 모양의 장식을 걸친다. 남자는 일반적으로 검은색과 백색 바탕의 옷깃이 짧은 상의에 하의는 폭이 넓은 긴 바지를,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머리에는 백색이나 빨간색, 검은색의 머리수건을 두른다. 징포족의 수를 놓는 기법과 방직기술은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며 아름답다. 특히 여자용 통치마의 꽃무늬만 해도 약 300종류에 이른다.



무나오제(目臙節)기간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징포족.

**음식 :** 주로 쌀과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술이나 대나무를 이용하여 익힌 밥을 먹는다.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며, 식사시에는 공기와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바자오(芭蕉)(파초-향초의 이름)잎으로 싸 밥을 일정하게 나누어 손으로 집어먹는다. 산에 흐르는 광천수와 술이 이들의 주요 음료이며, 특히 술을 좋아하여 집집마다 직접 술을 만들어 마신다. 이밖에 남녀 모두가 담배를 좋아한다.

**결혼 :** 징포족의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이다. 연애는 자유롭지만, 결혼시에는 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이다. 여자의 경우 처녀로 장성한 이후 부모가 딸에게 혼자 거주할 수 있는 단독 방 한 칸을 주며, 외부의 젊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연애할 수 있다. 이때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다. 결혼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이종사촌 간이나, 같은 성(姓)일 경우 결혼할 수 없으며, 비록 다른 성일 경우라도 만약 조상이 같으면 역시 결혼할 수 없다. 결혼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중매인을 통해 정식으로 배우자를 맞이하는 방법과

자유연애 결혼방식 등이 있다. 이밖에 약탈결혼(창혼: 槍婚) 방식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이고, 여자의 지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장례 :** 일반적으로 토장(土葬)을 행하나 특별한 경우 화장(火葬)과 천장(天葬)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가족들이 집 문 앞에서 징을 치며, 수차례 총을 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일찍 상갓집에 와서 장례에 필요한 음식들을 만든다. 장례식 당일에는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참가하여 “부군거(布滾戈-일종의 제사춤)를 행한다. 시신은 약 5일이나 6일 정도 집안에 두었다가 관에 집어넣는데, 관에 넣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시신을 씻기며 옷을 갈아 입히고, 시신 밑에는 남자의 경우 면모포를, 여자의 경우 통치마를 놓는다. 매장 전에 마을 주변의 장소를 구하고 계란으로 길흉의 점을 친다. 매장 이후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내는 의식을 행하며, 이때 제사를 주관하는 ‘동쎬(董薩)’를 불러 의식을 행한다. 뿐만 아니라 무덤 앞에서 소나 돼지를 죽이는 의식을 갖는다. 그리고 몇 개월이나 혹은 1~2년 뒤에 다시 영혼을 보내는 의식을 갖는데, 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장소에 들어간다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기 :** 징포족은 생산, 생활, 결혼, 종교부분 등 다방면에 많은 금기사항이 지켜지고 있다. 이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안으로 들어가는 양쪽에는 2개의 문이 있는데, 앞의 문은 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이고, 뒤쪽의 문은 ‘구이먼(鬼門)’이라고 해서 주인 외에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 이유는 손님이 허락 없이 구이먼을 이용했을 때, 귀신이 그 집에 해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 때

문이다. 만약 구이만을 이용할 경우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이용할 수 있다. 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집안으로 들어간 후 바로 신을 벗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역시 계속 서 있으면 안되고 앉아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마음대로 앉아서도 안 된다. 이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차나 담배, 술을 주는데, 손님은 반드시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좋아하지 않는다.

**주요절기 :** 징포족의 절기는 주로 생산노동 및 종교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 무나오제(目腦節, 정월15일)**

‘따휘티아오우(大伙跳舞)’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로서, 징포족의 절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중성 있는 절기이다. 춤과 노래를 부르는 일종의 경사스러운 활동인 이 절기는 집안의 부를 가져다 주고, 1년 농사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 이 밖에 장례식 때에도 이 의식을 행한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태양신이 무나오 춤을 출 때, 모든 새들이 참석하여 그 춤의 열정적이고 장대한 장면을 보고서 모두가 흥분을 하였다. 그래서 모든 새들이 태양신의 그 춤의 모양을 모방하여 자기네끼리 강 주변에서 이 행사를 가졌다. 이때 징포족의 조상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이 춤을 자기 민족에게 전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절기 당일에는 사람들 모두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참석한다. 남자는 금빛나는 긴

칼을 차고, 머리에는 백색 바탕의 일종의 깃발 모양과 같은 술장식을 한 수건을 두른다. 여자는 검은색 바탕의 짧은 홑 옷에 어깨와 가슴부분에 거품모양의 은색장식을 달고, 하의는 각종 모양으로 도안된 양모 통치마를 입는다. 일반적으로 3일 동안 이 행사가 진행된다.



무나오제 기간에 춤과 노래를 부르는 징포족은 이 활동이 집안의 부와 1년 농사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2) 춘제(春節, 음력 1월 1일)**

각 지역의 징포족 모두가 지키는 큰 절기 중의 하나이다. 춘제 전날에는 집집마다 닭이나 돼지, 그리고 술과 각종 음식 등을 준비하며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눈다. 첫째 날에는 마을을 떠나서는 안되며, 마을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한다. 당일이 되면, 새벽에 먼저 집집마다 우물이나 샘물가 주변에 모여 ‘신수이(新水)’ 활동을 한다. 이는 물을 몸에 바르거나 물을 마시는 활동으로, 병을 낫게 하거나 장수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이어 아침에는 마을 안의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새해 인사를 한다. 낮에는 젊은이들이 모여 총

쏘기 시합을 한다. 둘째 날에는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 총각들은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여 들판에 모여 함께 노래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때 처녀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총각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수를 놓은 손수건이나 장식품을 상대방에게 주어 자신의 마음을 표



많은 축하객들 앞에서 신방을 꾸미는 징포족의 결혼식 모습.

현한다. 셋째 날에는 사위의 집에 가서 친척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술과 고기 등을 선물로 준다.

(3) 신미제(新米節-매년 9월~10월은 추수계절) 매년 추수계절을 맞이하여 수확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다. 먼저 '츠차오미(吃炒米)' 활동을 하는데, 이는 곡식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집집마다 좋은 날을 택하여 마을의 친척들과 혹은 친구들을 불러 함께 밥을 볶아 먹으며 농사의 풍년을 소원한다. 행사 전날에는 젊은 여자들이 아직 익지 않은 푸른 곡식을 거두어 익힌 다음,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소금과 고춧가루, 말린 생선, 생강 등을 곁들여 볶음밥을 만든다. 당일이 되면, 주인은 먼저 말린 생선이나 말린 쥐(소나 돼지로도 사용함)를 사용하여 제사를 드리며, 귀신에게

사람과 가축, 그리고 곡식의 풍년을 위하여 소원을 빈다. 두 번째는, '츠신미(吃新米)'의 행사를 갖는다. 이것은 '츠차오미' 보다 더 장대한 활동의 하나로서, 곡식이 완전히 익었을 때 지키는 행사이다. 절기 당일에 사람들은 닭과 돼지를 잡아 친척과 친구들을 맞이하며, 처갓집에 새로 거둔 쌀과 고기, 술 등을 보낸다.

#### (4)치니엔제(新年節-매년 추수계절과 봄계절 전)

이 절기는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체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사람들은 한 해의 활동과 풍년을 위해 그리고 병과 재난이 없도록 기원한다. 이 활동은 '치니엔탕(祈年堂)'이라는 장소에서 거행하는데,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마을에서 이 건물을 임시적으로 세운다. 그 안에는 각종 오곡과 가축, 농기구의 무늬가 도안으로 걸려있고, 사람들은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동시에 술을 마시며 친교시간을 갖는다.

**종교:** 징포족의 주요 신앙은 만물에 영이 있다고 믿는 원시종교이다. 이들은 해와 달, 새, 돌(石), 나무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이들이 사람의 길흉을 가져다준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장수와 자손들의 번영과 풍년, 그리고 가축들의 번성을 위해 소원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앞두고,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결혼과 상을 당했을 때, 무당을 불러 소나 돼지, 닭을 죽이는 행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주관하는 무당은 크게 몇 등급으로 나뉘는데, 가장 지위가 높은 무당을 가리켜 '차이와(齋瓦)'라고 부른다. 이는 자기 민족의 역사, 고사, 시가, 전설 등 문화지식 수준이 매우 높고,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그 다음은 '따둥싸(大董薩)'라고 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하늘과 땅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무당이 있다. 이는 닭이나 마른 생선, 마른 쥐를 제물로 드리며 귀신을 불러내는 자이다.

삼림 역시 징포족에게는 중요한 숭배 대상이다. 그래서 각 마을 주변에는 성스러운 숲(神林)이 있고, 이곳에서 각종 종교활동을 거행한다. 이 산에 마을을 수호하는 신(神)이 살고 있다고 믿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나무를 베거나 동물을 잡아죽일 수가 없다. 물과 불 역시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다.

**기독교 :** 징포족에 대한 선교 역사는 1887년 미얀마의 커친주(克欽族-중국 내에서는 징포족이라고 부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시작되었다. 1907년 정식으로 윈난 서쪽의 두안리(端麗), 잉장(盈江), 루시(潞西)지역의 징포족에게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1927년에는 성경이 번역, 출판되었다. 이후 복음활동이 이루어지면서 1957년 징포족의 기독교인이 6,060명이었던 것이 현재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자료상으로 55,000명(현재 실제적으로는 더 많다고 보는데, 천주교인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신도가 있다. 현재 룡촨현(陇川縣)과 잉장현(盈江縣)에 윈난성 정부에서 인정한 정식 성경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 리쑤족과 함께 징포족의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1996년 정부에 의해 난징(南京)에서 징포족 신구약 성경이 출판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징포족은 윈난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미 오래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 미전도 종족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복음이 일찍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변경지역

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은 들어갔으나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바램은 이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왔으면 한다.

### 징포족 지역에 가려면

징포족이 있는 지역에 가려면 다음과 같다. 변경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홍콩,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을 경유하여 쿤밍(昆明)에 도착, 쿤밍에서 버스로 대략 20시간 이상, 비행기로는 1시간 걸려 루시(潞西)에 도착, 루시에서 다시 버스를 이용 약 5~10시간 가면 두안리, 룡촨, 잉장에 도착한다. 여기서 다시 징포족이 있는 깊은 마을까지 들어가야 한다.

### 기도제목

1.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2. 변경지역이라는 특수지역에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복음사역자가 나올 수 있도록.
3. 기존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4. 성경공급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 참고서적

1. 景頗族, 民族出版社
2. 景頗族簡史, 云南人民出版社
3. 景頗族(樹葉信與草橋), 云南教育出版社
4. 云南簡史, 云南人民出版社
5. 云南少數民族風情錄, 廣東旅游出版社
6. 云南省志(宗教志), 云南人民出版社
7. 新云南省情, 云南人民出版社
8. 德宏宗教, 德宏州委統戰部-德宏州史志辦公室 合編
9. 德宏傣族景頗族自治州概況, 德宏民族出版社
10. 中國少數民族宗教概覽,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1. 中國少數民族禁忌大觀, 廣西民族出版社
12. 中國少數民族語言使用情況, 中國藏學出版社
13. 中國民族統計年監, 民族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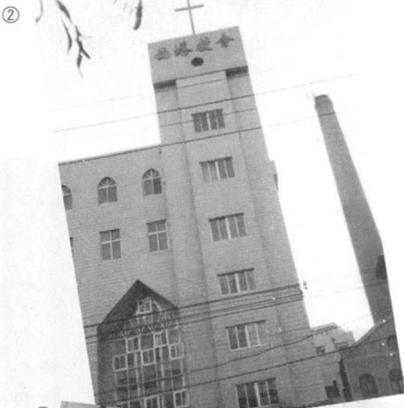
허중선/ 중국선교사

#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 선양(沈陽)



선양에 있는  
① 소가톤교회  
② 서탑교회  
③ 동관교회



선양시는 랴오닝(遼寧)성의 성도(省都)로써 동북 3성의 상업유통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충지이다. 현대식 고층빌딩이 우뚝 솟아 있고, 교통체증이 상당하다. 중심가인 중제(中街) 대형 백화점은 그 규모가 꽤 크다. 조선족이 모여 사는 시타(西塔) 거리에는 한국식 식당, 다방, 옷가게가 즐비하게 서 있어 한국에 온 것으로 착각 할 정도이다. 5천년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채 근면 성실함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는 선양. 이곳은 21세기 중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하나의 중심도시라 할 수 있다.

선양시 전체의 면적은 13,008km<sup>2</sup>이고, 인구는 680만 명(도심인구:473만 명)으로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다음으로 큰 대도시이다. 해발 50m에 80%가 평지여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기도 수월하다.

한족 외에 조선족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그 외에도 만(滿)족, 후이(回)족, 씨버(錫伯)

족, 몽구(蒙古)족 등 32개 민족이 살고 있다.

선양의 행정구역은 9개 구(區)와 3개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허핑(和平)구, 선허(沈河)구, 따둥(大東)구, 황구(皇姑)구, 티에시(鐵西)구, 동루(東陵)구, 위홍(于洪)구, 쑤지아툰(蘇家屯)구, 신청쯔(新城子)구

현급시: 신민(新民) 현급시

현: 라오중(遼中)현, 캉핑(康平)현, 파쿠(法庫)현

선양은 온대 계절풍 반습윤 대륙성 기후에 속하며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변화가 비교적 크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7.4℃로 겨울이 길고 상당히 추운 편이며 봄은 갑자기 찾아오고, 일조량과 복사량이 충분하다.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내리며 공기가 습하며, 가을은 짧고 시원하다. 매년 4~10월은 선양 관광의 최적기이다.

## 역사

선양은 2천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고도(古都)로, 연(燕)나라의 영토였다가 잠시 고구려의 영토가 되기도 했다. 선양이라는 명칭은 원나라 성종(1296)때 처음 사용되었으며, 1625년 청태조(淸太祖) 누르하치(努爾哈赤)가 수도를 라오양(遼陽)에서 선양으로 옮겼으며, 1634년에 청태종(淸太宗) 황태극(皇太極)이 선양을 '성징(盛京)'이라 칭하고 청왕조의 국도로 정하였다. 1625년부터 1644년까지 청조(淸朝)의 도읍이었으나 베이징으로 천도한 이후 '펑톈(奉天)'으로 불렸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장쥘린(張作霖)이 철도, 광산을 근간으로 하여 선양을 근대 공업 기지로 발전시켰으나, 1931년 일본이 장점하면서 펑톈시로 불리게 되었다. 항일전쟁에 승리하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후에 다

시 선양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선양이라는 지명은 혼허(渾河)의 원래 이름인 선수이(沈水)의 선(沈)에, 풍수에서 강의 남쪽을 뜻하는 양(陽)으로 '혼하의 남쪽'이라는 뜻이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난과 일제의 학정을 피해 많은 조선족들이 선양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시타(西塔)를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다.

## 산업

랴오닝성 성도인 선양은 상하이, 베이징, 톈진, 광저우 다음가는 중국의 제5대 도시이며 최대의 중화학 공업도시이다. 이곳에는 기계 공업을 중심으로 야금, 화공, 의약, 전자, 전자, 농업기계, 자동차, 섬유 및 기타 경공업 등 144개 업종 6,000여 개(94년도 기준) 기업이 있다. 전기, 기계, 금속, 군사공업이 발달하였으며, 400여 개의 과학 연구소, 800여 개의 민간 연구소, 28개 의과대학 등 49만 명의 각종 과학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선양 중심으로 배후 위성 도시군이 형성되어 있는데 동쪽에는 석탄도시 푸순(撫順), 남쪽에는 철강도시 안산(鞍山) 및 번시(本溪), 화학섬유도시 라오양(遼陽), 서쪽에는 석유 화학도시 진저우(錦州), 라오허(遼河), 석탄, 전력도시 푸신(阜新), 북쪽에는 석탄, 식량도시 티에링(鐵嶺) 등이 있고, 200km, 400km엔 항구도시 잉커우(營口)시, 따론펬(大連)시가 있어 경제발전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자원도 풍부하며 다양하다. 철강석(전국 매장량의 22%), 금강석(전국 매장량의 5%), 탄산철강(전국 1위), 옥석(전국 1위), 석탄, 석유, 몰리브덴, 마그네슘, 망간, 소금, 내화점토, 금 등은 매장량이 매우 많다. 토산품으로는 양잠(전국 생산량의 75%), 사과(수출량 전국 1위), 인삼, 녹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선양의 북릉공원

## 종교 및 기독교 상황

무신론 59.1%, 중국종교 30.1%, 기독교 6.1%,  
복음주의 2.0%

선양엔 랴오닝성 기독교 양회 소속 삼자교회로 동관교회(東關教會), 북시교회(北市教會), 서탑교회(西塔教會) 등이 있다. 이중 서탑교회는 1913년 20명의 신도로 시작하여 지금은 목사 1명, 전도사 6명, 신자 1,500명으로 성장한 조선족 교회의 모체이다. 1957년 이후 오애은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고 현재까지 시무하고 있다. 동북삼성의 처소교회 지도자를 양육하여 파송하는 사역도 담당하고 있는데, 1894년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동북삼성의 목회자의 산실인 동북신학원이 있다. 한국인 모임도 이곳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선족 교회의 중심이다.

최초의 한글성경을 번역한 장소인 동관교회는 선양의 중심적인 한족교회이다. 1889년 예배를 드리다가 의화단 사건으로 예배당이 소실된 후, 1907년 재건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1941년에 이미 신도 1,300명의 동

북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고, 문화혁명 이후 1979년에 예배를 재개해 지금은 원로목사 1명, 목사 3명, 협동목사 1명, 장로 3인에 등록교인 2만의 최대 교회이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선양은 동북삼성 기독교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교회와 신학교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주변 농촌의 처소교회와 가정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한편 선양은 조선족들이 많아 선교 초기부터 한국인 사역자들이

많이 활동한 곳이다. 대부분 사역자들이 5~6년 사역을 해왔는데, 최근 이들 사역자들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벌금형, 추방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지고 있다. 이제는 다른 사역지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 볼 수도 있지만, 이들 사역자들의 안전과 지혜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기도제목

1. 삼자애국운동에 속한 일부 나이많은 지도자들은 정치적 동기와 인간관계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없지 않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원하는 젊은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2. 서탑교회, 동관교회, 북시교회, 동북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좋은 영향력을 주변 교회에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3. 선양이 물질적인 부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4. 일자리를 찾아 이 도시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 뤄양 (洛陽)



뤄양역 앞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뤄양시는 허난(河南)성의 서부, 황하의 중류에 위치하여 “중원(中原)”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뤼양은 7대 고도(古都) 중의 하나로 중국 정부는 뤼양을 역사, 문화 명승지로 공포하였다. 국가급 보호문화재가 6곳, 성급 보호문화재가 53곳, 시급 보호문화재가 40여 곳이 있다.

뤄양은 자원이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신흥 공업도시이다. 또 뤼양은 실크로드의 시작점이다. 뤼양의 북쪽엔 황허(黃河)가 흐르고 있고, 남으로는 5대 악산 중의 하나인 까오산

(嵩山)이 있으며 인근엔 유명한 소림사(少林寺)도 있다.

1개의 시(市), 8개의 현(縣), 6개의 구(區)로 구성되어 있고, 총 면적은 15,208km<sup>2</sup>이며 이 중 시 면적은 544km<sup>2</sup>이다. 총 인구는 595만여 명인데 이 중 시 인구는 132만 명이다.

뤄양은 동북아시아의 한랭 건조한 기후대와 동남 아시아의 온난 습윤한 기후가 만나는 지역이다. 기온은 1월이나 12월에 -2℃ 정도이고, 7, 8월에는 30℃ 정도이다. 강수량은 400~800mm 정도로 밀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기후이다.



뤄양의 용문석굴

뤄양시는 동서를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이고, 남북을 관통할 때에도 그 중심지역이 된다. 정저우(鄭州)를 지나 카이펑(開封)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이미 건설되어 있고, 310번, 207번 두 개의 국도가 있다. 시안(西安), 란저우(蘭州)로 가는 룡하이(龍海)철도는 한단선(漢丹線<우한~단장커우>)과 랑위선(襄渝線<쌍뽀~충칭>)과 연결하여 우한(武漢), 충칭(重慶)까지 쉽게 갈 수 있다. 뤼양은 정저우에서 120km로 열차로는 2시간, 베이징에서는 12시간이 걸린다. 2급 공항이 있어 대형 비행기가 운행한다.

## 역사

시안(西安)이 '정치적 도시'라면 뤼양은 '예술의 도시'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다. 뤼양이란 지명은 황하의 지류인 '뤄허(洛河)의 남쪽'이란 뜻이다. 기원전 770년에

주(周)나라의 도읍이 된 것을 비롯하여, 동주(東周), 후한(後漢), 당(唐),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의 북위(北魏)와 후진(後晉) 등 13개 왕조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 하(夏)왕조도 동이(東夷)족이 세운 것이고, 은(殷)나라도 북적(北狄), 주나라 또한 서융(西戎)이 세운 것이지만, 모두 대륙의 중심 뤼양으로 천도하면서 중화문화(中華文化)에 동화되었다. 대부분 유목민족의 활동성을 가졌었는데, 점차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고, 혈통이 섞이고, 언어도 한어로 바뀌면서 결국 정체성마저 소멸되어 지금은 그 민족들의 자취조차 찾을 수 없다.

수양제(隨陽帝)는 창안(長安, 지금의 시안)에서 뤼양으로 천도한 605년에 거대한 궁정을 건축하고 뤼양을 거점으로 하여 남으로 항저우(杭州)까지 대운하를 파서 남북경제의 통합과 번영의 기초를 쌓았다.

뤄양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당나라 때는 수도인 창안에 비해 경제, 학문, 예술의 중심지로써 번영했다. 특히 측천무후는 뤼양을 좋아하여 "신도(神都)"라 불렀으며, 이백(李白), 두보(杜甫), 백락천(白樂天) 등 많은 문인들도 이곳을 중심으로 예술의 꽃을 피웠다. 당이 멸망한 이후 많은 전란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파괴되었고, 이후로는 옛 영화를 찾지 못하였다.

49년 공산화 직후에는 인구 8~9만 명의 쇠퇴한 지방도시였지만, 현재는 인구 80만의 신흥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 사회 및 경제

뤄양은 역사의 고도로서, 누렇게 찌든 건물들이 즐비한 다른 도시와 달리 화사해 보이고 도시 전체가 밝아 보인다. 뤼양엔 비철 및 강철생산 기지의 기초 위에 대규모 기계제조기지가 형성되어 있다. 전기, 야금, 건축자재, 석유화학, 방직, 식품 공업이 발달하였고, 1,300여 개의 기업이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과학 기술자 1,488명에 신소재, 항공, 전자 등도 발달하였다. 1995년 통계에 따르면 401개의 기업에 12억 7천5백 달러를 벌어들였다. 황하의 지류인 뤼허(洛河)가 있고, 허난(河南)의 쌀농사 지대와 허베이(河北)의 밀농사 지대의 경계선에 위치하여 쌀과 밀의 식량기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석탄 산지로서 화력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뤼양은 유명한 관광지이다. 위나라부터 수, 당까지 보유했던 불교유적지 용문석굴(龍門石窟), 중국 5악 중의 하나인 까오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 종교 및 기독교 상황

뤄양시에는 4개의 삼자교회가 있다. 명신(明新)교회, 썩룽(興隆)교회, 시궁(西宮)교회 등

에 적게는 2천 명에서 많게는 4천 명의 신도가 있다. 뤼양시는 10%가 신도이다. 4개의 삼자교회에 6명의 목사가 재직 중인데, 이중 썩룽교회는 여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난징신학교 출신이며, 일부는 정저우의 허난성경학교(2년제, 연 60명 배출)를 졸업하였다. 각 삼자교회에는 연결된 다수의 집회소가 있고, 훈련반이 운영되고 있다. 각 반은 30명 정도로 뤼양시 주위로 9개 현에 있어서 60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다.

허난성에는 가정교회가 많았지만, 최근 삼자교회가 가정교회를 흡수하고 있어서 지금은 가정교회보다 삼자교회가 많은 실정이다.

뤄양시 교회 지도자들은 지식수준이 낮은 편이고 훈련된 목회자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를 위한 강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뤄양은 불교가 발달되어 있지만, 모슬렘도 많다. 썩룽교회 근처에 가면 회족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 칭진쓰(清真寺)라 하는 이슬람 예배당도 불교사원보다 많다.

### 기도제목

1. 경건하고 복음주의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2. 젊은이들이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 물질주의 문화가 팽배해지지 않도록.
3. 낙후된 경제상황 가운데 실업문제가 해결되도록.
4. 헌신된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가 훌륭한 지도자로 훈련되도록.

## 중국 정부의 『파룬궁 죽이기』

지난 4월 25일, 베이징(北京) 그것도 정치의 중심지인 중난하이(中南海)에서 1만 5천여 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이 모여 파룬궁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50주년이자 천안문 사태 10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어느 때 보다 사회 안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시점에 벌어진 파룬궁의 시위는 중국 정부를 당혹케 했다. 비록 그들의 시위가 평화적인 시위이긴 했지만, 1만 5천여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와 일시분란한 그들의 연락체계에 중국 정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적으로 파룬궁은 <파룬다파(法輪大法) 연구회>라는 중앙 조직 아래에 전국 각지 연구회가 있으며, 그 아래에 총지부 39개, 지부 1천 9백여 개, 소단위 조직 2만 8천여 개의 완전한 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화와 팩스는 물론 컴퓨터 통신망까지 이용해 중국 전국의 파룬궁 조직을 지휘해 왔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7월 22일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을 통해 파룬궁 조직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파룬궁 수련을 금하는 중국 당국의 결정을 대대적으로 방송했을 뿐 아니라, 신문에 '과학으로 파룬궁을 폭로한다' 라는 시리즈를 만들어 게재하기도 하였다. 파룬궁이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이며, 초종교적인 논리로 사람을 현혹해서 사망자와 정신병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수련자들이 언론기관과 정부기관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파룬궁의 잘못된 수련 때문에 중국내 30개 성, 시에서 지금까지 모두 74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7월 29일, 파룬궁 창시자 리홍즈(李洪志)에 대해 4·25 사건을 지휘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30일 중난하이에서 파룬궁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수련자 20여 명을 체포, 구금하였다. 그리고 공무원과 당원들에게 파룬궁을 탈퇴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리홍즈는 미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파룬대법회(法輪大法會)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나는 4·25 사건을 선두 지휘하지 않았다. 파룬궁은 정치적 단체가 아니며 도덕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건강수련 모임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내 추종자들이 더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 염려되며 6·4 천안문 사태와 같은 유형극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오히려 중국 정부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

중국 당국은 7월 29일 뉴욕에 머물고 있는 리홍즈에 대해 지명 수배령을 내리고 인터뷰를 통한 체포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결정에 당혹감을 표하면서 "중국인 파룬궁 수련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고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제 인권 문제들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라."며 평화적 집회의 허용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리의 신변처리와 파룬궁 사건은 국제문제로 떠올랐다.

# 为工作人的祷告

(직장인 크리스천을 위한 기도)

主管所有领域的父神，  
zhǔ guǎn suǒ yǒu lǐng yù de fù shén

感谢您赐给每个人不同的才能，让他们在不同的领域中事奉您。  
gǎn xiè nín cì gěi měi gè rén bù tóng de cái néng ràng tā men zài bù tóng de lǐng yù zhōng shì fèng nín

虽然弟兄在事奉肉身的主人，  
suī rán dì xiong zài shì fèng ròu shēn de zhǔ rén

但请您让他经常铭记那建立这主人，并主管工作岗位的是神，  
dàn qǐng nín ràng tā jīng cháng míng jì nà jiàn lì zhè zhǔ rén bìng zhǔ guǎn gōng zuò gǎng wèi de shì shén

让他过每天敬拜神的生活。请您每天赐给弟兄解决所有问题的智慧，  
ràng tā guò měi tiān jìng bài shén de shēng huó qǐng nín měi tiān cì gěi dì xiong jiě jué suǒ yǒu wèn tí de zhì huì

并使他能成为经常为周围同事祷告的人。  
bìng shǐ tā néng chéng wéi jīng cháng wéi zhōu wéi tóng shì dǎo gào de rén

我们赞美您，借着弟兄实现那美好的作工。  
wǒ men zàn měi nín jiè zhe dì xiong shí xiàn nà měi hǎo de zuò gōng

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啊们。  
fèng zhǔ yē sū jī dū de míng dǎo gào ā men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

각각의 사람에게 좋은 재능을 주셔서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가 비록 육체의 상전을 섬기고 있지만, 그 상전을 세우시고  
또한 일터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제가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더하시고,  
주위의 동료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형제를 통하여 선한 역사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恢复人类的原状 (인류의 회복)

A : 圣经上说, 人是照着神的形象被造的, 但我经常觉得人太罪恶, 太丑陋了。  
shèng jīng shàng shuō rén shì zhào zhè shén de xíngxiàng bèi zào de , dàn wǒ jīng cháng jué de rén tài zuì è , tài chǒu lòu le .

B : 其原因是人堕落而失去神的形象。  
jī yuán yīn shì rén duò luò ér shī qù shén de xíngxiàng

A : 那么人类再没有希望了吗?  
nà me rén lèi zài méi yǒu xī wàng le ma

B : 那也未然, 不管自己是否意识到, 所有的人在具有罪性的同时, 也拥有要寻求神, 恢复神的形象的圣洁的愿望。  
nà yě wèi rán , bù guǎn zì jǐ shì fǒu yì shí dào , suǒ yǒu de rén zài jù yǒu zuì xìng de tóng shí yě yǒng yǒu yào xún qiú shén , huī fù shén de xíngxiàng de shèng jié de yuàn wàng .

A : 那么, 人通过努力行善, 刻苦进行自我修养, 就能变得圣洁了吗?  
nà me , rén tōng guò nǚ lì xíng shàn , kè kǔ jìn xíng zì wǒ xiū yǎng , jiù néng biàn de shèng jié le ma

B : 已堕落的人类完全没有能力重新恢复圣洁, 只有通过耶稣基督赦罪的能力, 才有可能叫我们圣洁。  
yǐ duò luò de rén lèi wán quán méi yǒu néng lì chóng xīn huī fù shèng jié , zhǐ yǒu tōng guò yē sū jī dù shè zuì de néng lì , cái yǒu kě néng jiào wǒ men shèng jié .

A :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이 죄악 되고 추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B : 그것은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A : 그럼 인간에겐 이제 희망이 없는 건가요?

B :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죄성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거룩한 소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A : 그럼, 선행에 힘쓰고 열심히 자기 수양을 하면 거룩해 질 수 있나요?

B :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다시 거룩해 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 我的帮助从何而来

5 6 7 7 7 6 5 4- 5 4 3 4 5 4 3

我要向高山举- 目我的帮- 助从-

wǒ yào xiàng gāo shān jǔ mù wǒ de bāng zhù cóng

위야오 상까오 산취- 무위디 빵- 주충-

*G Bm C D*

2 1 7- 1 2 3- 3 2 1 7 2 5 4

何而来我的帮 助从创 造天地的

hé ér lái wǒ de bāng zhù cóng chuàng zào tiān dì de

허얼 라이 위 디 빵 주충 창 짜오 티엔 디 디

*Bm E C Am Bm Em*

3 3 7 6 5 6- 5 6 7 7 7 6 5 4- 5 4

耶和- 华- 而 来 我要向高山举- 目我的

yē hé huá ér lái wǒ yào xiàng gāo shān jǔ mù wǒ de

예허 화- 얼 라이 위야오 상까오 산취- 무위디

*C Am D G Bm*

3 4 5 4 3 2 1 7- 1 2 3- 3 2 1

帮- 助从- 何- 来我的帮 助从创

bāng zhù cóng hé lái wǒ de bāng zhù cóng chuàng

빵- 주충- 허- 라이 위 디 빵 주충 창

*C D Bm E C Am*

7 2 5 4 3 3 4 3 2 5- ||

造天地的 耶和- 华- 而 来

zào tiān dì de yē hé huá ér lái

짜오 티엔 디 디 예허 화- 얼 라이

*Bm Em C D7-3 G*

## 선교다이제스트

### 21세기 선교지도자 개발론

이영희 지음 · 생명의 말씀사 · 218쪽 · 7,000원



이 책은 오늘날 한국 교회 선교 운동의 문제점이 지도력 부족에 있음을 인식하고 선교 발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선교 지도력 개발을 연구한 연구서이다.

참 지도자의 정의와 지도력의 형태를 성경과 세계 선교 역사에 나타난 대표적 지도자들의 지도력 유형에서 연구, 분석하여 이것을 토대로 한국 교회의 21세기 선교를 이끌어 갈 지도자상과 새로운 지도력 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 차트 선교학

박용민 지음 · 기독교문서선교회 · 212쪽(4×6배판) · 7,500원



본 서는 선교학 여러 분야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보다 쉽게 선교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신학도, 선교 관심자, 교회의 선교 위원회 등 사람들에게 간략하게 선교 전반에 대한 것을 이해하며, 개괄적으로 선교학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말미에 있는 주제별 참고문헌을 통해 선교학의 제반 분야에 대해서 독자들이 좀더 깊게 연구할 수 있도록 분류해 놓았다.

###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대로우 밀러 지음 · 윤명석 번역 · 예수전도단 · 368쪽 ·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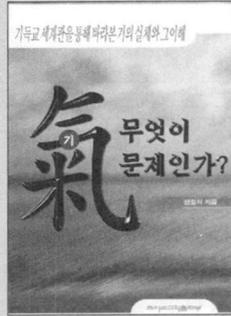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이 책은 한 나라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길을 제시한다. 국제 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이며, 기독교 세계관의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대로우 밀러는 '생각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명제를 중심으로 온 땅을 섬기는 자로 부름 받은 기독교인의 삶 안에 있어야 할 변화의 핵심을 이야기한다. 10/40 청문 지역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우상 숭배, 이미 기독교

화된 나라에서조차 반복되는 가난과 빈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 이 모든 것들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다. 진정한 변화와 진보를 가져오는 생각을 발견하라. 그것은 행동하는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진리에 순복하고, 열방을 섬기는 다리가 될 것이다.

## 서평

### 기(氣), 무엇이 문제인가?

안점식 저, 죠이선교회 출판부, 162면, 4,000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이고 균형있는 태도를 지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은 혼합주의에 빠져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지나친 패배주의에 젖어서 극단적으로 경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기(氣)이다. 우리는 대부분 기(氣)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성경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런 시기에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의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에 아주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책의 내용이 일상적으로 퍼져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일상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음양오행, 단전호흡, 한의학, 기공치료, 사주팔자, 풍수지리, 수맥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 기독교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평소에 뭔가 꺼림직 하면서도 확실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앞의 일들에 대해, 그 기원과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적인 입장과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기(氣)의 문제를 철학적인 접근에 머물지 않고 선교적 측면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철학적 접근은 "그것이 무엇이냐, 옳으나 그르냐"의 문제이다. 물론 이런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여 “그렇다면 기(氣)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밝혀주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면까지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단전호흡의 문제에서 심호흡과 복식호흡을 분리시키고 건강과 정신집중이라는 장점을 인정하는 면이나 사주에 대해 접근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성경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점 등이 그렇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 좋은 통찰력을 준다. 그리고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할 것인가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국철학에 관한 개념은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개념을 분석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의미를 따라가며 읽지 않으면 놓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념을 분석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기에 대해 패배주의나 혼합주의를 피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어려운 책을 읽을 때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지만, 또 그만큼 얻는 것도 큰 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참고 자료는 이런 류(類)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오늘의 중국을 읽는 27가지 테마**

다케요시 지로오, 나카노 겐지 저 · 김양수 역 · 자작나무 · 272쪽 · 7,500원



중국하면 떠오르는 경직되고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과는 달리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매년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핵가족형태나 의식주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수입의 증대로 인한 여가선용이나 젊은이들의 연애와 결혼관, 자녀양육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현대 중국에 대한 정확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 책은 단순히 달린 중국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중국의 변화 실상을 27개의 테마로 정리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시키는 중국 이해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고대 음악사**

양 인리우 지음 · 이창숙 역 · 중국총서·중국학술출판사 · 684쪽 · 25,000원



『중국 고대 음악사』는 상고 시대부터 송(宋)대에 이르는 중국 전통 음악을 다루고 있다. 음악 사상과 제도, 악기와 악률, 음악가 중심으로 서술된 이 책은 모두 6부 1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에 함께 실려 있는 127개의 그림은 중국 음악의 전모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책은 체제와 내용 면에서 풍성함을 구가(謳歌)하며, 연구자들 사이에 지금까지 나온 음악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논저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의 중국 음악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구체적인 저술 방식, 그리고 역자의 성실한 번역은 독자들이 중국 음악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읽어내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중국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Susan L. Shirk 지음 · 최원규 역 · 경남대학교 출판부 · 550쪽 · 15,000원



이 책은 그 동안 중국문제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낸 바 있는 Shirk 교수가 개혁에 실패한 구소련의 사례와 대조해 가면서 1978년 이래의 중국의 개방개혁 과정과 성공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Shirk 교수는 경제개혁 정책의 정치적 결정 및 시행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 설명하고 1차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경제관료, 경제관련 연구원, 기업경영자와 노동자, 중국에서 기업활동의 경험이 있는 외국기업인들과 수 차례의 면담조사를 시행했다. Shirk 교수는 면담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문헌과 신문 기사 및 학술논문과 대조하는 학자적 치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 선교 게시판

# 해외 선교 단체 정보

### 영적 전쟁을 위한 중보기도 훈련학교

훈련기간: 1999. 9. 13(월)부터 14주간

모임시간: 서울/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대전/매주 목요일 오후6시~10시

장소: 서울/예사랑 침례교회

(담임: 유태규 목사 · 02-841-4485)

대전/침례신학대학 선교훈련원

개강모임: 서울/9. 13(월), 대전/9. 16(목)

회비: 5만원

문의처: 침례교 해외선교회(02-769-1712)

강순관 총무

### WEC 선교대회

주제: 선교, 그 끝나지 않은 과업!

일시: 1999. 9. 13(월)~15(수) 오후7시

장소: 사랑의교회 본당

문의: 02-529-4552

### 「중동선교회」 선교사 모집 훈련학교

기간: 1999. 9. 7~11. 29

훈련비: 17만원

대상: 이슬람권 선교에 관심있는 선교 후보생

훈련과목: 선교일반 및 선교행정, 이슬람종교와

문화이해, 언어훈련(아랍어)

### 「부산선교협의회」 선교정탐훈련원 개원

일시: 1999. 9. 11(토)~12. 11(토)

장소: 광안교회 교육관

훈련비: 15만원

모집인원: 40명

문의: 051-753-3682

### 부산OMF 토요선교학교

일시: 1999. 9. 4~11. 27,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부산 OMF 사무실

대상: 선교관심자 및 헌신자

프로그램: 선교사의 삶과 사역, 타문화 이해,

OMF에 대한 이해, 언어공부

강사: OMF 안식년 선교사 및 필드선교사

문의: OMF 부산지부(051-863-4603)

### 「중국어문선교회」 창립10주년 감사예배

그 동안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비전과 우정을 다  
지며 동역했던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999. 11. 1(월) 오후 5시 30분 리셉션,

오후 7시~9시 감사예배

장소: 신반포교회(홍문수 목사)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전화: 02-592-0132, 594-8038, 535-4255, 533-5497

팩스: 599-2786

## 중국복음선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 및 세미나 안내

중국복음선교회가 금년 9월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동안 중국복음선교회와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15주년 기념집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일시: 1999. 9. 2~4

(2일: 15주년 기념예배, 3일: 선교사대회,  
4일: 세미나)

장소: 중화기독교 한성교회

문의: 중국복음선교회

02-778-3626, 318-3956, 318-6867 팩스: 773-6278

### <특별 중국선교세미나>

주제: 21세기로 향하는 중국 교회

강사: 조나단 차오(중국복음선교회 국제총재)

일시: 1999. 9. 4(토) 오후 2시~6시

참가비: 5,000원

문의: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전화 02-318-6867)

### 《중국교회와 선교》 제7호 발간 예정

특집 주제는 「21세기로 향하는 중국 교회」입니다. 조나단 차오(CMI 국제총재), 양지아린(홍콩 지엔따오(建道)신학교 교수), 싱푸쥡(홍콩 지엔따오(建道)신학교 교수), 천레이(대만 따오성(道生)신학교 교수), 왕쓰웨(본 연구소 소장) 등, 중국선교 전문가들이 21세기 중국 교회에 대해 전망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중국 가정교회, 삼자교회, 조선족교회에 대한 비전을 다룰 예정이며, 중국 사회문제로는 중국 민주화, 지식인, 지식인 기독교 개종과 소수민족과 관련된 티벳 및 소수민족에 관한 글, 그리고 종교자료를 다룹니다.

## PPM 증보기도 세미나

주제: 증보기도&영적전쟁

일시: 서울/1999. 10. 11~12 저녁7시~9시30분

대전/1999. 10. 13~14 저녁7시~9시30분

강사: 오대원 목사

장소: 서울/남대문교회 대전/미정

회비: 만 원

문의: PPM 서울본부(02-3147-1637)

## 중국선교사훈련원 청강생 모집

중국복음선교회의 부설 기관인 중국선교사훈련원에서는 1999학년도 2학기 청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중국사역 중심과목을 개설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문의: 02-318-3956, 755-5415

## 제9기 중동선교학교

기간 및 일시: 1999. 9. 9~11. 16(10주, 20개 강의)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9시30분

수료식: 1999. 11. 29 사랑의교회 소망관

훈련장소: 서울- 중동선교회(2호선 삼성역 5분거리)

대구- 지부사무실(농촌역 5분거리)

훈련비: 15만원(교재비 포함)

문의처: 중동선교회(02-3452-3058)

## 중동선교회 선교사 모집

지원자격: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자로 중동 및 중앙 아시아 이슬람권에 헌신된 자.

모집기간: 1999. 9. 1~9. 10

훈련기간: 1999. 9월~10월

중동단기훈련: 2000. 1월~2월

훈련비: 국내훈련 20만원, 단기훈련(일정비용)

문의처: 중동선교회(02-3452-3058)



# 지린성(吉林省) 국경 관리 조례 선전 제강

중국과 조선의 국경지역은 우리들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향이며, 우리가 자손대대로 사업과 생산에 종사하고 생활해 온 고장이다. 나라의 안전과 안정, 그리고 평화롭고 안온한 국경치안환경은 국경지역 경제가 온당하게 발전하고 국경지역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는 선결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국경을 보위하고 국경의 표지와 시설을 보호하며, 국경지역의 사회질서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국경주민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오랫동안 국경지역의 주민들은 국경의 수호를 자기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일에 뛰어들어 우리 성(省)의 국경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지난 시기 동안 소수 국경주민들의 법 관념과 국경관념이 희박하고 국경의 법규가 튼튼하지 못해 밀수, 마약밀매, 불법체류, 국경표지와 변방시설의 파괴 등 규칙을 어기는 사례가 많았다. 강에 떠내러오는 뗏목을 훔치고, 불법체류자를 수용하고 도와주는 등 범죄활동이 계속 감행되고, 외교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국경의 치안질서를 어지럽혔으며, 국경주민들의 일상적인 사업과 생산,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국경의 정상적인 치안질서를 수호하고 국경주민들의 합법적인 권익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993년 11월 12일, 지린성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국가의 법률, 법규와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지린성 국경관리 조례》를 연구, 제정하여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12월 8일부터 반포, 실시하였다. 이 결정은 중요하고도 깊은 역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데, 우리 성은 국경관리에 의거할 만한 구체적인 법규가

없었던 역사를 끝내고 국경사업을 정상적인 법제 아래 두게 되었다.

《지린성 국경관리 조례》가 반포, 실시된 4년 동안 국경관리부문에서는 엄격히 《조례》에 의거하여 국경관리 능력을 행사하였으며, 대량의 국경사무를 처리하였다. “집행할 법이 있고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엄하게 집행하고 위법행위는 반드시 추궁한다.”는 원칙을 관철하여 국경불법행위에 타격을 주었고, 이를 범죄자들이 두려워하여 국경지역의 안전을 지켜주었다. 또한 광범위한 국경주민들은 국경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법에 의해 국경을 보호하고 법에 의해 다스리며 변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차지하였다.

국경의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에 따라 국경정책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법에 의해 국경을 다스리기 위해 1997년 11월 14일 지린성 제8기 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지린성 국경관리 조례》를 수정하여 더 완벽하게 조정하였다. 《지린성 국경관리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실성, 법률성, 조작 가능성을 더 보완하였다.

나라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은 평화로운 주변환경이 필요하고, 국경주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하게 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경치안질서는 필수이다. 그래서 국경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반드시 《지린성 국경관리 조례》를 잘 배우고 능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국경선 표지를 바꾸거나 바꿀 가능성이 있는 활동, 국경지역 하천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

는 활동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 ◆ 국경지역의 교통, 항공,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수리, 전력, 측량, 국경수비, 보호림 보호, 국토보호에 관련 되는 시설이나 표지판을 파손, 이동하거나 뜯어내지 못한다.
- ◆ 국경선에서 중국 방향으로 1km 이내와 발전소 제방에서 4km 이내에서 마음대로 폭파작업을 하지 못한다.
- ◆ 국경의 다리, 댐 위에서 유람을 하거나 그 수역의 상하류 100m 범위 내에서 고기잡이, 수영, 스케이트 타기, 돌폭파 등의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다.
- ◆ 국경선에서 생산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 ◆ 국경선에서 우리측으로 1km 이내에서 마음대로 총을 쏘지 못한다.
- ◆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가 국경 인근으로 넘어간 가축을 쫓거나 요구하지 못하며 반드시 즉시로 국경공안에 신고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국경하천관리국에서 확정한 범위 내에서, 또 국경하천 가운데의 섬, 모래톱에서 마음대로 벌목하거나 자갈을 파내거나 수로를 파지 못한다.
- ◆ 국가에서 확정한 국경지대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측량, 탐사, 광석채굴 등의 활동을 하거나 영화, 녹화, 촬영을 할 수 없다.
- ◆ 국경하천에서 폭파, 전기, 독약 등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거나 기타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 ◆ 국경하천을 오염시키거나 기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 국경하천에 떠내려오는 뗏목과 목재, 도구를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채집, 수렵, 고기잡이와 기타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 ◆ 국경 인근의 불법체류자들을 경제적으로 방조, 수용, 보호, 돌봐주지 말아야 한다.
- ◆ 국경 인근의 사람들과 불법적인 교역을 하지 말아야 한다.
- ◆ 국경 인근에서 우리 국경 내에 들어온 가축을 사사로이 감춰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서 안 된다.
- ◆ 경계지역의 하천과 그 지역에 대한 유람과 국경 내 개

인적인 무역활동을 함부로 조직해서는 안 된다.

- ◆ 밀수, 마약밀매 활동에 종사하거나 밀수물품을 구입해서는 안되며, 기타 국경질서와 안전에 해를 끼치는 다른 행위를 저질러선 안 된다.
- ◆ 경계지역의 하천에서 통행하는 모든 선박들은 반드시 국가와 해당 규정, 국가에서 인근 국가와 체결한 해당 협정과 협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 ◆ 경계지역의 하천에서 통행하는 민간선박들은 반드시 국가와 성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선박표지를 갖추어야 하며, 표지와 번호를 달아야 할 뿐 아니라, 현급 업무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안전합격증>과 <작업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선원들은 <선원증>을 달고 해당 주관부서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 ◆ 비준을 거쳐 경계지역의 하천에서 뗏목작업과 수문 측량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뗏목작업증>이나 <수문작업증>을 지녀야 한다.
- ◆ 국경표지에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국경관리부서에 보고하고,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된다.
- ◆ 외국 비행물, 공중 낙하물, 표류물 또는 교통수단과 사람이 우리 국경 내에 진입했을 경우 즉시로 국경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 ◆ 모든 <지린성 국경관리 조례>를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그 정도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고, 수정하도록 하며 불법소득과 불법재물은 몰수하고 2백~1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징수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광범위한 국경지역 주민들은 <지린성 국경관리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경의식과 법 관념을 강화하며 자발적으로 국경불법 범죄활동에 맞서 투쟁하고 법을 지키는 모범 국경주민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국경불법 범죄자에게 엄숙히 경고한다. 모험적으로 행동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말라. 범법자는 법망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징벌을 면치 못하며, 반드시 법률의 호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 새 일꾼을 찾습니다

###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연구부, 훈련원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시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판·연구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지금 즉시 출판·연구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 02)533-5497. 석은혜 선교사

선교사 훈련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훈련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02)535-4255. 이성은 선교사

### 단기 선교사를 찾습니다

1. 사역지: 동북아시아 A국
2. 사역기간:  
2년 이상 본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3. 사역분야:  
-피아노 교사  
-제과제빵 기술자 및 관리자  
-원예농장  
(나무와 꽃, 농작물 재배 협력자)  
-유치원교사(전공자 및 경력자)  
-초등학교 교사  
-도서관 사서  
-Coffee shop staff
4. 자격: 각분야 기능직
5.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 02)793-7769(직통),  
02)794-5100(교환202)

### 파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1999. 7~9월

모집인원: 장·단기 선교사 각 00명

모집분야: 목회자 및 신학교 사역자, 제자 훈련 전문가, 전문인 선교사(체육인, 학생, 교수, 사업가, 의료인, 지역개발 전문가, 농업기술자 등), 선교사 자녀교육 담당자, 행정지원 선교사, 음악지원 선교사, 기타

문의: 침례교 해외선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가든빌딩 705호

☎ 02) 769-1712 FAX: 02) 780-0365

천리안 ID: kbfbmb

담당자: 강순관 총무

### OMF가 동역자를 찾습니다

모집부문: 재정부서 (1명)

자격요건:

영어해독이 가능하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 만약, 회계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이면 더욱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 행정사역을 사명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면 환영합니다(기혼자도 가능).

제출서류: 담임목사 추천서, 이력서,

신앙간증문(A4용지, 2~3장)

☎ 02) 3482-8958, 3481-9859

FAX: 02) 3482-6950

###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에서 동역할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문의처: 서울 중구 정동 25번지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전화: 02-318-6867 / 팩스: 773-6278

# 중국어문선교회

## 창립 10주년

### 감사예배

주님께서 주신 중국선교의 소명...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주님은 능력과 사랑을 주셨고,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셨습니다.

지난 10년 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우리의 간증과 감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 동안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후원하신 여러분을

〈중국어문선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에 초청합니다.

**일시:** 1999년 11월 1일(월)

오후 5:30 ~ 7:00 리셉션

7:00~9:00 감사예배

**장소:** 신반포교회(홍문수 목사 담임, 서초구 반포동 소재)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행정실

02)592-0132, 533-5497

E-mail: sinim@chollian.net



# 복음증주협회(CCL) 소책자 소개

**每日與主同行:** 매일 주님과 함께

- 일년 365일을 성경통독과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000원

**戴德生:** 허드슨테일러의 생애 3,000원

**你爲何要信:** 당신은 왜 믿어야 하는가? - 기독교의 과학성을 입증한 책. 3,000원

**真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스토트(J.R.W. Stott) 저/ 시에즈웨이(謝志偉) 역/CCL(복음증주협회)간체자(簡體字)판

존스토트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총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 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하여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문서선교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문서선교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면,

중국어문선교회 문서선교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 소책자와 양육 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강하림 간사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 535-4255

### ● 초대의 글

이 시대에 한국이 중국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르익어 많은 헌신자들이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사역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중국복음선교회에서는 중국선교 사역전문가에 의한 실제적인 중국선교사훈련을 통해 중국 선교사로서의 영성과 인격의 형성, 중국어 구사와 설교, 중국 실제사역의 이해, 중국현장 적응능력 등을 적절하게 갖춘 전문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중국선교사훈련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중국영혼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평생 헌신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을 중국 선교사 훈련의 장에 초대합니다.

### ● 대상

1. 중국선교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3. 전문대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2년 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 이상 근무한 자

### ● 훈련 및 교육내용

영성 및 인격훈련/ 선교사로서의 인격형성 및 영성, 경건의 훈련  
공동체 훈련/ 공동체 삶속에서의 개인성장 훈련  
은사 및 사역의 개발/ 개인의 은사 및 사역의 개발  
사역실습/ 현장 적응능력 향상과 실제사역의 실시  
중국어/ 기초부터 자유로운 언어 구사수준까지 설교능력배양  
중국선교 사역학/ 전문적인 중국선교 지식과 사역이해 도모  
중국학/ 개괄적인 중국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  
일반선교 사역학/ 폭넓은 세계선교와 선교문제에 대한 식견함양

### ● 일정

1. 훈련 및 교육기간 : 2000. 3. 2~2002. 2. 28  
(2년 4학기-국내교육, 해외실습)
2. 일 시 : 매주 화~금 오전 9시~오후 4시30분(평일주간)
3. 교육장소 : 본원 강의실
4. 전형방법 : 서류/필기/면접시험
5. 제출서류 : 본원지원서/신앙고백서/최종학교졸업·성적증명서  
/사진 2매(3\*4)/추천평가서 2통(담임목사, 교우)
6. 원서교부 및 접수 : 연중교부/1999. 11. 30 마감
7. 시험일자 : 논술(1999. 12. 6), 면접(1999. 12. 7-8)
8. 합격자발표 : 1999. 12. 21
9. 개강일자 : 2000. 3. 2
10. 문의: Tel 318-3956 (중국 선교사 훈련원)

# 2000년도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 선교사 훈련원 학생모집



중국선교 전문지

## 중국을 주제로

1999년 9.10월호 (통권59호)

발행처/ 시립(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박성주

발행, 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 김중하, 김피득, 마민호

왕쓰웨이, 지인성, 한수아(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 최귀례, 곽숙, 박정희, 전하영

편집디자인/ 박정영

### 중국을 주제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9년 8월 20일

인쇄처/ 친구인쇄 ☎ 02) 2264-5354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4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30,000원)

###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중구 답동 44-24 원지당 약국 3층

전화: 032) 762-0748

###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세요

☆ 인터넷 홈페이지

http://cpm.or.kr

☆ E-mail

sinim@chollian.net

☆ PC 통신 천리안

sinim

## 편집후기

이 무덥고 긴 여름을 지나면서 문득 “지구전”이란 낱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많은 각자의 사명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은 모호함 속에서, 때론 불타는 열정과 긴 낭패감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도 버텨야만 되는 것이 지구전의 성격이지요.

꾸벅꾸벅 조는 열처녀, 가물가물 꺼져 가는 등불, 그 때 벽력같은 “신앙이 오신다.”라는 길잡이의 소리에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이 번쩍 나지만 그나마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만이 신앙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긴긴 여름, 아니 그보다 더 긴 인생의 여정을 이겨냈으면 합니다.



### 국의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30,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42,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7,4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30,000원, 우편료 23,400원, 합계 53,4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61,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제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잡지입니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 독자카드 1999년 9·10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신규구독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1년 30,000원(6권)    2년 60,000원(12권)    3년 90,000원(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름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우 - )			(통 반)	출석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			(통 반)		

**전화신청 및 문의 02) 533-5497, 02) 592-0132**

# “중국을 주께로” 중보기도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 3)

중국 선교의 문이 왜 열리지 않는 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로써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선교의 모든 문들은 닫힌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광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제,

『중국을 주께로』 중보기도회가 98년 4월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중국을 위해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동역의 장이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중국을 섬기실 분들을 초청합니다.

**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6:30)**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훈련원**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137-069

Tel. 02) 592-0132, 594-8038

중국을  
주께로



#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희어진 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중국 교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을 주께로』를 구독하십시오. 중국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그들을 올바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눈과 귀가 될 것이며, 중국 선교에 동참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선교 현장의 숨결을 전할 것이며, 그리고 중국 선교사를 돕는 후원자들에게 기도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비전이 있는 교우나 당신의 후원자를 위해 대신 『중국을 주께로』를 구독 신청하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30,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TEL: (02) 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

(회지 구독요금이라 적어 주십시오.)

※ 미주지역 정기구독: LA의 JOY 기독교백화점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2-7282).

